

文學博士 學位論文

팔공산 은혜사 산내암자의 전통사찰  
지정방안에 대한 연구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이 상 국

2021年 6月

# 팔공산 은혜사 산내암자의 전통사찰 지정방안에 대한 연구

指導教授 오세덕

이 論文을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1年 6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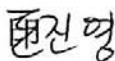
경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과

이 상 국



# 이상국의 博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도진영    

審査委員    장영수      


審査委員    오세덕    

審査委員    강봉원      


審査委員    정병모    

慶州大學校    大學院

2021年 6月

## 감사의 글

박사학위논문이라는 결실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완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지면을 빌어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그동안 자상한 논문지도를 해주신 오세덕 지도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의 세심한 가르침으로 이 논문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많은 지적과 가르침을 주신 강봉원 교수님, 정병모 교수님, 도진영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께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이해하고 인내하여 준 아내와 아들, 딸, 사위,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당초 지도교수이신 임영애 교수님이 서울 동국대로 진출가셔서 중도 포기하려고도 생각하였으나, 강성호 전 대구미래대학장님, 김시황 경북대 명예교수님 말씀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하운분 7/3회 총무님과 송명화 부총무님, 이재순 예비역 준장님과 윤희복 선생의 후원으로 오늘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책과세계 김영모 대표와 교정을 도와주신 다운문화재연구원 정상수 원장님 및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변태현 교수님, 끝까지 마음을 아끼지 않으신 차정훈 선생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논문에 대한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 논문을 시작으로 한국의 산내암자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영진관광문화협동조합 이사장실에서 李 相 國

## 목 차

|                                    |        |
|------------------------------------|--------|
| I. 머리말 .....                       | p. 1   |
| 1. 연구 목적 .....                     | p. 1   |
| 2. 연구사 검토 .....                    | p. 4   |
| 3. 연구 방법 .....                     | p. 6   |
| II. 경북지역 전통사찰 지정분석 .....           | p. 9   |
| 1. 지방자치단체 별 전통사찰 지정유형 분석 .....     | p. 10  |
| 2. 불교종단 및 문화재 별 전통사찰 지정유형 분석 ..... | p. 14  |
| 3. 창건시기 별 전통사찰 지정유형 분석 .....       | p. 19  |
| III. 팔공산의 역사성과 전통사찰 .....          | p. 27  |
| 1. 팔공산의 명칭 및 특성 .....              | p. 27  |
| 2. 팔공산의 왕건 유적과 길 .....             | p. 33  |
| 3. 팔공산과 함께한 고승 .....               | p. 38  |
| 4. 팔공산 주변 전통사찰 .....               | p. 45  |
| IV. 팔공산 산내암자 전통사찰 적합도 비교 .....     | p. 61  |
| 1. 동화사 산내암자 및 전통사찰 지정여건 검토 .....   | p. 61  |
| 2. 은혜사 산내암자 및 전통사찰 지정여건 검토 .....   | p. 70  |
| V. 전통사찰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          | p. 80  |
| VI. 맺음말 .....                      | p. 86  |
| [참고문헌] .....                       | p. 88  |
| [표 목록] .....                       | p. 91  |
| [그림 목록] .....                      | p. 93  |
| [사진 목록] .....                      | p. 94  |
| [사진] .....                         | p. 96  |
| <부록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p. 116 |

|                                       |        |
|---------------------------------------|--------|
| <부록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p. 125 |
| <부록 3> 전국 전통사찰 현황 .....               | p. 130 |
| 국문초록 .....                            | p. 150 |
| Abstract .....                        | p. 152 |



## I. 머리말

###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경상북도 팔공산(八公山) 자락의 천년 고찰인 은해사(銀海寺) 산내암자의 전통사찰<sup>1)</sup> 가치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는 삼국시대 불교의 유입 이후 불교 문화와 동화되어 형성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교와 관련이 깊다.

우리 민족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의 전통을 간직한 사찰(寺刹)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나라에서는 1987년 <전통사찰보존법>을 제정하고, 2009년 3월 5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을 변경하여 오늘날까지 전국의 972개 사찰을 지정하고 있다.

우리 전통 민족문화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전통사찰 지정제도는 36년의 시간이 흘러 다양한 측면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sup>2)</sup> 전통사찰 지정으로 사찰에서 수행하는 승려의 수행환경 개선과 사찰을 찾는 일반 관람객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측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긍정적인 효과이다. 그러나 모든 법률에는 명과 암이 있듯이 전통사찰 지정제도로 인하여 전통사찰로 지정되지 못한 사찰은 일반인에게 사찰의 가치가 낮게 인식되거나, 전통사찰이 아닌 사찰의 경우 전통사찰 지정을 위한 과도한 경쟁을 펼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의 972개소 전통사찰 대부분은 처음 지정 이후 중간 점검이나 재심사 없이 오늘날까지 전통사찰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사찰은 처음 제도가 시행될 때인 1997년 이전까지 835개소를 지정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sup>3)</sup>, 1998년 이후 오늘날까지는 1년에 5건 미만의 사찰이 지정되어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당시보다 지정

---

1) 전통사찰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을 의미한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2)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목적)

3) 1997년 이전 등록 사찰 수는 835 개소로서 이중 765개는 1987~1988년도에 종전의 불교 재산관리법에 등록된 사찰을 전통사찰보존법 부칙의 경과 규정에 따라 일괄 등록한 것이다.

숫자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국적으로 1000여 개소의 전통사찰이 지정되어 보호 받고 있으니, 어쩌면 오늘날까지 전통사찰이 지정되지 못한 사찰은 역사 성과 보존 가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표 1]. 그러나 전통사찰이 처음 지정될 당시 전국 사찰의 역사성 및 중요도를 공정하게 평가한 게 아닌 지역 안배를 염두에 뒀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전통사찰 지정의 지역 안배로 인하여 많은 고찰이 있는 경상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전통사찰의 지정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측면이 있다. 물론 전국적으로 972개소의 전통사찰 중 경상도권이 344개소의 사찰이 지정되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경상남도, 부산, 울산을 제외한 순수한 경상북도의 전통사찰 지정 건수는 178개소로 전체 비중의 약 18%로 줄어든다. 지금도 경상북도에는 1,800여 사찰이 소재하고 있어 면밀한 역사성의 고증을 통한 전통사찰 추가적인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sup>4)</sup>

[표 1] 조선후기 『가람고(伽藍考)』에서 보이는 사찰과 전통사찰 지정비율

| 행정구역    | 가람고 <sup>5)</sup> | 비율(%) | 전통사찰 지정 <sup>6)</sup> | 비율(%) |
|---------|-------------------|-------|-----------------------|-------|
| 한성부(서울) | -                 | -     | 60                    | 6     |
| 경기도     | 133               | 13    | 114                   | 12    |
| 충청도     | 181               | 18    | 173                   | 18    |
| 경상도     | 315               | 33    | 344                   | 35    |
| 전라도     | 205               | 22    | 221                   | 23    |
| 강원도     | 140               | 14    | 48                    | 5     |
| 제주도     | -                 | -     | 12                    | 1     |
| 계       | 974               | 100   | 972                   | 100   |

우리 민족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문화가 가장 꽃피웠던 신라의 수도를 포함한 많은 사찰이 경상북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지역 안배를 통한 전통사찰 지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경상북도이다. 특히 경상북도의 가장 중요한 불교 자원인 팔공산 일

4) 이상국, 『경상북도 전통사찰』, 동아출판사, 2020, p. 7.

5) 류명환, 「조선후기 사찰 기록 비교를 통한 가람고 편찬의 의의」, 『韓國思想과 文化』 79, 2015, p. 247.

6) 전통사찰 지정현황은 2021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 공시자료를 참조하였다.

원 동화사와 은혜사의 산내암자가 전통사찰의 지정 범위에서 모두 벗어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전통사찰 지정제도의 문제점을 깊게 고민할 수밖에 없게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전통사찰 지정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제도에서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전통사찰 지정기준을 강화하면 전국적으로 기존에 지정된 전통사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경상북도 팔공산 은혜사 산내암자의 전통사찰 가치를 더욱 더 높아진다.

팔공산 산내암자의 전통사찰 가치 규명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전통사찰 법규의 전통사찰 지정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더 세부적인 전통사찰 지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팔공산의 역사성과 산내암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특히 은혜사 산내암자의 전통사찰 가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은혜사 산내암자인 거조암, 운부암, 백흥암, 중암암, 묘봉암, 기기암, 서운암, 백련암 8개 암자의 전통사찰의 지정여건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지정적합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사 검토

전통사찰에 대한 연구 성과는 관심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과가 많지 않은 편이다. 전통사찰 관련 연구는 전통사찰 법규에 대한 논의와 전통사찰 토지와 주변 국립공원 및 환경에 대한 조경학 논의로 나누어진다.

전통사찰의 법규에 관한 연구는 2009년 김상겸·김성준의 「국가의 전통·민족문화 계승의무와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헌법적 연구」가 처음이다.<sup>7)</sup> 이 연구에서는 전통사찰의 지정이 문화유산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보니 불교수행의 도량으로서 승려가 기거하는 거주 장소이면서 국민의 종교 활동의 공간이라는 측면이 간과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전통사찰에 실제로 기거하는 승려와 관람객에게 조금 더 편한 환경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개선은 현행 헌법의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이라는 측면에 부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2019년 이동식의 「전통사찰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에 관한 논문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전통사찰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들에 대해 검토해보고 이 법의 개별 규정 중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sup>8)</sup>

전통사찰의 주변 환경에 대한 연구는 2000년 홍광표·심경구·하재호, 「傳統寺刹의 保存에 對한 問題와 對策」이 처음이다.<sup>9)</sup>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전통사찰의 내·외부로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여 원형 훼손이 이루어짐을 지적하고, 이러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서 문화재보호법과 함께 사찰의 자체적인 불사를 관장하는 기구의 필요성을 필력하고 있다. 2002년 이영경·이병인 「국립공원내 전통사찰의 자원 가치 평가」에서는 전국 국립공원에 있는 설악산 신흥사, 속리산 법주사, 지리산 천은사와 화엄사, 가야산 해인사, 토함산 불국사·석굴암, 내장산 내장사 등의 전통사찰을 찾는 내방객에게 26개 서술 문항으로 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통사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7) 김상겸·김성준, 「국가의 전통·민족문화 계승의무와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헌법적 연구」, 『토지공법연구』 44(2), 2009, pp. 461-481.

8) 이동식, 「전통사찰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5(3), 2019, pp. 22-39.

9) 홍광표·심경구·하재호, 「傳統寺刹의 保存에 對한 問題와 對策」, 『한국조경학회지』 18(34), 2000, pp. 77-85.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우리 문화 원형 보존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관리 방안을 4가지로 제안하고 있다.

2017년의 이영경, 「전통사찰 보존지의 가치 및 평가지표 도출-심층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 쌍체비교를 중심으로-」의 연구에서는 전통사찰 보존지의 가치와 지표를 도출하고 중요도를 평가하여 전통사찰 보존지의 가치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sup>10)</sup>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전통사찰의 이용적 가치가 본질적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으며, 종교인문가치, 경관가치, 환경생태가치, 경제가치, 관광가치 등을 일반 탐방객은 중요한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 성과 이외에도 전통사찰에 있는 불교조각, 회화, 공예,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전통사찰의 지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

10) 이영경, 「전통사찰 보존지의 가치 및 평가지표 도출-심층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 쌍체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5(4), 2017, pp. 14-28.

### 3. 연구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전통사찰 지정 법규를 검토하여 현행 4분류의 가치 규정에서 보다 강화된 10단계의 가치 규정안을 제시하고 점수를 활용한 등급제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언급하였다. 이 강화된 전통사찰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은해사 산내암자의 전통사찰 가치를 밝혀내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II장에서 경북지역 전통사찰 지정분석을 하도록 하겠다. 경북의 전통사찰을 법률적 요건과 부속적 요건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다시 지정유형을 불교종단별, 문화재 보유별, 창건시기 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경북지역 전통사찰의 지정적합도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III장에서는 경상북도 지역의 중요한 불교자원인 팔공산 역사성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팔공산의 명칭과 명칭에 담겨있는 전통적인 가치, 팔공산 일대에서 활동했던 고승, 역사적 인물 왕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으로 팔공산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해 내도록 하겠다. 아울러 팔공산 일원에 분포하고 있는 환성사 외 28개의 전통사찰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V장에서는 팔공산의 중심 사찰인 동화사 비로암, 염불암, 부도암, 내원암, 양진암, 약수암과 은해사의 거조암, 운부암, 백흥암, 중암암, 묘봉암, 기기암, 서운암, 백련암 등의 암자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해 보도록 하겠다 [표 2].

V장에서는 II~IV을 통해 살펴본 전통사찰 지정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정법규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새로운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이러한 강화된 전통사찰 지정방안의 데이터 값을 은해사 산내암자의 대입하여 전통사찰의 지정적합도를 최종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림 1]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 현재법                                                                             | 개선 방안                                                              |
|---------------------------------------------------------------------------------|--------------------------------------------------------------------|
|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고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 50년 이상 존속되었는가?                                                     |
|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 사적기와 「동여비고」 같은 각종 역사서에 기록이 있는가?                                    |
|                                                                                 | 중수될 당시 시대상황을 보여줄 수 있거나 근거자료가 되는가?                                  |
|                                                                                 | 고고학적 유물이 있는가?                                                      |
|                                                                                 | 지정문화재 여부?                                                          |
|                                                                                 | 사찰소유 전통 전각, 불상, 불화를 갖추고 있는가?                                       |
|                                                                                 | 사찰에 불교 유물 중 정확한 명문자료를 보유하고 있는가?                                    |
|                                                                                 | 우리의 불교문화 생성과 변화의 전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가?                                 |
|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 50명 이상 사찰 신도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리, 재정 등 문제가 된 적이 없는가?          |
|                                                                                 | 불교 목적 범위 안에서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익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통해 지역에 기여(문화·관광)하고 있는가? |

[표 2] 연구대상 사찰

| 연번 | 본 사 | 종단  | 사찰명 | 소 재 지       |
|----|-----|-----|-----|-------------|
| 1  | 은혜사 | 조계종 | 거조암 |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
| 2  | 은혜사 | 조계종 | 백홍암 |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
| 3  | 은혜사 | 조계종 | 운부암 |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
| 4  | 은혜사 | 조계종 | 중암암 |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
| 5  | 은혜사 | 조계종 | 묘봉암 |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
| 6  | 은혜사 | 조계종 | 기기암 |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
| 7  | 은혜사 | 조계종 | 서운암 |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
| 8  | 은혜사 | 조계종 | 백련암 |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

## II. 경북지역 전통사찰 지정분석

전통사찰 지정 방법은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으로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 요건에 의하면 전통사찰 지정은 법률적 요건과 부속적 요건, 두 가지를 밝히고 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2항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부속적 요건은 해당 사항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과 관계전문가들의 자문 결과가 반드시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상북도 소속 21개 시·군에는 포항시 13개소, 경주시 16개소, 김천시 8개소, 안동시 17개소, 구미시 8개소, 영주시 9개소, 영천시 13개소, 상주시 14개소, 문경시 7개소, 경산시 12개소, 군위군 7개소, 의성군 9개소, 청송군 4개소, 영덕군 2개소, 청도군 12개소, 고령군 2개소, 성주군 4개소, 칠곡군 6개소, 예천군 9개소, 봉화군 6개소, 울진군 1개소 등 총 178개소의 전통사찰이 있다. 이 가운데 팔공산 자락에는 23개소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되었다.<sup>11)</sup> 지정된 전통사찰을 지방자치단체, 불교종단 및 문화재, 창건시기로 지정유형을 나누어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

11)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현황』 1월말 기준, 2021.

### 1. 지방자치단체 별 전통사찰 지정유형 분석

경상북도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은 100년 이상 존속된 사찰이 대부분이다. 1875년 고종년간에 출판된 『교남지(嶠南誌)』에 따르면, 조선시대 말까지 전국에 1,537개소 사찰이 남아있었다. 그 가운데 경북지역에 있는 사찰은 384개소로 25%에 달하는 비율로 소재하고 있었다. 1875년에서부터 전통사찰로 지정되었던 1988년까지 남아있던 사찰이 시대적 특색이 강하게 남은 것으로 가정한다면,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교남지』에 보이는 경북지역 사찰은 384개소로 2021년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찰은 303개소이다. 『교남지』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찰과 각 지역별로 전통사찰 지정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2].

포항시는 16개소 사찰 가운데 5개소(31%)가 지정되었으며, 경주시는 18개소 가운데 6개소(33%)가 지정되었다. 안동시는 경주시와 마찬가지로 18개소 가운데 6개소(33%)가 지정됐고, 영천시 26개소 가운데 7개소(27%)가 지정됐다. 경산시는 25개소 가운데 7개소(28%), 상주시는 19개소 중 7개소(37%), 구미시는 25개소 가운데 6개소(24%), 김천시는 13개소 가운데 6개소(46%), 문경시 10개소 중 7개소(70%), 영주시 15개소 중 7개소(47%), 군위군 13개소 중 4개소(31%), 의성군 19개소 가운데 9개소(47%), 청송군 7개소 가운데 2개소(29%), 영덕군 11개소 중 2개소(18%), 청도군 10개소 가운데 6개소(60%), 고령군 1개소 중 1개소(100%), 성주군 14개소 중 1개소(7%) 칠곡군 28개소 중 5개소(18%), 예천군 11개소 중 3개소(27%), 봉화군 8개소 중 3개소(38%)가 지정되었다[그림 3].

통계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수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찰과 별개라는 점이다. 23개 지역 가운데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이 없는 울진군과 울릉군, 영양군을 제외하면, 20개 지역에서 무려 12개 지역이 6개 내외(5-7개)로 전통사찰이 지정됐다. 남아있는 사찰이 10개 내외인 문경(7개소), 청송(2개소), 영덕(11개소), 고령(1개소), 예천(11개소), 봉화(8개소) 등 2개 내외(1-3)로 전통사찰이 지정된 곳이 있으나 대부분은 6개 내외로 지정되었다.

전통사찰 지정조건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사세를 유지했는가?’ 이외에 다양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전통사찰 지정에 탈락한 사찰도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영천 은혜사 거조암과 같이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에 부합하는 사찰이 있음에도 전통사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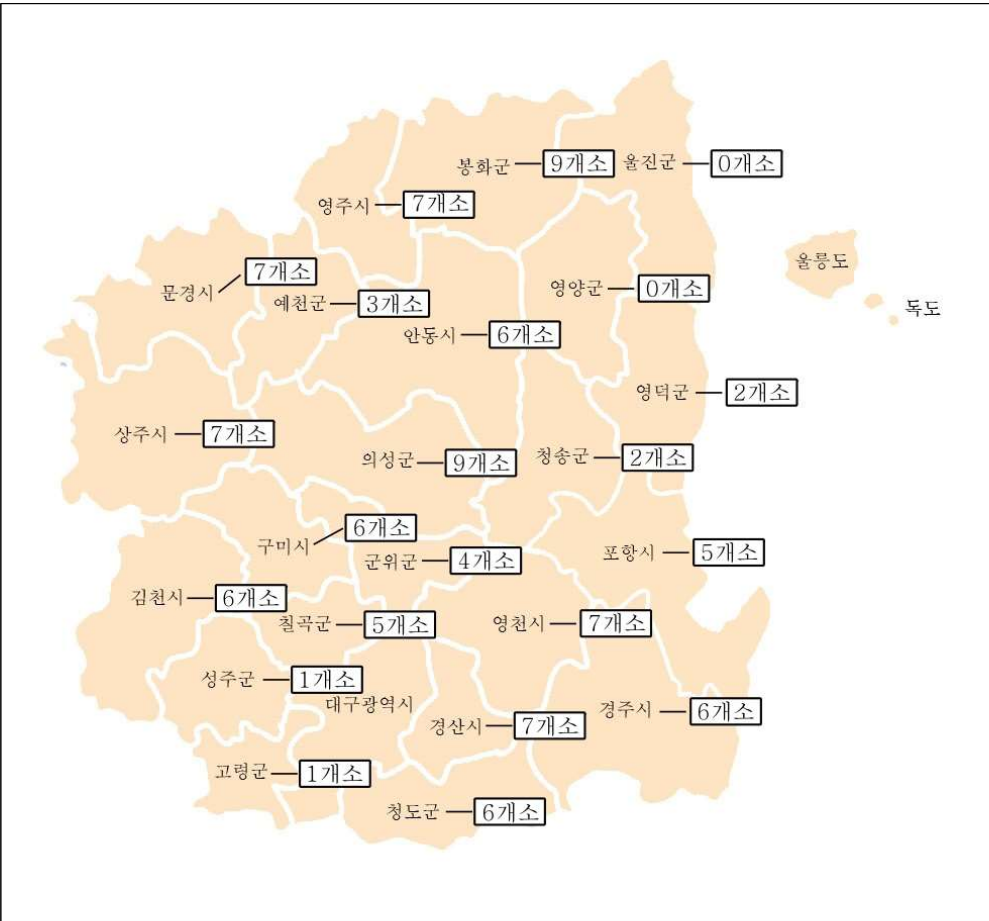
지정되지 못했다면, 현재 전통사찰 지정 방법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현재 전통사찰 지정방안에 대한 문제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불교종단 별 지정사항을 살펴보고 하겠다.

[표 3] 『교남지』에서 보이는 사찰의 존재여부와 경상북도 전통사찰 지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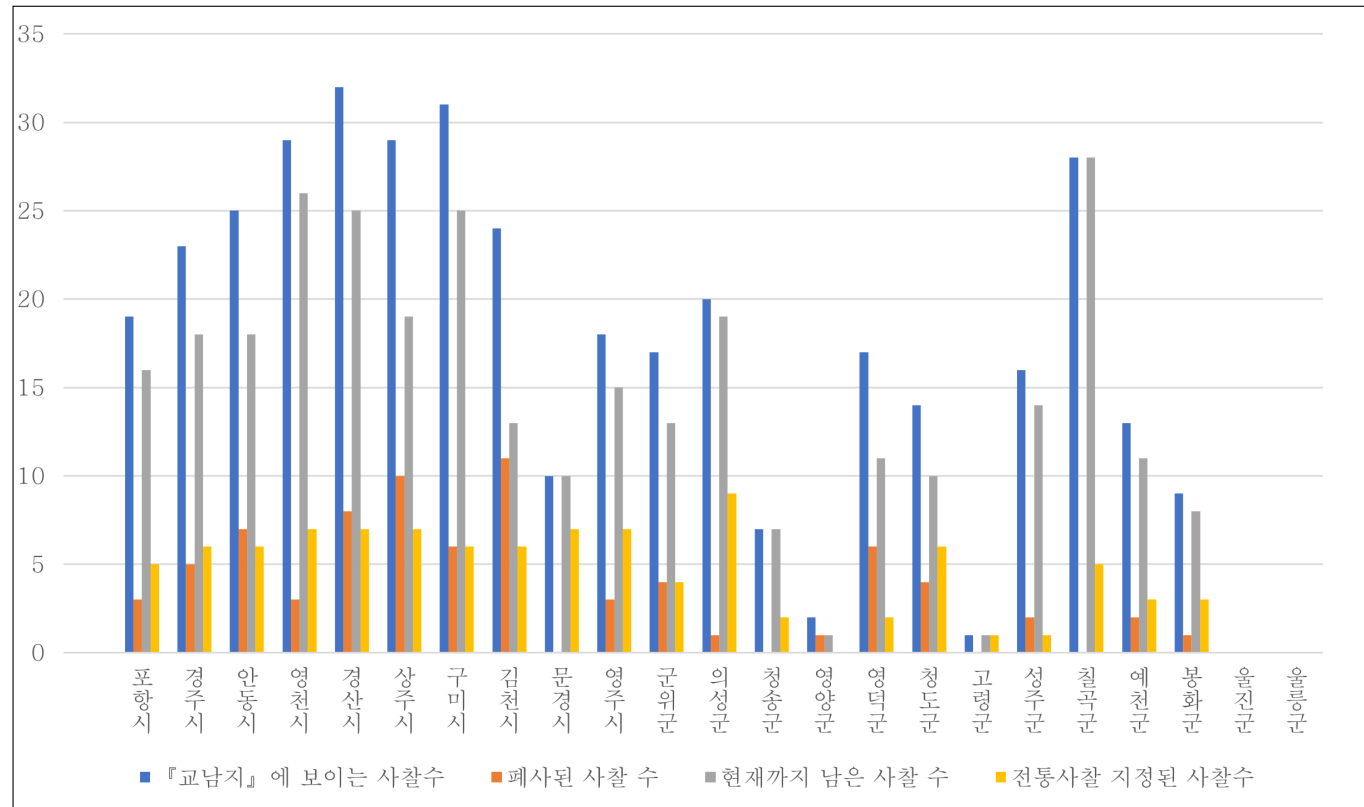
| 연번 | 시군별 | 『교남지』에 보이는 사찰 수 | 폐사된 사찰 수 | 현재까지 남은 사찰 수 | 전통사찰 지정된 사찰 수 |
|----|-----|-----------------|----------|--------------|---------------|
| 1  | 포항시 | 19개소            | 3개소      | 16개소         | 5개소(31%)      |
| 2  | 경주시 | 23개소            | 5개소      | 18개소         | 6개소(33%)      |
| 3  | 안동시 | 25개소            | 7개소      | 18개소         | 6개소(33%)      |
| 4  | 영천시 | 29개소            | 3개소      | 26개소         | 7개소(27%)      |
| 5  | 경산시 | 32개소            | 8개소      | 25개소         | 7개소(28%)      |
| 6  | 상주시 | 29개소            | 10개소     | 19개소         | 7개소(37%)      |
| 7  | 구미시 | 31개소            | 6개소      | 25개소         | 6개소(24%)      |
| 8  | 김천시 | 24개소            | 11개소     | 13개소         | 6개소(46%)      |
| 9  | 문경시 | 10개소            | 0개소      | 10개소         | 7개소(70%)      |
| 10 | 영주시 | 18개소            | 3개소      | 15개소         | 7개소(47%)      |
| 11 | 군위군 | 17개소            | 4개소      | 13개소         | 4개소(31%)      |
| 12 | 의성군 | 20개소            | 1개소      | 19개소         | 9개소(47%)      |
| 13 | 청송군 | 7개소             | 0개소      | 7개소          | 2개소(28%)      |
| 14 | 영양군 | 2개소             | 1개소      | 1개소          | 0개소(0%)       |
| 15 | 영덕군 | 17개소            | 6개소      | 11개소         | 2개소(18%)      |
| 16 | 청도군 | 14개소            | 4개소      | 10개소         | 6개소(60%)      |
| 17 | 고령군 | 1개소             | 0개소      | 1개소          | 1개소(100%)     |
| 18 | 성주군 | 16개소            | 2개소      | 14개소         | 1개소(7%)       |
| 19 | 칠곡군 | 28개소            | 0개소      | 28개소         | 5개소(18%)      |
| 20 | 예천군 | 13개소            | 2개소      | 11개소         | 3개소(27%)      |
| 21 | 봉화군 | 9개소             | 1개소      | 8개소          | 3개소(38%)      |
| 22 | 울진군 | 0개소             | 0개소      | 0개소          | 0개소(0%)       |
| 23 | 울릉군 | 0개소             | 0개소      | 0개소          | 0개소(0%)       |
| 계  |     | 384개소           | 101개소    | 303개소        | 100개소         |



[그림 2] 『교남지』에서 보이는 사찰의 경상북도 전통사찰 지정현황



[그림 3] 『교남지』에서 보이는 사찰의 존재여부와 경상북도 전통사찰 지정현황



## 2. 불교종단 및 문화재 별 전통사찰 지정유형 분석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수의 불교종단이 존재하고 있다.<sup>12)</sup> 특히 경북지역 전통사찰은 대한불교 조계종, 법화종, 태고종을 포함한 9개 종단이 있고 소속이 없는 사찰이 두 곳이 있다[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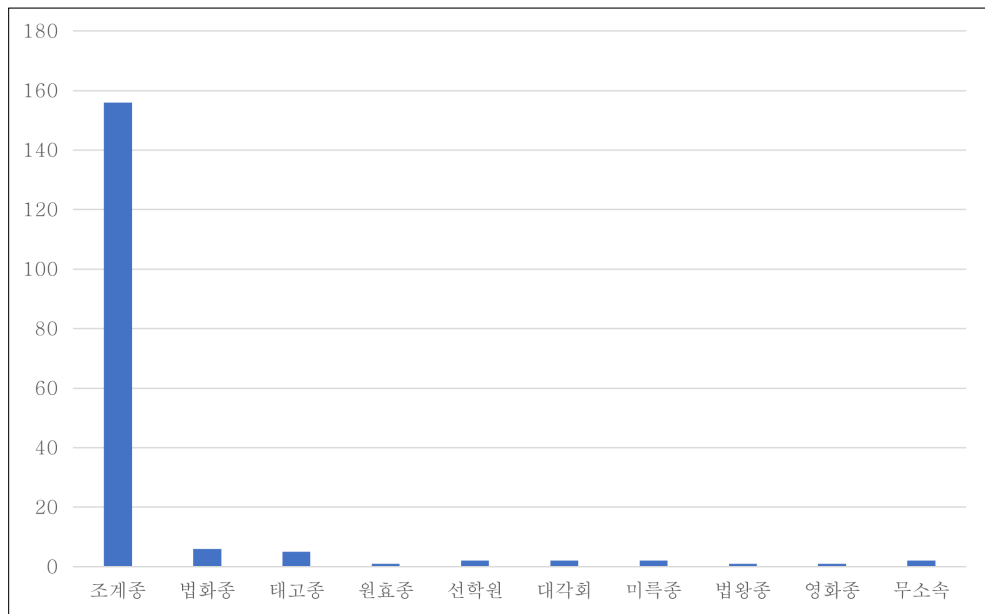
[표 4] 불교종단 별 전통사찰 지정현황

| 연번 | 종단별 | 사찰 수(개소) | 비율(%) |
|----|-----|----------|-------|
| 1  | 조계종 | 156      | 87.6  |
| 2  | 법화종 | 6        | 3.4   |
| 3  | 태고종 | 5        | 2.8   |
| 4  | 원효종 | 1        | 0.6   |
| 5  | 선학원 | 2        | 1.1   |
| 6  | 대각회 | 2        | 1.1   |
| 7  | 미륵종 | 2        | 1.1   |
| 8  | 법왕종 | 1        | 0.6   |
| 9  | 영화종 | 1        | 0.6   |
| 10 | 무소속 | 2        | 1.1   |
| 계  |     | 178      | 100   |

현재 경상북도에서 전통사찰로 지정된 종파의 사찰은 조계종 156개소, 법화종 6개소, 태고종 5개소, 원효종 1개소, 선학원 2개소, 대각회 2개소, 미륵종 2개소, 법왕종 1개소, 영화종 1개소, 무소속 2개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계종 소속 사찰이 전체 178개소 가운데 156개소(약 8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원효종, 법왕종, 영화종은 1개소의 전통사찰을 보유하고 있다[그림 4].

12) 1945년 해방과 더불어 한국불교의 고유성을 되찾는 운동이 전개되어 1962년에 대한불교 조계종이 발족되었다. 또한 대한불교 조계종 이외에도 대한불교 천태종 · 대한불교 진각종 등의 18종의 신흥 종파와 새로운 형태의 신흥 불교인 원불교도 성립되었다.

[그림 4] 불교종단 별 전통사찰 지정현황



경상북도 전통사찰에는 불교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불상, 불화, 공예, 건축 등의 다양한 불교장엄물(佛敎莊嚴物)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장엄물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문화재로 등록된 경우가 있는데 포항시의 전통사찰 중 3개소, 경주시는 12개소, 김천시 6개소, 안동시 11개소, 구미시 6개소, 영주시는 6개소, 영천시 6개소, 상주시 8개소, 문경시 4개소, 경산시 5개소, 군위군 5개소, 의성군 6개소, 청송군 3개소, 영덕군 2개소, 청도군 8개소, 고령군 1개소, 성주군 3개소, 칠곡군 3개소, 예천군 7개소, 봉화군 5개소, 울진군 1개소 등이 있다. 178개소의 전통사찰 가운데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은 111개소로 전체의 62%이다. 경상북도 전통사찰의 지정문화재 현황은 다음 [표 5]와 같다[그림 5, 6].

불교종단 별 지정 현황과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의 현황을 통해 경상북도의 전통사찰 지정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본·말사와 문화재 보유사찰을 우선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선정 기준에 없지만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높은 사찰을 지정하고자 하였으나, 그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창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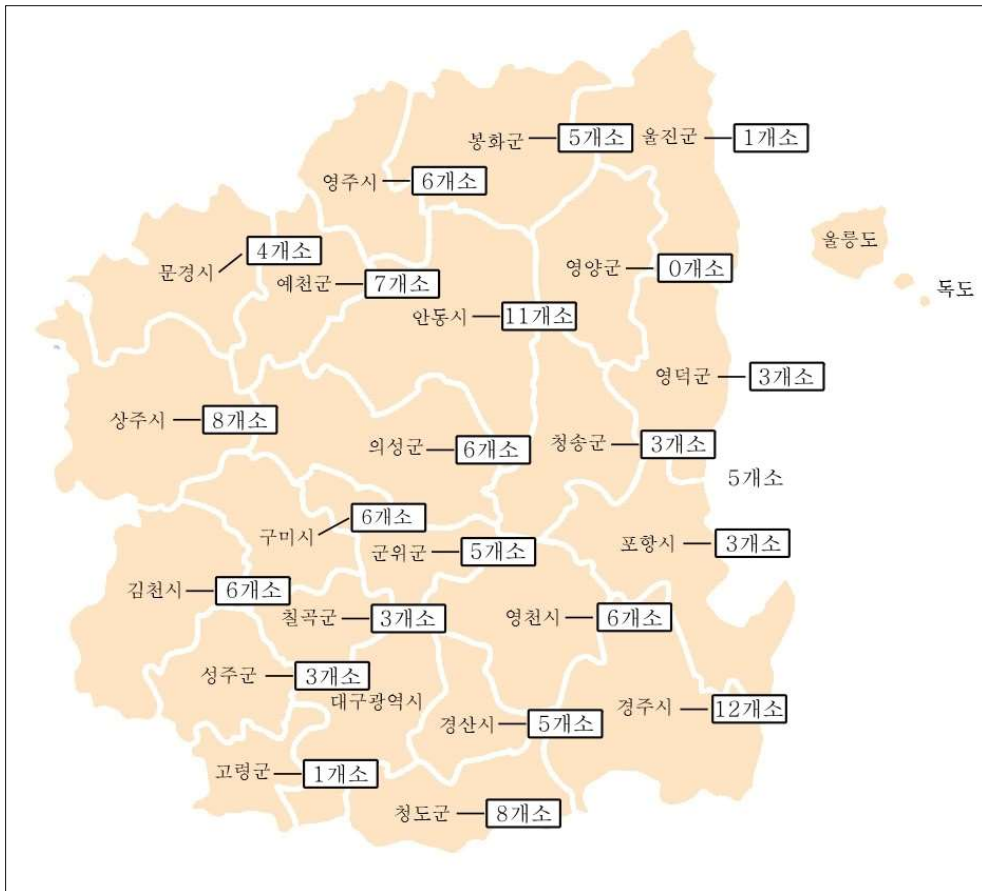
시기 별 전통사찰 지정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5] 문화재 보유 별 전통사찰 지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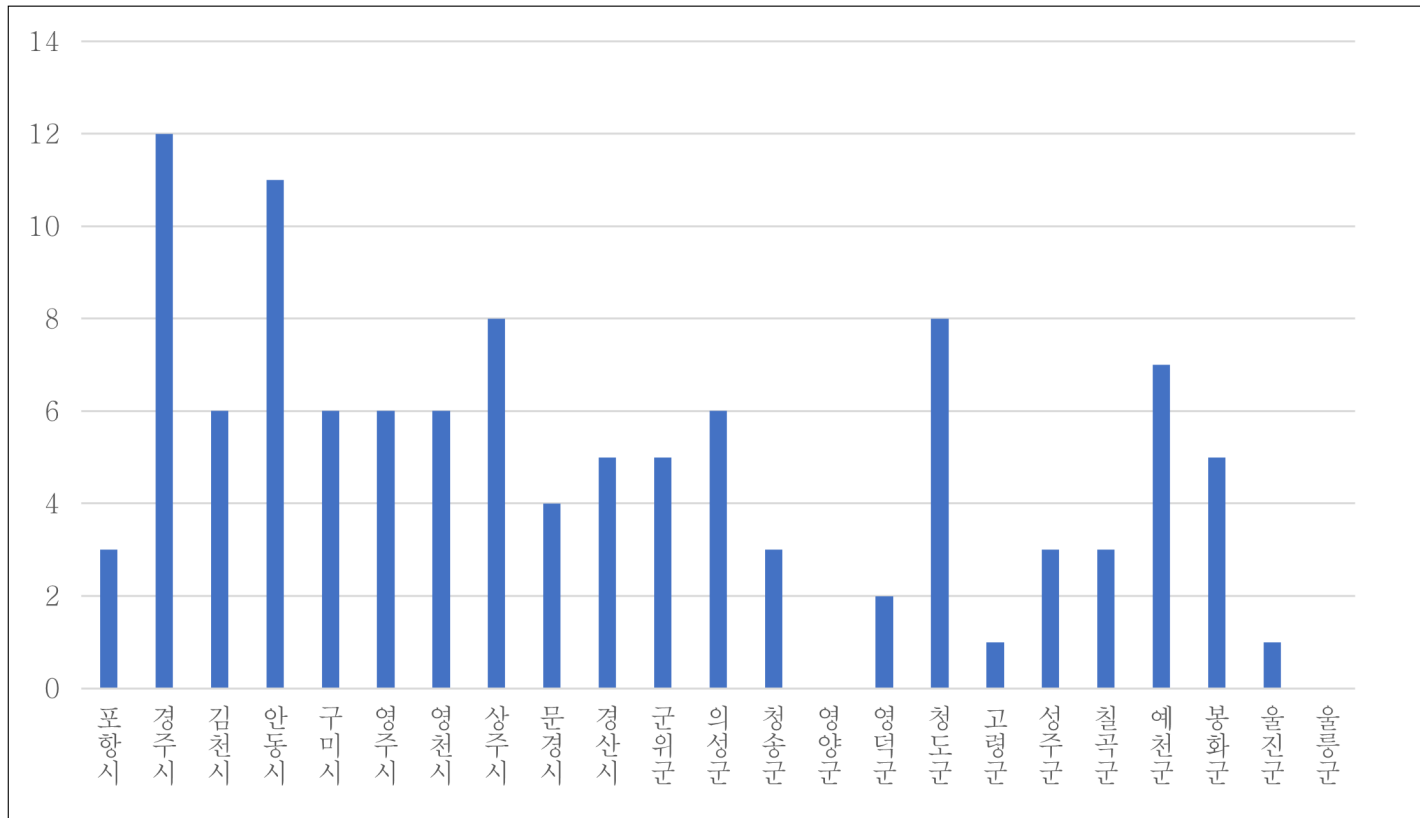
| 연<br>번 | 시군별 | 사찰 수<br>(개소) | 문화재 보유 사찰                                                     |
|--------|-----|--------------|---------------------------------------------------------------|
| 1      | 포항시 | 3            | 보경사, 법광사, 오어사                                                 |
| 2      | 경주시 | 12           | 불국사, 연지암, 기림사, 천룡사, 주사암, 분황사, 보리사, 백률사, 석굴암, 고위산천룡사, 감산사, 골굴사 |
| 3      | 김천시 | 6            | 직지사, 청암사, 봉곡사, 고방사, 용화사, 구화사                                  |
| 4      | 안동시 | 11           | 봉정사, 개일사, 광흥사, 석탑사, 모운사, 용암사, 봉황사, 연미사, 석수암, 옥산사, 용수사         |
| 5      | 구미시 | 6            | 죽장사, 원각사, 수다사, 대둔사, 도리사, 보천사                                  |
| 6      | 영주시 | 6            | 부석사, 성혈사, 축서사, 희방사, 비로사, 초암사                                  |
| 7      | 영천시 | 6            | 신흥사, 거동사, 영지사, 봉림사, 수도사, 은혜사                                  |
| 8      | 상주시 | 8            | 남장사, 갑장사, 용흥사, 동해사, 용화사, 황령사, 북장사, 상락사                        |
| 9      | 문경시 | 4            | 김룡사, 봉암사, 대승사, 혜국사                                            |
| 10     | 경산시 | 5            | 환성사, 선본사, 불굴사, 원효암, 경흥사                                       |
| 11     | 군위군 | 5            | 인각사, 지보사, 법주사, 압곡사, 제2석굴암                                     |
| 12     | 의성군 | 6            | 고운사, 대곡사, 지장사, 옥련사, 정수사, 만장사                                  |
| 13     | 청송군 | 3            | 보광사, 대전사, 수정사                                                 |
| 14     | 영양군 | 0            | -                                                             |
| 15     | 영덕군 | 2            | 장육사, 유금사.                                                     |
| 16     | 청도군 | 8            | 적천사, 대운암, 대적사, 덕사, 용천사, 운문사, 대비사, 불령사                         |
| 17     | 고령군 | 1            | 반룡사                                                           |
| 18     | 성주군 | 3            | 감응사, 선석사, 심원사                                                 |
| 19     | 칠곡군 | 3            | 송림사, 도덕암, 선봉사                                                 |
| 20     | 예천군 | 7            | 용문사, 명봉사, 한천사, 청룡사, 보문사, 동악사, 서악사                             |

|    |     |             |                         |
|----|-----|-------------|-------------------------|
| 21 | 봉화군 | 5           | 각화사, 청량사, 축서사, 천성사, 지림사 |
| 22 | 울진군 | 1           | 불영사                     |
| 23 | 울릉군 | 0           | -                       |
| 계  |     | 111개소 (62%) |                         |

[그림 5] 문화재 보유 별 전통사찰 지정현황



[그림 6] 문화재 보유 별 전통사찰 지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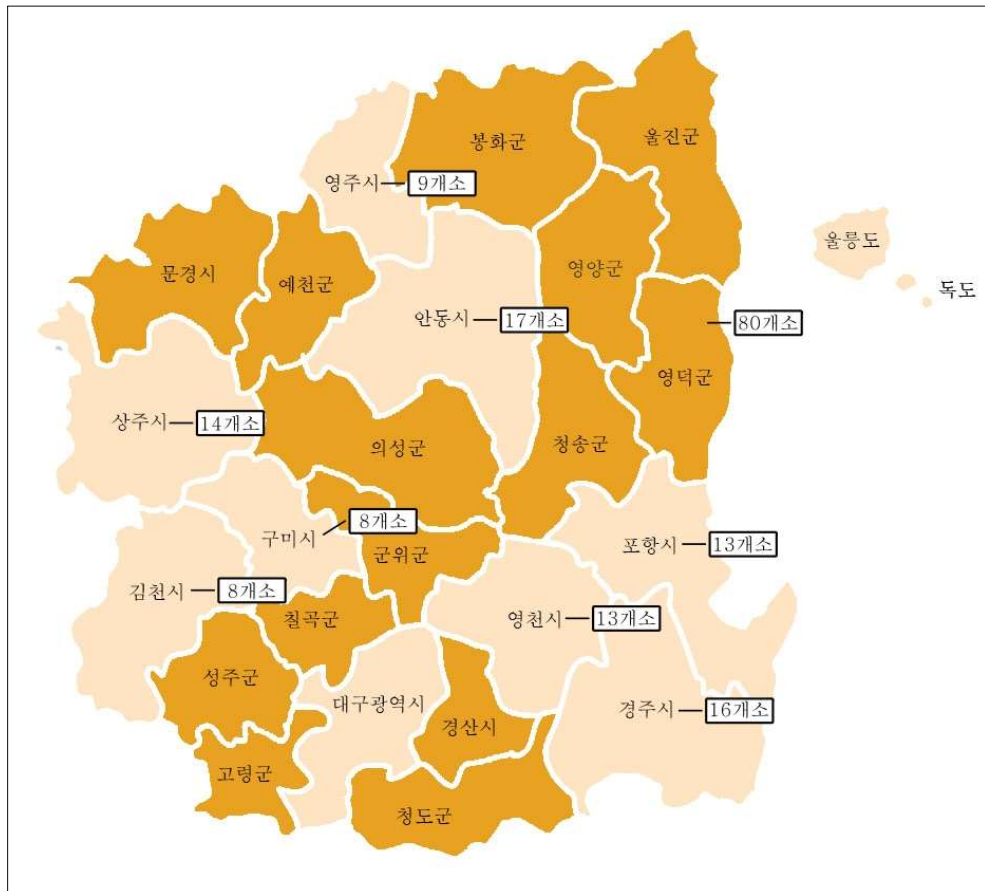
### 3. 창건시기 별 전통사찰 지정유형 분석

우리나라 전통사찰의 창건시기를 대부분 고대로 올리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창건시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거나 창건시기에 맞는 유물을 찾을 수 있는 사찰의 숫자는 많지 않은 편이다. 경상북도 전통사찰의 창건시기를 50년, 70년, 100년으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포항시는 100년 이상의 사찰이 8개소, 70년 이상의 사찰이 5개소이고, 경주시는 100년 이상의 사찰이 14개소, 50년과 70년 이상의 사찰이 각 1개소이다. 김천시는 100년 이상의 사찰이 7개소, 70년 이상의 사찰이 1개소이고, 안동시는 17개소 모두 100년 이상의 사찰이다. 구미시는 100년 이상의 사찰이 5개소, 70년 이상의 사찰이 2개소, 50년 이상의 사찰이 1개소이고, 영주시는 100년 이상의 사찰이 9개소이다. 영천시는 100년 이상의 사찰이 10개소, 70년 이상의 사찰이 2개소, 50년 이상의 사찰이 1개소이고, 상주시는 100년 이상의 사찰이 11개소, 70년 이상의 사찰이 2개소, 50년 이상의 사찰이 1개소이다. 그외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을 포함한 지역에서는 100년 이상의 사찰이 73개소, 70년 이상의 사찰이 6개소, 50년 이상의 사찰이 1개소 등록되어 있다[그림 7].

경상북도 전통사찰의 창건시기를 분석해 보면 지정된 178개 사찰 가운데 154개 사찰이 87%의 비율로 100년 이상 된 사찰이었다. 100년 미만인 사찰도 19개로 11%이고, 창건시기가 50년 넘는 사찰은 5곳으로 2%이다. 전체적으로 100년 이상의 사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최소 50년보다 짧은 사찰을 지정한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경상북도의 전통사찰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 창건시기는 50년으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창건시기를 50년, 70년, 100년으로 나누어 분류했고, 그 내용은 [표 6]과 같다[그림 8].



[그림 7] 창건시기 별 전통사찰 지정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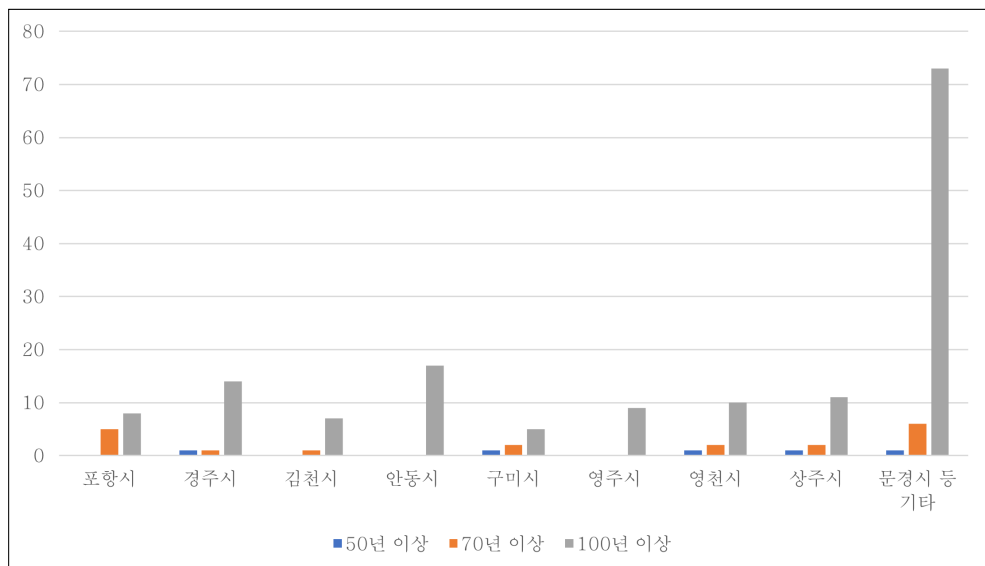


[표 6] 창건시기 별 전통사찰 지정현황

| 번호 | 시군별 | 50년 이상 | 70년 이상 | 100년 이상 | 계  |
|----|-----|--------|--------|---------|----|
| 1  | 포항시 | 0      | 5      | 8       | 13 |
| 2  | 경주시 | 1      | 1      | 14      | 16 |
| 3  | 김천시 | 0      | 1      | 7       | 8  |
| 4  | 안동시 | 0      | 0      | 17      | 17 |

|   |          |       |         |          |     |
|---|----------|-------|---------|----------|-----|
| 5 | 구미시      | 1     | 2       | 5        | 8   |
| 6 | 영주시      | 0     | 0       | 9        | 9   |
| 7 | 영천시      | 1     | 2       | 10       | 13  |
| 8 | 상주시      | 1     | 2       | 11       | 14  |
| 9 | 문경시 등 기타 | 1     | 6       | 73       | 80  |
| 계 |          | 5(2%) | 19(11%) | 154(87%) | 178 |

[그림 8] 창건시기 별 전통사찰 지정 개수



지금까지 분석을 통해 경상북도 전통사찰의 지정여건을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전통사찰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급하게 지정한 것으로 보이며, 경상북도 전통사찰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꼼꼼한 역사적 검증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쪽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교남지』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찰의 숫자는 구미시, 상주시, 영천시, 칠곡군, 안동시 순이지만 현재 전통사찰이 지정된 지자체 순위는 안동시, 경주시, 상주시, 영천시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영주시, 의성군, 예천군, 김천시, 구미시는 8, 9개의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되고, 문경시, 군위군, 칠곡군, 봉화군 등은 6, 7개의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되고 있다. 이처럼 경상북도의 전통사찰 지정은 사찰의 역사와 전통성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지역적 안배가 가미되고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경상북도 소재 전통사찰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2항에 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경상북도 관할 전통사찰 지정적합도

| 항목  | 시대적 특징 |   | 불교미술<br>흐름 |    | 문화의 생성·변화 |     |     |     |     |     |     |    | 기타 문화적<br>가치 |   |
|-----|--------|---|------------|----|-----------|-----|-----|-----|-----|-----|-----|----|--------------|---|
|     | ○      | △ | ○          | △  | ○         | 조계종 | 법화종 | 태고종 | 법왕종 | 미륵종 | 무소속 | △  | ○            | △ |
| 경산시 | 12     | 0 | 0          | 12 | 12        | 11  | 1   | 0   | 0   | 0   | 0   | 12 | 5            | 7 |
| 경주시 | 16     | 0 | 5          | 11 | 16        | 16  | 0   | 0   | 0   | 0   | 0   | 0  | 12           | 4 |
| 고령군 | 2      | 0 | 0          | 2  | 2         | 1   | 0   | 1   | 0   | 0   | 0   | 2  | 2            | 0 |
| 구미시 | 8      | 0 | 1          | 7  | 8         | 8   | 0   | 0   | 0   | 0   | 0   | 7  | 6            | 2 |
| 군위군 | 7      | 0 | 1          | 6  | 7         | 6   | 0   | 1   | 0   | 0   | 0   | 6  | 5            | 2 |
| 김천시 | 8      | 0 | 2          | 6  | 8         | 8   | 0   | 0   | 0   | 0   | 0   | 6  | 6            | 2 |
| 문경시 | 7      | 0 | 3          | 4  | 7         | 7   | 0   | 0   | 0   | 0   | 0   | 4  | 4            | 3 |
| 봉화군 | 6      | 0 | 0          | 6  | 6         | 3   | 0   | 1   | 0   | 0   | 2   | 6  | 5            | 1 |
| 상주시 | 14     | 0 | 1          | 13 | 14        | 12  | 1   | 0   | 0   | 0   | 1   | 13 | 8            | 6 |
| 성주군 | 4      | 0 | 0          | 4  | 4         | 4   | 0   | 0   | 0   | 0   | 0   | 4  | 3            | 1 |
| 안동시 | 17     | 0 | 1          | 16 | 17        | 16  | 0   | 1   | 0   | 0   | 0   | 16 | 11           | 6 |
| 영덕군 | 2      | 0 | 0          | 2  | 2         | 1   | 0   | 1   | 0   | 0   | 0   | 2  | 2            | 0 |
| 영주시 | 9      | 0 | 1          | 8  | 9         | 9   | 0   | 0   | 0   | 0   | 0   | 8  | 6            | 3 |

|     |     |   |    |     |     |     |   |   |   |   |   |    |     |    |
|-----|-----|---|----|-----|-----|-----|---|---|---|---|---|----|-----|----|
| 예천군 | 8   | 0 | 1  | 7   | 8   | 6   | 0 | 1 | 0 | 1 | 0 | 7  | 8   | 0  |
| 울진군 | 1   | 0 | 1  | 0   | 1   | 1   | 0 | 0 | 0 | 0 | 0 | 0  | 1   | 0  |
| 의성군 | 9   | 0 | 1  | 8   | 9   | 9   | 0 | 0 | 0 | 0 | 0 | 8  | 6   | 3  |
| 청도군 | 12  | 0 | 1  | 11  | 12  | 12  | 0 | 0 | 0 | 0 | 0 | 11 | 8   | 4  |
| 청송군 | 4   | 0 | 1  | 3   | 4   | 4   | 0 | 0 | 0 | 0 | 0 | 3  | 3   | 1  |
| 칠곡군 | 6   | 0 | 1  | 5   | 6   | 6   | 0 | 0 | 0 | 0 | 0 | 5  | 3   | 3  |
| 포항시 | 13  | 0 | 2  | 11  | 8   | 10  | 3 | 0 | 0 | 0 | 0 | 5  | 2   | 11 |
| 소계  | 178 | 0 | 23 | 155 | 173 | 162 | 5 | 6 | 1 | 1 | 3 | 5  | 111 | 67 |
| 총계  | 178 |   |    |     |     |     |   |   |   |   |   |    |     |    |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178개소 전통사찰의 지정 유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역사적 전통성을 강조한 사찰이 178개소로 모든 사찰이 역사적 특징을 잘 지닌 것으로 보인다. 건축사 흐름을 중심으로 지정된 사찰은 23개소, 문화생성 및 변화를 기준으로 지정된 사찰은 173개소, 기타 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지정된 사찰은 11개소이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교남지』가 출간된 1875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남아있는 사찰 숫자와 관계없이 평균 5~6개소의 『교남지』 사찰이 획일적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지역마다 사찰 몇 군데가 남아있는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한 지정비율을 보이지 않는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칠곡은 28개소가 남아있는데 5개소만 지정받았지만, 문경은 10개만 남아있는데 7개소나 지정받았다. 비율은 청송은 29%, 문경은 70%에 육박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사찰을 지정할 때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문화재 보유사찰 및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을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 지정기준에 의하면 역사적 의의가 있거나 문화적 가치가 높은 사찰을 지정한다. 하지만 이 문항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문화재 보유사찰 혹은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을 우선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통사찰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객관적인 조항이 필요하며 이러한 추상적인 항목은 변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통사찰 지정 후 재점검 사찰은 없었다. 지난 30년 동안 전통사찰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에 비해 재점검 사찰은 한 곳도 없었다. 제도를 재정비하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찰은 향후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기존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통사찰 지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기준이 부족하여 평가자에 따라서 주관적이거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항목이 포함되어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지정되기 시작한 전통사찰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고, 기존에 지정된 사찰을 재점검하여 원형 훼손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정해제라는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니고 있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팔공산의 역사성을 알아보고 산재한 암자를 분석한 뒤, 새로

운 기준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III. 팔공산의 역사성과 전통사찰

#### 1. 팔공산의 명칭 및 특성

팔공산은<sup>13)</sup> 해발 1,193m로 통일신라시대의 오악(五岳) 가운데 중악(中岳)으로 신성하게 여겼던 영산(靈山)이다. 오악은 토함산(동악), 지리산(남악), 계룡산(서악), 태백산(북악), 그리고 팔공산(중악)으로 오랜 신라의 영토 확장 과정에서 확립한 통일신라의 상징적 존재이다.<sup>14)</sup> 팔공산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공산(公山) 또는 중악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왔고, 조선 중종(1506-1544) 때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처음으로 팔공산이란 이름이 등장한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긴 시간 동안 영산으로 자리잡은 팔공산은 대구광역시를 비롯하여 경북 4개 시·군 등 5개 지자체에 걸쳐있다. 팔공산 이름에 대한 유래는 8개 고을에 걸쳐있어서 그렇게 불렀다는 설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sup>15)</sup>

첫째, 동화사 창건 당시 팔간자 설화와 관련된 설이다. 그러나 동화사 창건시기가 신라시대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당시에 언급되지 않았던 팔공산 지명이 조선시대에 이르러 갑자기 팔간자의 팔(八)자를 차용해 명명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선시대는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설득력은 더욱 떨어진다.

둘째, 고려 태조 왕건과 후백제 견훤 사이에 벌어진 팔공산의 동수전투에서 유래 되었다는 설이다. 왕건이 패하여 도주할 때, 왕건의 부하 여덟 장수가 팔공산에서 순절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태조 왕건과 함께 전투하다 순절한 장수는 기록상 신숭겸과 김락 두 명뿐이다. 따라서 이 설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

13) 고문헌에 보이는 八公山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永川郡읍지』 산천조 ‘八公山 在郡 東三十里 來自新寧 花山’

『義興郡읍지』 산천조 ‘八公山 在縣 南五十里 自花山 來爲漆谷 梁山主脈’

『신증동국여지승람』 卷之 26 大丘都護府 산천조 ‘公山 惑稱 八公山 在解顔縣 北十七里 新羅時稱 父岳 疑中岳爲 中祀 環而居者府 及河陽 新寧 岳溪 仁同 八莒 等 邑也’

『삼국유사』 권4, 義解 條5, 心地繼祖條 ‘釋心地, 辰韓第四十一主憲德大王 金氏之子也, 生而孝悌, 天性冲容, 志學之年 落采從師 拳勳于道, 萬止中岳(今公山)…」 등의 기록이 있다.

14) 이기백, 「新羅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朝閣, 1999, p. 199.

15) 문경현, 「팔공산:팔공산 사적 지표조사보고서」, 대구직할시, 1987, p. 29.



셋째, 중국의 지명을 차용했다는 설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지명 가운데는 중국의 지명을 차용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모화사상이 강했던 조선시대에는 그런 경향이 더욱 강했다. 그래서 383년 전진(前秦)과 동진(東晉)간에 벌어진 비수전투 격전지에 팔공산(八公山)이 있는데, 아마도 이 산에서 차용(借用)한 것이라고 생각된다.<sup>16)</sup>

팔공산 범위는 행정적 범위와 문화적 범위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적 범위는 대구시 팔공산자연공원구역과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팔공산도립공원구역으로 구분된다. 팔공산 총면적은 126,852km<sup>2</sup>(3,844만평)이며, 이 중 경상북도 관할이 91,487km<sup>2</sup>(2,772만평)로 전체면적의 72%를 차지한다.

한편, 문화적 범위는 팔공산이 소속된 대구지역과 경북지역(4개시·군)민들의 관심도(觀心度)를 구분한 것이다. 팔공산 주변 초·중등학교 교가 속에 등장하는 자연지명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 8, 9].

[표 8] 팔공산 주변 학교 수

| 구분   | 시·군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
|------|-----|------|-----|------|-----|
| 대구시  | 동구  | 29   | 11  | 11   | 51  |
|      | 서구  | 17   | 9   | 5    | 31  |
|      | 남구  | 11   | 8   | 13   | 32  |
|      | 북구  | 38   | 21  | 16   | 75  |
|      | 중구  | 10   | 5   | 5    | 20  |
|      | 수성구 | 34   | 23  | 18   | 75  |
|      | 달서구 | 52   | 31  | 24   | 107 |
|      | 달성군 | 26   | 14  | 8    | 48  |
|      | 계   | 217  | 122 | 100  | 439 |
| 경상북도 | 경산시 | 31   | 15  | 11   | 57  |
|      | 영천시 | 21   | 15  | 10   | 46  |
|      | 군위군 | 10   | 6   | 3    | 19  |
|      | 칠곡군 | 22   | 10  | 6    | 38  |

16) 문경현, 앞의 책, 1987, p. 32.

|  |   |    |    |    |     |
|--|---|----|----|----|-----|
|  | 계 | 84 | 46 | 30 | 160 |
|--|---|----|----|----|-----|

[표 9] 교가 속에 등장하는 팔공산 지명 현황

| 구분   | 시·군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
|------|-----|------|-----|------|-----|
| 대구시  | 동구  | 17   | 9   | 9    | 35  |
|      | 서구  | 4    | 5   | 1    | 10  |
|      | 남구  | -    | 1   | 1    | 2   |
|      | 북구  | 19   | 17  | 11   | 47  |
|      | 중구  | 3    | 4   | 2    | 9   |
|      | 수성구 | 6    | -   | 6    | 12  |
|      | 달서구 | 9    | 6   | 4    | 19  |
|      | 달성군 | -    | -   | 1    | 1   |
|      | 계   | 58   | 42  | 35   | 135 |
| 경상북도 | 경산시 | 6    | 1   | -    | 7   |
|      | 영천시 | 5    | 2   | 2    | 9   |
|      | 군위군 | 4    | 2   | 1    | 7   |
|      | 계   | 15   | 5   | 3    | 23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 교가에 팔공산 지명 등장 빈도가 비교적 높은 곳으로는 대구의 경우 동구, 북구, 달서구이다. 물론 서구, 수성구, 중구 등에서도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달성군의 경우 고등학교 한 곳을 제외하고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경북의 경우 경산, 영천, 군위의 경우에는 비교적 팔공산의 등장 빈도가 높은 편이나 칠곡의 경우 교가 속에 팔공산이 등장하는 곳은 한 곳도 보이지 않는다. 대신 구미 금오산이 칠곡군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어 팔공산이 문화적으로는 칠곡군에 뚜렷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삼국시대 팔공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찾기 어려우나 반도의 동남쪽에 치우친 신라로서는 서쪽으로 진출에 있어 필수적인 위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지금의 경산지역은 당시 압독국(押督國)이 있던 곳으로 신라는 이 지역을 확보, 낙동강 지역으로의 진출이 가능했다.

따라서 팔공산은 호국의 보루이며, 신라의 국방상 중요한 지점이었다는 사실이 크게 부각될 수 있었다. 고개를 넘지 않고 평지를 통하여 나가는 길은 경산·대구를 거치는 길이다. 그러기에 가야와의 관계에서 이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은 컸다. 가야가 망하고 신라가 백제와 이 방면에서 국경을 접하게 되면서 백제와의 관계에서도 위와 비슷하였다. 선덕여왕 시대 대야주 등 40여 성이 함락되자 신라는 낙동강 등으로 후퇴하게 되었는데, 그때 신라가 군사적 근거지로 삼은 곳이 압독국 즉, 경산이었다.

이와 같은 근거는 『삼국사기』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up>17)</sup> 신라하대인 839년 김우징이 김양과 함께 장보고 군사의 도움을 받아 경주로 쳐들어올 때, 수도 경주의 중앙군이 대구에서 방어진을 편 달구벌 전투와 927년 후삼국시대 후백제의 견훤군이 경주로 쳐들어왔다가 돌아갈 시에 왕건의 군대와 크게 싸움을 한 동수전투<sup>18)</sup>는 이 지역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다. 또한 689년 신문왕은 통일신라의 수도를 달구벌(대구)로 천도(遷都)하고자 하였으나 귀족들의 반대로 좌절되었다<sup>19)</sup>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달구벌을 포함하고 있는 팔공산지역이 왕권강화책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세력지임을 알 수 있다.<sup>20)</sup>

그러기에 오악에 포함된 중악은 신라의 확장과정에서 중앙을 상징하는 것이며 지리적인 영토의 팽창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삼국사기』 제사지(祭祀志)에 중사(中祀)로 되어있다. 오악이 대사(大祀)인 삼산(三山)이나 소사(小祀)인 제산(諸山)과 함께 신라에서 국가적 제사의 대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연의 산악 그것에 대한 제사이기보다는 산악의 주재자라고 믿고 있던 산신(山神)에 대한 제사였다고 생각된다. 즉 오악신군(五岳神君), 오악신(五岳神) 등은 오악숭배가 곧 이들 산신에 대한 숭배인 것을 의미한다.<sup>21)</sup>

17) 『三國史記』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善德王條, 十二年, 그 뒤에 유신은 압량주 군주로 되었다.

『三國史記』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眞德王條, 백제장군 의직이 서쪽 변경을 침범하여 요거성(腰車成)등 10여성을 함락하였다. 임금이 이를 염려하여 압독주 도독 유신에게 명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18) 『三國史記』 卷第十二 新羅本紀 第十二, 景哀王條 二年.

19) 『三國史記』 卷第八 新羅本紀 第八, 神文王條, ‘…王欲移都達句伐 未果…’.

20) 崔根泳, 『통일신라시대의 지방세력연구』, 신서원, 1990, p. 73.

따라서 김유신이 중악(中岳)에 들어가서 고구려·백제·말갈 등 적국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도록 빌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오악 산신에 대한 제사는 국가의 평안과 발전을 기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오고 있다.<sup>22)</sup> 中岳의 산신에 대해서는 동화사의 창건 관련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심지가 간자를 머리에 이고 산(중악)으로 돌아오니 岳神이 두 선자를 거느리고 마중하여 산 위로 가서 심지를 바위 위에 앉히고 바위 아래 엎디어 삼가 정계를 받았다. 심지가 말하되 「이제 땅을 택하여 신성한 간자를 봉안하려는데 우리가 능히 지정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삼군과 더불어 높은 데 올라 간자를 던져서 점치자」고 하고 신들과 더불어 산꼭대기에 올라가 서로 향하여 던지니 간자가 바람에 날려갔다.

『삼국유사』 권 제4, 의해 제5, 심지계조<sup>23)</sup>

위 사료는 중악(中岳)의 산신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은 나타나지 않으나 중악 산신의 존재를 신라인들이 믿고 있었던 사실만은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왕사(王師)인 심지(心地)가 산신과 합의하여 동화사(棟華寺)를 창건하는 과정을 보여준다.<sup>24)</sup>

실제로 팔공산에는 불교 이외에 다양한 종교가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단연 불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다.<sup>25)</sup> 한국 최초 석굴인 군위삼존석굴(제2석굴암)이 있으며, 조계종 교구 본사가 2개소(동화사, 은혜사)있고, 국내 최대 약사도량인 선본사(갯바위)가 팔공산 동쪽 끝자락 관봉에 위치하고 있다.

팔공산의 불교 신앙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700년 경에 조성된 군위 삼존불을 통해서 아미타 신앙을 읽을 수 있다,<sup>26)</sup> 동화사 입구의 마애미륵불상과 동화사의 창건설화를 참고하여 9세기에는 미륵신앙이 유행하

21) 『三國遺事』 卷5 感通條, 仙桃聖母隨喜佛事 참조

22) 『三國史記』 卷第四十一 列傳 第一 金庾信上, ‘公年十七歲 見高句麗 百濟 靺鞨 -- 獨行入中岳石堀.

23) 『三國遺事』 卷第四 義解 第五, 心地繼祖條

24) 김상현, 「통일신라시대 팔공산의 불교신앙」, 『정토학연구』 20, 2013, pp. 12-13.

25) 전영권, 「팔공산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 검토」, 『2019년 한국지역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9, p. 48.

26) 이동민, 「대구 八公山 마애약사여래좌상 조성시기 검토」, 『중악지』 19, 2009, p. 145.

였다. 또한 약사불 신앙은 이보다 훨씬 뒤인 나말·려초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2. 팔공산의 왕건 유적과 길

역사상 팔공산에서 임금과 임금끼리 사활을 걸고 치루었던 큰 전쟁이 두 번 있었다. 첫째는 839년 제 45대 신무왕(김우징, 재위 839-839)이 장보고의 지원을 받아 제 44대 민애왕(김김명, 재위 838-839)을 옹정하기 위해 완도(청해진)에서 경주로 가던 중, 대구에서 민애왕의 군대와 만나 크게 싸웠던 달구벌 전투이다. 둘째는 일명 동수전투로 불리는 전쟁이다. 동수전투는 927년 후백제 왕 견훤(재위 892-935)과 고려 왕 왕건(재위 918-943) 사이에 벌어진 전투로, 견훤이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침공하여 함락시키고 개신 길에 오르다가 공산 동수(현 동화사)에서 신라를 구하러 내려온 고려 태조 왕건과 목숨을 걸고 치열(熾烈)하게 싸웠던 전투이다.

이 가운데 927년 벌어진 동수전투는 후백제 견훤군에 포위당하여 고려 왕건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신승겸·김락 두 장수가 왕건 복장으로 위장하고 싸우다 지묘동(현 신승겸장군 유적지)에서 장렬히 전사하는 틈을 이용해 고려 왕건이 구사일생 도주한 전투이다.

이러한 역사현장을 보존하고 가꾸고자 대구광역시 동구청은 2010년 ‘국토해양부 누리길 조성사업’ 공모를 진행하여 국비 5억 4천만원을 지원하여 신승겸장군 유적지로부터 초례봉까지 35km, 8개 테마길로 조성했다.<sup>27)</sup>

1코스는 ‘용호상박길’로 신승겸유적지에서 열재까지 4.3km이고, 2코스는 ‘열린하늘길’로 열재에서 부남교까지 4.5km이다. 3코스는 ‘묵연하늘길’로 부남교에서 물넙재까지이며, 4코스는 ‘00문화예술길’로 물넙재에서 백안3거리까지이다. 5코스는 ‘고진감래길’로 백안3거리에서 평광종점까지이며, 6코스는 ‘호연지기길’로 평광동종점에서 매여동 종점까지이다. 7코스는 ‘가팔환초길’로 매여동종점에서 초례봉까지이며, 8코스는 ‘구사일생길’로 초례봉에서 동곡지까지이다. 팔공산 왕건길 8개코스 35km 현황은 [표 10]과 같다.

27) 팔공산 가치는 선행연구 된 바가 있으며, 동화사 이외에 매력물을 고민하던 가운데 이와 같은 기획에 참여하게 되었다. 박기묵, 「도립공원의 특정 여행코스와 그 코스 내 사찰의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 팔공산 동화사 여행코스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3(1), 2009, pp. 208-210.

[표 10] 왕건길 코스 및 내용

| 번호 | 명칭 (구간)          | 위치 및 상징                          | 주변 볼거리                                                                                                         |
|----|------------------|----------------------------------|----------------------------------------------------------------------------------------------------------------|
| 1  | 용호상박길 (4.3km)    | 신승검유적지 - 열재 - 동수<br>전투하던 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승검장군 유적지</li> <li>• 왕건 전망대</li> <li>• 노태우 전대통령 생가</li> </ul>         |
| 2  | 열린하늘길 (4.5km)    | 열재 - 부남교 - 기도하면서<br>걷는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저산 정상 전망</li> <li>• 하늘마루, 하늘다리</li> <li>• 용수동 미나리체험</li> </ul>       |
| 3  | 묵연체험길 (5.4km)    | 부남교 - 물넙재 - 묵언하<br>면서 걷는 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화사(극달화상 창건)</li> <li>• 통시바위, 발바닥바위</li> <li>• 달성서씨 중심재</li> </ul>    |
| 4  | 문화예술길 (3.3km)    | 물넙재 - 백안삼거리 - 문화<br>예술을 맛보는 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짜유기박물관</li> <li>• 복지장사</li> <li>• 시인의 길 (32편)</li> </ul>             |
| 5  | 고진감래길 (5.2km)    | 백안삼거리 - 평광종점 - 고<br>생,기쁨을 느끼는 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동 측백나무숲</li> <li>• 모영재</li> <li>• 효자 정려각</li> </ul>                  |
| 6  | 호연지기길 (5.0km)    | 평광동종점 - 매여동종점 -<br>건강을 챙겨보는 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백당</li> <li>• 요령봉(석굴)</li> <li>• 국내 최고령사과나무<br/>(80년)</li> </ul>     |
| 7  | 가팔환초길<br>(3.3km) | 매여동종점 - 초례봉 - 왕건,<br>승리기원 제사 지낸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북대 학술림</li> <li>• 산림욕장</li> <li>• 초례봉</li> </ul>                     |
| 8  | 구사일생길 (4.0km)    | 초례봉 - 동곡지 - 안심하<br>면서 걷는 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서 혁신도시<br/>(12개 기관)</li> <li>• 안심습지</li> <li>• 반야월 연근단지 등</li> </ul> |
| 계  | 8개 구간 / 35km     |                                  |                                                                                                                |

2012년 개설한 팔공산 왕건길은 역사 현장보존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조성했다. 왕건길 조성할 때, 복지장사 입구 돌공원 채희복 사장의 물심양면 협조가 있었고 필자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무료 대표해설사로 참여하여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동수전투는 팔공산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이며, 이와 관련된 주요인물은 왕건, 신승검, 김락 등이 있다.

왕건(王建, 877-943)의 본관은 개성(開城), 자는 약천(若天), 성(姓)은 왕

씨, 휘(諱)는 건(建)이며, 시호는 신성(神聖)이다. 어머니는 위숙왕후 한씨(韓氏)이며, 29명에 이르는 많은 부인을 두었는데, 이는 혼인관계를 통하여 지방 호족세력을 통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왕건은 877년 신라 전국 9주 가운데 하나인 한주 송악군에서 사찬(沙漚) 융(隆)의 아들로 태어났다. 『고려사』에 따르면 왕건의 아버지 융(隆)이 송악(개성)의 남쪽에다 집을 새로 짓자, 당시 도참사상의 제1인자였던 도선(道詵)대사가 지나가다가 “이곳에서 성인이 나시리라”라고 외쳤다. 이어 융에게 “내년에 반드시 귀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귀띔했다. 도선대사는 왕건이 17세 되는 해 다시 찾아와 “너는 장차 왕(王)이 될 운명이다”라고 알리고 병법(兵法)과 술법(術法)을 가르쳤다고 한다.

895년(진성여왕 9) 아버지를 따라 궁예(弓裔)의 휘하에 들어가 898년(효공왕 2) 정기대감직을 받았다. 903년에는 수군(水軍)을 이끌고 전라도 지방을 공략, 궁예의 영토를 확장하여 알찬(關縑)에 승진되고 계속하여 전라도·경상도 지방에서 견훤의 군사를 격파하는 한편, 정벌한 지방의 구휼(救恤)에도 힘써서 백성의 신망(信望)을 얻었으며, 913년에 시중(侍中)이 되었다.

918년 세력이 강대하여 집에 따라 난폭한 행동을 자행하는 궁예가 민심을 잃자 홍유(洪儒), 배현경(裴玄慶) 등에 의하여 왕으로 추대되어 즉위하였으며, 국호(國號)를 고려(高麗)라 하고 연호를 천수(天授)라 정하였다.

이듬해 수도를 송악(松嶽)으로 옮기고 융화정책(融化政策)·북진정책(北進政策)·숭불정책(崇佛政策)을 건국이념으로 삼아 정책을 펴나갔다. 지방호족(地方豪族)들을 회유·무마하는 한편, 서경(西京)을 개척(開拓)하고 여진(女眞)을 공략(攻略)했으며 불교를 호국신앙으로 삼아 각처에 절을 세웠다.

935년 투항(投降)해온 신라 경순왕(敬順王)을 맞아 평화적으로 합병하고 이듬해에는 앞서 항복해온 견훤과 함께 신검의 후백제를 공격하여 멸망(滅亡)시키고 마침내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이 해 『정계(政誡)』, 『계백료서(誡百僚書)』를 저술(著述)하여 정치의 귀감(龜鑑)으로 삼게 하고, 943년에는 후세의 왕들이 치국(治國)의 귀감으로 삼도록 「훈요십조」를 유훈(遺訓)으로 남겼다. 서예에도 뛰어났으며, 능은 개성에 있는 현릉(顯陵)이다.

왕건이 태어났을 때, 신라는 이른바 하대(下代)에 접어들어 있었다. 통일기 융성(隆盛)했던 활력(活力)과 리더십이 스러지고 중앙은 진골(眞骨) 귀



족들끼리 ‘족당(族黨)’을 맺어 왕위를 놓고 아귀다툼을 벌였으며, 지방은 호족들이 중앙에 바칠 세금을 빼돌리고 자체무장을 하면서 중앙에서 독립해 나가는 추세가 갈수록 심해졌다. 그 중 하나가 왕건 가문(家門)이었다. 태조 왕건은 혼인(婚姻) 관계를 통하여 지방의 호족세력들을 통합하고자 29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그 현황은 [표 11] 같다.

[표 11] 태조 왕건 부인(夫人) 현황

| 번호 | 이름                  | 번호 | 이름                 |
|----|---------------------|----|--------------------|
| 1  | 정주 유천공의 딸 신혜왕후 유씨   | 16 | 광주 왕규의 딸 소광주원부인 왕씨 |
| 2  | 나주 다린군의 딸 장화왕후 오씨   | 17 | 승주 박영규의 딸 동산원부인 박씨 |
| 3  | 충주 유궁달의 딸 신명왕후 유씨   | 18 | 충주 왕유의 딸 예화부인 왕씨   |
| 4  | 황주 황보제공의 딸 신정왕후 황보씨 | 19 | 동주 김행과의 딸 대서원부인 김씨 |
| 5  | 경주 김억림의 딸 신성왕후김씨    | 20 | 동주 김행과의 딸 소서원부인 김씨 |
| 6  | 정주 유덕영의 딸 정덕왕후 유씨   | 21 | 미서전원부인             |
| 7  | 경주 평준의 딸 헌목대부인 평씨   | 22 | 신주 강기주의 딸 신주원부인 강씨 |
| 8  | 영주 왕경의 딸 정목부인 왕씨    | 23 | 영장의 딸 월화원부인        |
| 9  | 평주 유급필의 딸 동양원부인 유씨  | 24 | 순행의 딸 소황주원부인       |
| 10 | 진주 명필의 딸 숙목부인       | 25 | 평주 박지윤의 딸 성무부인 박씨  |
| 11 | 경주 임언의 딸 천안부원부인 임씨  | 26 | 의성부 홍유의 딸 의성부부인 홍씨 |
| 12 | 홍주 홍규의 딸 홍목원부인 홍씨   | 27 | 평주 박수문의 딸 월경원부인    |
| 13 | 합주 이원의 딸 후대량원부인 이씨  | 28 | 평주 박수경의 딸 용량원부인 박씨 |
| 14 | 명주 왕예의 딸 대명주원부인 왕씨  | 29 | 선필의 딸 혜량원부인        |
| 15 | 광주 왕규의 딸 광주원부인 왕씨   |    | -                  |
| 계  | 29명                 |    |                    |

신승겸(申崇謙, ?-927)의 본관은 평산, 초명은 능산(能山)이며, 시호는 장절(壯絶), 평산신씨의 시조(始祖)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전라도 곡성현 출생으로 태조가 평산에서 사성(賜姓)하였다고 하며, 「고려사」에는 광해주(춘천) 출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본래 곡성 출신으로

뒤에 춘천에 옮겨와서 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몸집이 장대하고 무용이 뛰어나 918년 태봉(泰封)의 기장(騎將)으로 배현경(裴玄慶), 홍유(洪儒), 복지겸(卜智謙) 등과 협력, 궁예(弓裔)를 폐하고 왕건(王建)을 추대하여 고려 개국의 일등공신에 봉해졌다.

927년(태조 10) 견훤이 신라를 공격해 경애왕(景哀王)을 죽이고 갓은 만행과 약탈을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태조는 크게 분개하여 사신을 신라에 보내어 조문하는 동시에 친히 기병 5천 명을 거느리고 대구의 공산(公山) 동수에서 견훤군을 맞아 싸우게 되었다. 그러나 후백제군에게 포위(包圍)되어 태조가 위급하게 되었을 때, 김락(金樂) 등과 함께 태조 왕건(王建)을 구출(救出)하고 전사(戰死)하였다.

간신히 위기를 벗어난 태조는 그의 죽음을 매우 슬퍼해 시호를 장절(壯絶)이라 하였으며, 아우 능길(能吉)과 아들 보(甫)를 모두 원윤(元尹)으로 삼고 지묘사(智妙寺)를 창건하여 그들의 복을 빌게 하였다. 944년(성종 13) 4월 태사(太師)로 추증되어 태사 개국 장절공으로 태조의 사당에 배향(配享)되었으며, 1120년(예종 15)에는 신숭겸 장군과 김락 장군을 추도하여 도이장가(悼二將歌)라는 향가를 지었다. 곡성의 양덕사(陽德祠), 대구 광역시의 표충사(表忠祠), 춘천의 도포서원(道浦書院), 평산의 태백산성사(太白山城祠)에 제향되고 있다.

김락(金樂, ?- 927)의 본관은 당악, 시호는 장절(壯絶)이며, 918년(태조 1) 고려가 개국되자 2등 공신에 책록되고, 927년 7월 원보(元甫) 재충(在忠)과 함께 대량성(합천)을 공략(攻略)하여 후백제의 장군 추허조를 사로잡았다. 그해 9월, 공산에서 경주를 함락하고 개신길에 오른 견훤군과 접전,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태조가 포위되자 신숭겸(申崇謙)과 함께 태조를 구하고 전사했다 그 후, 태조는 지묘사(智妙寺)를 세우고 그의 명복을 빌었다. 927년 동수전투 시 태조 왕건은 이러한 장수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은 3가지 길을 선택 도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제1 추정길 : 파군재 >백안삼거리 ->깔닥재 ->초례봉(왕건길)

제2 추정길 : 파군재 >백안삼거리 ->깔닥재-> 옷골(매일신문사)

제3 추정길 : 파군재 ->백안삼거리 ->깔닥재-> 용암산성 -> 미륵사(이상국)

미륵사로 이어지는 길을 추정하는 이유는 매년 6월 6일 진혼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이고, 미륵사에서 진행하는 진혼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팔공산의 역사성과 함께 팔공산이 배출한 고승을 알아보려고 한다.

### 3. 팔공산과 함께한 고승

#### 1) 원효대사

원효대사의 속가 성은 설(薛)씨이다. 팔공산 끝자락인 경산시 진량면 울리(신라시대 는 압량군 불지촌)에서 617년에 태어났다.<sup>28)</sup> 아명(兒名)은 서당(誓幢), 법명은 스스로 원효(元曉)라 지었으며, 아버지는 신라의 벼슬 제 11등급인 내마지위에 있던 담날(談捺)이다. 648년, 32세 때 황룡사에서 머리를 깎았다. 650년, 34세 때 1차 당나라 유학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돌아와 10년간 팔공산 불굴사 석굴과 오도암 석굴에서 수행하였다. 원효가 팔공산과 인연을 맺은 것은 34세 이후이다. 34세 때 당나라로 가다가 붙잡혀 귀환한 뒤, 44세에 다시 유학길을 떠나기 사이의 10년간을 팔공산 불굴사 석굴에서 수행하고 오도암에서 득도했다고 전해온다<sup>29)</sup>. 경산시 하양읍 무학산 가까이 있는 불굴사 석굴은 원효의 고향 경산과 가까운 곳이기도 하다.

661년, 44세가 되었을 때,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다. 당나라로 가던 중 경기도 화성지역(당항성)에서 숙박하게 되었고, 원효는 이때 해골물을 마시다가 ‘일체유심조’ 도를 깨우쳤다.

언젠가는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거리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줄 건가. 하늘 받칠 기둥을 깎으려 하네(誰許沒柯斧 我斫支天柱).”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대부분 사람은 그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직 태종 무열왕이 그 노래를 듣고 ‘이는 귀부인을 얻어 훌륭한 인재를 낳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알아차렸다.

마침 요석궁에 홀로 된 공주가 있었기에 무열왕은 관리로 하여금 원효를 이끌고 요석궁 안으로 인도해 들이게 한 뒤, 그 곳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하였다.<sup>30)</sup>

28) 불지촌은 지금 경산시 진량면 울리 추정, 원효가 태어난 시기 617년은 당나라 건국 바로 전년이다. 범해, 『동사열전』, 광제원, 1991, p. 27.

29) 박종봉·매일신문 특별취재팀, 「신 팔공산하」, 매일신문사, 2017, p. 244.

30) 그리하여 설총(薛聰)이 태어났다. 설총은 나면서부터 자질이 총명하고 슬기로웠다. 경전과 사서에 두루 통달하였으며, 신라 10현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훌륭한 인물이다. 우리 고유의 말(방언 :이두를 뜻함)을 지어 온갖 사물 명칭을 알도록 하는 한편, 유학(儒學)의 기본서인 육경(시경, 서경, 역경, 春秋, 禮記, 樂記)을 쉽게 풀이하여 가르쳤다. 벼슬을 하기도 했는데, 이 때 설총의 벼슬은 신라 한림(翰林)이었다. 고려 현종이 홍유후(弘儒侯)로 추증하고 문묘에 모셔 제사 지내도록 하였다.

원효는 한때 분황사에 머물며 “화엄경소(華嚴經疏)”를 지었는데 제40권 회향품(回向品)에 이르러 끝맺고 절필(絶筆)했다. 또 “금강삼매경소(金剛三昧經疏)”를 저술했는데 그것을 각승(角乘)이라고 불렀다. 소를 타고 두 뿔 사이에 벼루를 걸어 놓고 지었기 때문이다.

원효는 만년에 경주 남산 혈사에서 70세로 입적했다. 그가 입적(入寂)하자 그의 아들 설총은 아버지의 모습을 소상(塑像)으로 만들어 분황사에 봉안하였다. 그때 설총이 소상 곁에서 절을 하자 원효의 소상은 홀연 고개를 돌려 아들을 돌아보았다. 소상은 지금도 여전히 돌아보는 채로 있다. 문경 사불산(四佛山)에 원효·의상 두 암자의 옛터가 있고 부산 동래 금정산에는 원효암과 화엄대가 있다. 해남 두륜산에 원효대·의상대가 있고 광주 무등산에 원효암이 있다. 고려 숙종은 원효에게 화정국사(和靜國師)라는 이름을 내렸다.

팔공산에는 원효대사가 수행한 사찰 제석사, 원효암, 불굴사, 오도암 등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 원효는 법성종의 종조이며, 일심사상과 화엄사상을 강설했고, 수백권의 저술 중 현재까지도 ‘대승기신론’과 ‘금강삼매경’은 불교계의 교과서로 읽히고 있다.

## 2) 의상대사

의상대사(625-702)의 속성은 김씨이며, 아버지는 한신(韓信)이다. 625년(진평왕 47)에 경주에서 출생하였고 644년(선덕여왕 13), 29세 때 황복사에서 출가했다. 650년 1차로 당나라 유학을 시도하여 원효와 함께 요동까지 가다가 붙잡혀 수 열흘간 갇혀있다가 돌아왔다. 당나라 고종 영휘(永徽) 초기 무렵의 일이다. 그 뒤 661년 본국으로 돌아가는 당나라 사신의 배에 실려 2차로 당나라에 들어갔다.

종남산 지상사(至相寺)로 가서 ‘지엄’(智嚴)을 알현하고 제자되기를 청하니 ‘지엄’은 의상에게 입실을 허락하고 함께 『화엄경』의 내용에 대해 문답했다. 『화엄경』의 오묘한 뜻을 논함에 있어서 의상은 깊숙하고 은밀한 부분까지도 철저히 해부, 분석함으로써 화엄학의 대가가 되었다.

의상은 671년(문무왕 11)에 귀국했는데, 삼국유사에는 그 연유에 대해 당나라가 신라를 침공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미리 신라에 알리려고 귀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라로 돌아오니 종남산 지엄 문하의 동문(同門) 현수(賢首)가 “수현소”(搜玄疏)를 지어 그 부분과 함께 편지를 보내왔

다. 그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서경 숭복사(崇福寺)의 승려 법장(法藏, 현수)은 바다 동편 신라의 화엄법사님께 글월을 보냅니다. 한번 작별한 지 어언 30년, 깊이 생각하는 정성이 어찌 마음에서 떠나리까. 더욱이 아득한 구름은(煙雲) 만리이고 바다 육지를 연해있는 길은 천리나 되어 이 몸 다시 얼굴 대하지 못함이 한스럽습니다.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연연한 그리움을 어찌 말로 다하겠습니까?”

귀국 후 의상은 양양 낙산사 관음굴에서 기도하던 중 관음보살을 현신하고 낙산사를 창건했다. 이후 전국에 부석사, 해인사, 불국사, 미리사, 옥천사 등 화엄 10찰을 창건하였는데, 이때 팔공산에서 수행할 시 운부암을 창건했다.<sup>31)</sup> 비슬산에는 옥천사가 화엄사찰이다. 지금도 팔공산 운부암에는 의상대사가 창건 당시 지팡이를 꽂아 살아났다는 보리수나무가 있다.

저서에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 『백화도장발원문(白花道場發願文)』, 『십문간법관(十門看法觀)』, 『입법계품(入法界品)』 등이 있으며, 그의 문하에는 오진, 지통, 표훈, 진정, 도응, 양원, 능인, 의적 등 ‘의상 10철’이라 불리는 고승들이 배출되었다. 이들 가운데 지통은 노비 출신이었으며, 진정도 품을 팔아 연명하던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 의상은 702년(효소왕 11)에 78세의 나이로 입적했다. 고려 숙종 때 ‘해동화엄시조 원교국사(海東華嚴始祖圓敎國師)’라는 시호를 받았다.

### 3) 심지왕사

심지왕사(?-?)는 신라 제41대 헌덕왕의 왕자이다. 15세 때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 팔공산에 들어와 중암암을 창건했다.<sup>32)</sup> 금산사 진표율사의 수제자이며 속리산 법주사 창건주인 영심의 제자가 되었다. 심지왕사는 스승 영심이 진표로부터 전수한 불골간자(佛骨簡子)를 받아와서 동화사를 중건했는데 주존불을 미륵으로 하는 대가람을 세우고 민애대왕의 원당과 탑도 세웠다.

그 후 희강왕, 민애왕, 신무왕, 문성왕, 헌안왕 대를 지나 경문왕 때까지 생존하면서 동화사 주지로 있었다.<sup>33)</sup> 지금 팔공산 주요 사찰 가운데는 심

31) 박종봉·매일신문 특별취재팀, 위의 책, 2017, p. 174.

32) 문경현, 앞의 책, 1983, p. 537.

지왕사 창건사찰이 주를 이룬다. 중암암을 비롯하여 동화사, 파계사, 묘봉암, 환성사, 천성암 등이 심지왕사 창건사찰이다. 심지왕사는 영심대사로 부터 받아온 불골간자를 팔공산 정상에서 산신 입회하에 길지를 향하여 서쪽으로 던졌는데 떨어진 장소가 현재 중암암 서쪽 등성이 넘어 있는 동화사이다.<sup>34)</sup> 심지왕사는 그 곳에 절을 짓고 불골간자를 봉안했는데, 겨울 인데도 오동나무에 꽃이 피어 이름을 동화사로 지었다는 설화가 전해오고 있다.<sup>35)</sup>

#### 4) 보조국사

보조국사(1158-1210)의 속가 성은 정씨이다. 고려 의종 12년(1158)에 태어났다. 호는 목우자이고. 법명은 지눌(知訥)이며 황해도 서흥군 사람이다. 아버지는 당시 국학(國學)의 학정(學正, 정9품) 정광우(鄭光遇)이다. 16세 때 종휘(宗暉) 대선사에게서 머리를 깎고 25세 되던 해(임인년, 1182년)에 승과에 합격했다.<sup>36)</sup>

그로부터 얼마 뒤, 청량사로 가서 주석을 하고, 또 1185년 예천 학가산 보문사에서 3년 동안 수행을 하던 중 팔공산 거조암의 주지 득재스님의 초청으로 거조암으로 와서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을 소집, 정혜결사(定慧結社)를 결성하고 1190년(명종 20)에 그 유명한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決死文)을 천하에 발표하였다.

여기서 그의 독자적인 사상을 정립하고 수년간 주석하다가 신종(神宗)원년에 지리산에 올라가 상무주암에 숨어 살았다. 1200년(신종 2)에 송광산 길상사로 이거하여 11년 동안 강설하니, 전국의 스님과 속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울창한 학문의 숲(총림)을 이루었다. 희종이 즉위하자 특명하여 송광산을 조계산으로 길상사를 수선사로 이름을 바꾸고 하사했다. 지눌스님은 1210년 3월 의자에 앉아 입적했는데, 세수 53세, 법랍 36세이며 호는 불일보조국사(佛日普照國師)이다.

의천이 교(敎)로서 선(禪)을 합일하려한데 반하여, 지눌보조국사는 선(禪)으로서 교(敎)의 합일을 주장하여 구산선문을 조계종(曹溪宗)으로 통

33) 박종봉·매일신문 특별취재팀, 위의 책, 2017, p. 174.

34) 문경현, 앞의 책, 1983, p. 538.

35) 박종봉, 위의 책, 2017, p. 31.

36) 범해, 위의 책, 1991, p. 66.

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눌스님의 행장(行狀)을 새긴 비석과 탑이 순천 송광사와 화순 만연사(萬淵寺)에 있는데, 글은 김군수(金君綏)가 지었다.

##### 5) 사명대사

사명대사(1544-1610)의 법명은 유정(惟政), 호가 사명(四溟) 또는 송운(松雲)이라 불리기도 한다. 1544년(중종 39) 경남 밀양시에서 뒷날 형조판서로 추증되는 임수성(任守城)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풍천 임씨 가문이며, 장악원의 책임자를 지낸 임효곤의 증손자로서 속가의 이름은 응규이다. 7세 때 할아버지로부터 “사략(史略)”을 배우고 13세 때 유촌 황여현으로부터 글을 배웠으며, 15세 때 어머니를 잃고 16세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1561년(명종 16) 18세 되는 해, 승과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30세 전후하여 자신의 출가 사찰인 직지사 주지가 되었다.

1575년, 32세 때 선종의 수사찰인 봉은사의 주지로 천거되었으나 사양하고 묘향산으로 서산(西山)대사를 찾아가 제자가 되었다. 3년여 공부 끝에 서산대사로부터 심요(心要)를 얻고 묘향산을 내려온 그는 35세 때 금강산으로 들어가 보덕사에서 3년을 지낸 뒤 팔공산(八公山), 청량산(淸涼山), 태백산(太白山) 등 명산대천을 유람하며 수행에 힘썼다. 43세 되던 해 봄 어느 날, 사명은 옥천의 상동암에서 간밤에 내린 소낙비로 뜨락에 떨어져 나뉘는 꽃잎을 보는 순간 무상(無常)의 도리를 깨닫는다. 이에 그는 제자들을 돌려보낸 다음 홀로 정진하였다.

46세 되던 해, 오대산 영감난야(靈鑑蘭若)에 주석할 때 정여립(鄭汝立) 역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모함을 입어 강릉부의 옥에 갇혔으나 유사(儒士)들의 탄원으로 석방되었다. 1592년(선조 25) 49세 때, 금강산 유점사에 머물다가 임진왜란을 맞았다. 사명대사는 왜적들에게 붙잡혀 목숨을 잃게 된 대중들을 모두 구호(救護)한 뒤, 고성(高城)의 적진에 들어가 왜장에게 필담을 통해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마라.”고 타일렀다. 이에 왜장 2명은 사명에게 계를 받고 3일 동안 공양을 하였다. 3일 만에 고성(高城)을 나오니 그의 법력(法力)으로 영동 아홉 고을 사람들은 대부분 참화(慘禍)를 면할 수 있었다. 사명대사는 의병을 모집하여 이끌고 순안(順安)의 서산대사 휘하로 갔다. 이때 서산대사는 왕명에 의하여 전국의 승병을 총섭(總攝)하였는데, 사명대사로 하여금 대신 대중을 통솔하게 했다.



50세 때 사명은 명나라 군사와 함께 왜장 고니시 유키나카(小西行長)가 지키고 있는 평양성 탈환 싸움에 참전했고, 그를 달아나게 하여 평양성을 되찾는데 결정적인 전공을 세웠다. 이에 선조는 사명대사에게 선교양종판사(禪敎兩宗判事)직을 제수하였으며, 그의 뛰어난 전공을 치하하기 위해 절충장군(折衝將軍) 호분위상호군(虎賁衛上護軍)의 교지를 내려 당상직에 오르도록 했다. 이어 팔공산 동화사에서 승병을 총지휘토록 했다.

전란 후 1602년(광해군 2) 8월 26일, 해인사 병상에서 몸을 일으켜 대중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설법을 한다.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 이뤄진 이 몸은 이제 진여(眞如)의 세계로 돌아가련다. 무엇 때문에 쓸데없이 오가며 환상의 몸을 괴롭히랴... 나는 적멸(寂滅)의 세계로 들어가 대화(大化)에 순응하리라.”

설법을 마친 뒤 가부좌한 채 태연스레 열반에 드니 세속나이 67세, 법랍 51세였다. 세상 떠나고 3개월 만인 11월 20일, 제자들이 해인사 서쪽 기슭에서 다비하여 사리를 수습하여 부도를 세웠고, 그 앞에 영당(影堂, 오늘의 홍제암)을 건립하였다. 시호는 자통홍제존자(慈通弘濟尊者), 행장은 영남의 표충사비에 갖추어져 있다. 입적 후 8년째인 1618년(광해군 10) 문인들의 호소에 따라 대사의 출생지인 밀양 표충사에 조정의 특별배려로 사당이 세워지고 표충(表忠)이란 편액이 하사되었다.

#### 4. 팔공산 주변 전통사찰

팔공산은 대구광역시 동구를 비롯해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 칠곡군 등 5개 시·군에 걸쳐있다. 총 100여개 사찰 중에서 23개소가 전통사찰로 지정되었다[표 12]. 지정된 23개 사찰은 수도사, 진불암, 부귀사, 은혜사, 신녕포교당, 한광사, 봉림사, 환성사, 선본사, 불국사, 하양포교당, 원효암, 천성암, 제2석굴암, 송림사, 도덕암, 금곡사, 대둔사, 파계사, 동화사, 부인사, 북지장사, 관암사, 관음사 등이 있다. 지정된 전통사찰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 팔공산 주변 사찰 개수 및 전통사찰 지정 개수

| 구분       | 총 사찰수 | 전통사찰지정 | 비고 |
|----------|-------|--------|----|
| 영천시관할    | 29개소  | 7개소    |    |
| 경산시관할    | 32개소  | 6개소    |    |
| 군위군관할    | 17개소  | 1개소    |    |
| 칠곡군관할    | 28개소  | 4개소    |    |
| 대구시 동구관할 | -     | 6개소    |    |
| 계        | 114개소 | 23개소   |    |

##### 1) 수도사

수도사는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312번지 경상북도립공원 구역 내 치산계곡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은혜사 말사이다. 647년(진덕여왕 8)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였다. 1206년 보희국사가 중창하고 1805년 정월 정훈스님이 중수했다. 1899년 산령각을 신축하고, 1979년 주지 우희장 스님과 이용하 신도회장이 여러 신도들의 시주를 모아 해불당, 해회루, 요사채 등을 중수했다. 1985년 삼성각을 신축했다. 원래 절 이름은 금당사였는데, 후에 수도사로 개칭되었다. 경내에서 중심 불전은 관세음보살을 모신 원통전이다.(사진 1) 현존 건물로는 법당 1동, 요사 1동, 기타 3동이 있으며, 문화재로는 보물인 수도사 노사나불 괘불탱이 있다(사진 2).

## 2) 진불암

진불암은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산 308-3번지 팔공산 정상부근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은해사 말사이다. 1988년 7월 21일 가 62호로 전통사찰로 지정되었다. 고려 문종(재위 1046-1083) 때 혼수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1637년(인조15) 이용선(李應善)이 중창하였으며, 1920년 석담(石潭)이 다시 중창하였다. 문화재는 없으며, 당우는 법당 1동과 요사 및 기타전각 2동이 있다.

## 3) 부귀사

부귀사 사찰명은 산부수귀(山富水貴)를 의미한다. 산이 좋고 귀한 물이 있다는 뜻이다. 영천시 신녕면 왕산리 1050번지 팔공산 자락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은해사 말사이며, 591년(진평왕 13) 신라 해림법사가 창건한 1500년 고찰이다. 1988년 7월 21일 가 63호로 전통사찰지정되었다. 고려시대 보조 지눌국사가 주석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 1873년(고종 10) 담운이 중창하였고, 1882년 현 위치에 이전 건립하였고 문화재는 없다. 당우로는 극락전(極樂殿), 보화루, 산신각과 요사채 등 7채가 있으며, 2000년에 아미타도량을 세우기 위해 중창불사를 시작하였다[표 13].

[표 13] 부귀사 현존건물 현황 및 규모

| 연번 | 건물명 | 건축년대  | 규 모 | 처 마 | 지 붕 | 비고 |
|----|-----|-------|-----|-----|-----|----|
| 1  | 극락전 | 1873년 | 3×3 | 겹   | 박 공 |    |
| 2  | 보화루 | 1873년 | 3×2 | 홀   | 박 공 |    |
| 3  | 요사채 | 근년개축  | 5×2 | 홀   | 박 공 |    |
| 4  | 대 문 | 1960년 | 3×1 | 홀   | 박 공 |    |

## 4) 은해사

은해사(銀海寺)는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9번지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이며, 조선 인종대왕의 원찰이다. 1998년 7월 21일 전통사찰가 54호로 지정되었다. 809년(헌덕왕 1) 해철국사가 창건하였으며, 처음에는 해안사라 하였다. 1515년에 소실되었다가 1546년에 지금 자리로 옮겨 지었다. 그리고 인종의 태실을 이곳에 봉하고 이때부터 은해사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1847년 다시 소실되었다가 후에 중수하였다. 이때 극락

보전을 대웅전으로 사용하다가 2011년 다시 극락보전으로 변경하였다(사진 3). 현존 당우로는 극락보전과 설선당, 심검당, 종루, 보화루, 독성각, 승당, 요사채 등이 있다. 부속 암자로는 기기암, 백홍암, 운부암, 거조암, 중암암, 묘봉암 등이 있다. 부속 암자의 지정문화재는 국보 제14호 <영천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과 보물 제486호 <영천 은혜사 백홍암 수미단>, 보물 제514호 <영천 은혜사 운부암 금동보살좌상> 및 보물 제790호 <영천 은혜사 백홍암 극락전> 등이 있다.

##### 5) 신녕포교당

신녕포교당은 영천시 신녕면 완전동 769번지 소재한 대한불교 조계종 은혜사 말사이다. 1988년 7월 21일 전통사찰 가 64호로 지정되었다. 인근에는 은혜사를 비롯하여, 오백나한도량 거조암 및 신녕향교 명륜당이 있다. 주택이 밀집한 도심 속 사찰이며, 경내에는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전이 아담하게 자리한 평온한 모습이다.

‘신녕포교당’과 ‘법륜사(法輪寺)’라는 뜻말이 나란히 적혀있다. 이를 보아 알 수 있듯이 1960년 불교정화운동 이전까지 법륜사가 전신이며, 1914년 박희승 스님이 창건했다고 전하나 확실하지 않다. 1961년 산령각을 짓고 1975년 법당 단청을 칠하고 1980년 삼층석탑을 세웠다.

이 곳은 200여년의 창건역사와 함께 신녕면민의 교육과 불법, 홍포(弘布)를 위한 도심 속 사찰로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인근에 있는 항공부대 포교로서 매달 2회의 군 법회를 전담하며 불교 포교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당우로는 중심법당은 5×2칸 팔작지붕 극락전과 1×1칸 맞배지붕 산령각이 있으며, 이외에 요사채 및 기타건물 3동이 있다.

##### 6) 한광사

한광사는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499번지 화산(火山) 기슭에 소재하고 있는 법왕종의 총 본산 사찰이다. 1988년 7월 21일 전통사찰 나 5호로 지정되었다. 신라 문무왕 당시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오지만 상세 내역은 알 수 없다. 조선말 폐사되었던 것을 1958년 최명도 스님이 중건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산자락 계곡가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찰은 대적광전, 산신각, 칠성각 등의 전각을 비롯하여 사찰에서 운영하는 납골당(명부전)과 법왕사 총무원

건물, 요사채 등이 있다.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팔작지붕집이다. 내부로 불단을 놓고 아미타여래상을 주존불로 하여 관음보살상과 지장보살상이 협시되어 있고 후불탱, 수월관음탱, 신중탱 등의 불화를 봉안하고 있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탑신과 옥개석이 하나의 돌로 조각된 이형적인 통일신라시대 석탑 양식의 보물 제675호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과 10세기인 고려시대 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물 제676호 <영천 화남리 석조여래좌상>이 있다(사진 4, 5).

## 7) 봉림사

봉림사는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2372번지에 소재한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말사이다. 1988년 7월 21일 전통사찰 가 59호로 지정되었다. 1742년(영조 18) 증월 스님이 창건하였으며, 이때 보현산에 있는 법화사를 옮겨왔다고 한다. 법화사는 신라 문무왕시절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1857년(철종 8) 소월 스님이 중창했다. 현존하는 건물은 대웅전과 산신각, 요사채가 있으며, 석가여래를 주존으로 삼존불상과 후불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칠성탱화 등의 탱화가 남아있다[표 14]. 문화재로는 보물 제1612호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 및 복장유물이 있다(사진 6).<sup>37)</sup>

[표 14] 봉림사 현존건물 현황 및 규모

| 건물명 | 건축년대  | 규 모 | 처 마 | 지 붕 | 비고 |
|-----|-------|-----|-----|-----|----|
| 대웅전 | 1742년 | 3×3 | 겹   | 맞 배 |    |
| 요사채 | 1800년 | 6×5 | 홀   | 팔 작 |    |
| 산령각 | 1800년 | 1×1 | 홀   | 맞 배 |    |

## 8) 환성사

환성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은혜사 말사이다. 경산시 하양읍 교리 150번지에 있으며, 835년(흥덕왕 10) 심지왕사가 창건한 사찰로 알려져 있다. 고려말 불탄 것을 이후에 중창하였다. 1635년(인조 13) 신감대사가 중건했고, 1897년(광무 1)에는 공월대사가 중창하였다. 1973년에 대웅전을

37) 문경현, 앞의 책, 1987, p. 633.

해체하여 보수하였고, 1982년에 명부전을 1995년에 요사인 감로당을 지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당우로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명부전, 심검당, 성전암, 수월관, 산령각, 천태각 등이 있다[표 15].<sup>38)</sup> 이 중 대웅전은 보물 제562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조선후기 경상북도 대표하는 불전이다. 약 1.6m 높이의 석단 위에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1974년 수리되었다(사진 7).

[표 15] 환성사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연번 | 건물명 | 건축년대 | 규모  | 처마 | 지붕 | 비고     |
|----|-----|------|-----|----|----|--------|
| 1  | 대웅전 | 조선중기 | 5×4 | 겹  | 팔작 | 보물562호 |
| 2  | 심검당 | 조선중기 | 3×3 | 겹  | 박공 |        |
| 3  | 요사채 | -    | 3×3 | 겹  | 박공 |        |
| 4  | 수월관 | 조선후기 | 5×2 | 홀  | 팔작 |        |
| 5  | 산령각 | 조선후기 | 1×1 | 겹  | 박공 |        |

## 9) 선본사

선본사(禪本寺)는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587번지 팔공산 관봉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직영사찰이다. 1988년 7월 21일, 전통사찰 가 65호로 지정되었다. 491년(소지왕 13) 극달화상이 창건했다고 전해오며 1641년 수청(秀廳)대사가 중창하였다. 그 뒤 1766년(영조 41) 기성(箕城)대사가 중건하였으며, 1820년(순조 20) 운암대사(雲巖大師)도 선본사를 중수하였다. 1877년(고종 14) 낙허(樂虛)와 월인(月印)스님도 중수하였고 1957년에도 중수가 이어진다. 1985년 극락전을 중창하고 산신각, 선방을 지었으며, 1990년에는 칠성각을 개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3×3칸 팔작지붕 극락전을 비롯하여 1×1칸 맞배지붕 산신각, 3×3칸 팔작지붕 안심당, 요사채 외 건물 7동이 있다. 중요문화재로는 보물 제431호인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을 비롯하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15호 <선본암 삼층석탑과 석등대석> 등이 있다(사진 8, 9). 이중 관봉 정상에 있는 ‘갓바위 부처’라고 불리는 <경산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은 원광법사의 제자 의현(義玄)스님이 돌아가신 어머니

38) 문경현, 앞의 책, 1987, p. 642.

를 위하여 638년(선덕여왕 7)에 조성하였다고 한다. 이 불상은 얼굴은 고부조이지만 하체로 내려올수록 저부조로 바뀌고 있다. 편단우견을 하고 있으며 왼쪽 어깨에서 반전되어 가슴방향으로 이어지는 ‘평행계단’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sup>39)</sup> 이 불상에게 한 가지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은 꼭 이루어지며, 영험 있다는 갓바위 부처님에게 예불하기 위하여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 10) 불국사

불굴사(佛窟寺)는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5번지에 소재한 은혜사 말사이다. 전통사찰 지정일은 1988년 7월 21일이며, 지정번호는 가 66호다. 690년(신문왕 10) 옥희대사 창건사찰이며, 그 뒤 자세한 역사는 전하지 않는다. 당우는 법당과 약사전, 염불당, 산신각, 석탑, 염화실, 종무소가 있다 [표 16].<sup>40)</sup> 문화재로는 보물 제429호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을 비롯 약사여래입상, 석등, 부도등이 있다(사진 10).<sup>41)</sup> 사찰 옆에는 석굴이 있는데, 원효대사 수도하던 곳이며, 김유신이 이곳에서 삼국통일을 염원하며 기도하다가 천신(天神)으로부터 깨달음과 지혜를 얻었다고도 한다.<sup>42)</sup> 1723년(경종 3)에 중창했으나, 1736년(영조 12)에 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퇴락되었다가 순천 송광사의 한 노승이 현몽하여 이곳으로 와서 중건하였다고 한다. 그 뒤 1860년(철종 11) 유혜, 쾌옥스님이 중건하여 오늘에 이른다.

[표 16] 불굴사 현존건물 현황 및 규모

| 건물명  | 건축년대  | 규 모 | 처 마 | 지 붕 | 비 고      |
|------|-------|-----|-----|-----|----------|
| 염불당  | 1962년 | 7×2 | 홀   | 박 공 |          |
| 운생원  | 1960년 | 4×1 | 홀   | 우진각 |          |
| 약사보전 | 조선후기  | 3×2 | 겹   | 박 공 |          |
| 산령각  | 1958년 | 1×1 | 홀   | 박 공 |          |
| 삼층석탑 | 통일신라  | 3층  |     |     | 보물 제429호 |

39) 조영주, 「統一新羅時代 八公山地域 石佛像에 대한 研究」, 『계명사학』 12, 2001, p. 19.

40) 문경현, 앞의 책, p. 658.

### 11) 하양포교당

하양포교당은 경산시 하양읍 도리 91-2번지에 소재한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은혜사 말사이다. 1988년 7월 21일 전통사찰 가 69호로 지정되었다. 창건시기나 창건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없다. 다만 조선 초기에 창건된 사찰로서 조선시대 승유억불 정책으로 인해 지역 유생의 객사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면적은 1,401㎡이며, 문화재는 없다. 문화행사로 는 매주 일요일 어린이 불교 학교가 운영되며, 건물은 대웅전 등 8동이 있다.

1927년 지석담(池石潭)스님이 사찰의 재건을 위해 중수하였다는 사실만 전해지고 있다. 지석담스님은 사찰의 중수와 아울러 은혜사에서 부처님을 모셔와 봉안한 것이 지금까지 극락전 본존불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따라서 예전의 기록이 전무한 관계로 하양포교당의 창건주라고하면 중창주인 지석담스님으로 보통 일컬어지고 있다.

이후 알려진 고승은 고봉, 현고, 보원스님 등이 주석했으며, 2001년 주지로 부임한 성본스님이 쇠락한 사찰을 정비하고자 5평 남짓한 극락전을 34평으로 신축하고 또한 칠성각 보수, 설법전 부처님 봉안, 공양간 건립 등 사격을 일신하고 포교에 매진했다.

### 12) 원효암

원효암은 경산시 와촌면 갯바위로 386-73에 있고, 668년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하며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은혜사 말사이다. 1988년 7월 21일 전통사찰 가 72호로 지정되었다. 1986년 화재 이후 현재 보수를 계속 하는 중이다. 40여 년 전에는 비구 대처승 거주사찰이었으나, 현재는 청정 비구 사찰로 변모 일신에 매진하고 있다.

극락전 뒤편에는 통일신라시대 마애불이 모셔져 있어, 원효암이 신라 고찰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현존건물은 법당 1동, 요사채 3동, 기타 전각 3동이 있으며, 문화재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86호 경산 원효암 마애여래좌상이 있다(사진 11). 1980년에 이곳에 대웅전과 산신각을 건립하고 주변을 정비하였다.

41)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한국의 전통사찰』, 2010, p. 470.

42) 文暻鉉, 「元曉의 修道處에 대하여」, 『신라문화재 학술발표논문집』 11(1), 1990, p. 176.



### 13) 천성암

천성암은 경산시 와촌면 대동리 803-1번지 팔공산 동쪽 끝자락 소재한 법화종 사찰이다. 1988년 7월 21일 전통사찰 가 143호로 지정되었다. 신라 흥덕왕 때 창건한 사찰이라고 전하며 이 암자에서 사방 어느 곳을 살펴봐도 바위 암반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현존하는 건물은 법당 1동과 요사채 1동이 있다[표 17].<sup>43)</sup> 또한 천성암 법당 앞 너럭바위에는 갈라진 틈으로 만(卍)자 모양을 하고 있어 이곳이 불연(佛緣)이 깊은 곳임을 암시하고 있다.

[표 17] 천성암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건물명 | 건축년대  | 규모    | 처마 | 지붕 | 비고 |
|-----|-------|-------|----|----|----|
| 관음전 | 1959년 | 3×1.5 | 홀  | 합각 |    |
| 산령각 | 1960년 | 1×1   | 홀  | 박공 |    |
| 기타  | 2010년 | 3×1   | 홀  | 박공 |    |

### 14) 제2석굴암

군위 삼존 석굴암은 제2석굴암으로 불리며, 국보 제109호 <군위 아미타 여래삼존 석굴>을 관리하고 있다. 군위 제2석굴암은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에 소재하는 한국불교태고종 사찰이다(사진 12). 1988년 7월 21일 전통사찰 다 1호로 지정된 바 있다. 이 석굴은 493년(소지왕 15) 신라 극달화상이 창건하였다고 하나 신빙성이 없다. 1927년 11월 20일 최두환이 마을 앞 산 꼭대기 소나무에 밧줄을 메고 절벽을 내려가 수직으로 뻗은 절벽 나무틈에서 처음으로 석굴을 발견했다.<sup>44)</sup> 1961년 임시 법당을 세웠으며, 196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학술조사로 세상에 알려지고 국보 제109호로 지정되었다.

1982년 종각을 신축하고 범종 1천관을 주조해 봉안했다. 1985년에 범등스님이 부임해 와서 10개년 복원 중창불사를 시작해 토지 매입, 가람건립 등의 대작불사를 진행하여 지금에 이른다[표 18].<sup>45)</sup> 석굴 앞 계곡변에는

43) 문경현, 앞의 책, 1987, p. 670.

44)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앞의 책, 2010, p. 544.

45) 문경현, 앞의 책, 1987, p. 692.

청석으로 쌓은 전탑이 있다. 원래 3층 석탑이었으나 도굴로 파괴되어 다시 쌓았다.

탑 옆에는 1971년대 증건한 대웅전이 있고 뒷산에는 산신각이 있다. 문화재는 국보 제109호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58호 <군위 삼존석굴석조 비로자나불좌상>,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41호 <군위 삼존석굴 모전석탑>이 있다(사진13, 14).

[표 18] 제 2석굴암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건물명 | 건축년대  | 규모  | 처마 | 지붕  | 비고 |
|-----|-------|-----|----|-----|----|
| 대웅전 | 1971년 | 5×2 | 겹  | 팔작  |    |
| 종각  | 1984년 | 3×2 | 겹  | 팔작  |    |
| 요사채 | 1971년 | 3×1 | 홀  | 우진각 |    |

#### 15) 송림사

송림사는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91-6번지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9 교구 동화사 말사이다. 1988년 7월 21일 전통사찰 가 87호로 지정되었다. 544년(진흥왕 5)에 진나라에서 귀국한 명관(明觀)스님이 중국에서 가지고 온 불사리(佛舍利)를 봉안하기 위해서 창건한 사찰이다.<sup>46)</sup> 이때 절에서 호국안민(護國安民)을 위한 탑을 세웠다고 한다. 그 뒤 1092년(선종 9) 대각국사 의천(義天)이 중창하였고, 1235년(고종 22) 몽고군에 의하여 폐허가 되었으며, 그 뒤 다시 중창하였다. 1597년(선조 30) 왜군 방화로 소실되었다. 1858년(철종 9) 영추(永樞)스님이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명부전, 요사채 등이 있다[표 19].<sup>47)</sup> 대웅전 전방에는 보물 제189호로 지정된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이 있다(사진 16). 이 탑은 흔하지 않은 삼국시대의 전형적인 벽돌 탑으로서 1959년 탑을 해체 수리할 때 매우 중요한 유품들이 출현 되었다. 이외 문화재로는 <칠곡 송림사 목조 석가여래삼존좌상>, <칠곡 송림사 석조 아미타여래삼존좌상> 등 보물 3점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66호 <북장전적> 및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71호 <송림사 명부전 석조삼장보살좌상>

46) 이상훈, 「칠곡 松林寺의 입지조건과 창건배경」, 『韓國古代史探究』 18, 2014, p. 114.

47) 문경현, 앞의 책, 1987, p. 476.

상>이 있다(사진 16-1, 16-2, 16-3, 17-1, 17-2, 17-3).

[표 19] 송림사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건물명 | 건축년대  | 규모  | 처마 | 지붕 | 비고 |
|-----|-------|-----|----|----|----|
| 대웅전 | 1686년 | 5×3 | 겹  | 박공 |    |
| 명부전 | 1686년 | 5×3 | 홀  | 팔작 |    |
| 산신각 | 1965년 | 1×1 | 홀  | 박공 |    |

#### 16) 도덕암

도덕암은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산 20-5번지에 소재한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동화사 말사이다. 1988년 7월 21일 전통사찰 가 148호로 지정되었다. 신라 눌지왕 때 창건하였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고, 968년(고려 광종 19) 혜거 국사가 중수 했을 때는 칠성암이었다는 사적만 남아있다.

1620년(광해군 12), 1653년(효종 4)에 각각 중수했으며, 1853년(철종 4)에 다시 중수하면서 몽계스님이 도덕암으로 사명을 바꾸었다. 입구 오른쪽 요사채가 있고 정면에 관음전이 있다. 관음전 뒤 가파른 곳에 나한전, 산령각, 자웅전, 요사채가 자리잡고 있다[표 20].<sup>48)</sup> 고려 광종이 여기에 와서 약수를 마시고 지병이 나았다는 일화가 전해 오는 ‘어정수(御井水)’로 유명하다.

도덕암에는 조선 1863년(철종 13)에 그려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87호 <칠곡 도덕암 몽계당 선의대사(善誼大師) 진영>이 보관되어 있고, 조선 후기에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16나한상이 나한전에 봉안되어 있는 것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특히 도덕암은 16나한상의 존재로 인해 칠곡에서는 유명한 기도처로 소문나 있다. 현존 당우로는 법당 3동, 요사채 1동, 기타 1동이 있고, 문화재로는 앞서 언급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87호 <칠곡 도덕암 몽계당 선의대사(善誼大師) 진영>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09호 <칠곡 도덕암 나한전 내 제상>이 있다.

#### 17) 금곡사

금곡사는 칠곡군 가산면 금화리 274번지 소재한 대한불교 조계종 제10

48) 문경현, 앞의 책, 1987, p. 502.

[표 20] 도덕암의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건물명 | 건축년대  | 규모  | 처마 | 지붕 | 비고 |
|-----|-------|-----|----|----|----|
| 관음전 | 1970년 | 6×3 | 겹  | 팔작 |    |
| 나한전 | 1853년 | 3×1 | 겹  | 배  |    |
| 산령각 | 1853년 | 1×1 | 겹  | 맞배 |    |

교구 동화사 말사이다. 1988년 7월 21일 전통사찰가 146호로 지정되었다. 633년(선덕여왕 7) 김란(金蘭)이 창건했다고 전해오며, 1959년 극락전을 신축했다. 현존 당우는 법당 2동과 요사채 3동, 기타전각 2동이 있으며 극락전 안에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31호 <칠곡 금곡사 석조여래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석조여래좌상은 석재 위에 두텁게 금을 바른 아미타불 좌상이다. 높이가 98.2cm이고 무릎 폭이 59cm이다.

일제강점기 때 계곡 상류 쪽에 사금과 중석을 채굴하는 소화광산이 있었는데, 이때 새로 생겨난 마을을 금화라고 하였으며, 이곳에 팔공산 금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였고 금화용수간 임도가 확장 개통되어 이곳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 18) 대둔사

대둔사는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243번지에 소재한 대한불교 조계종 제9 교구 동화사 말사이다. 1988년 7월 21일에 전통사찰 가 147호로 지정되었다. 신라 화랑들의 수행도량으로 알려진 대둔사는 창건 후 사적이 알려지지 않았다가 1840년(현종 6) 대홍수로 사찰 전체가 물에 잠겼다. 1992년 다시 수해로 대웅전이 무너졌으나 1999년 극락전으로 신축했다.

현재 대둔사는 관리하는 문화재가 없으며, 법당(대웅전) 1동, 요사채 1동과 심검당 1동이 있다. 선방인 심검당에서 스님 10여명이 정진하고 있는 비구니 도량이다. 대둔사의 사명이 ‘크게 싹을 틔운다’는 뜻이니 이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때까지 대둔사는 또다시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워낼 것이다.

전남 해남지역을 가보면 유명한 거찰인 대둔산 대둔사를 만나볼 수 있다. 해남의 대둔사가 원래 크다는 뜻의 ‘한’에 ‘둥글다’거나 ‘덩어리’란 의미를 가진 ‘듬’이나 ‘뚝’을 쓴 한듬 혹은 큰 대자를 쓴 ‘대듬사’로 불려왔

다. 칠곡 대둔사 역시 그렇게 불리어지지 않았나 추측하여 볼 수 있다. 그 증거로 이 사찰의 사하촌을 ‘한듬마을’이라 부르고 있다.

#### 19) 파계사

파계사(把溪寺)는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7번지 팔공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동화사 말사이며, 조선 영조의 원찰이다. 1988년 7월 21일에 전통사찰로 지정되었다. 804년 헌덕왕의 아들 심지왕사가 창건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고, 그 후 1605년 중건하였고, 1695년 현웅대가가 다시 중창했다.

파계사에는 조선 숙종과 파계사의 인연에 대한 설화가 지금도 전해온다. 숙종의 부탁으로 현웅대사가 파계사에서 기도하여 영조가 태어났고, 숙종은 크게 기뻐하며 보답으로 파계사 인근 100리내 전답의 조세를 받아쓰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현웅스님은 숙종의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조선 역대 임금님들의 위패를 파계사에서 모시도록 간청하여 허락받았다. 이때부터 파계사는 조선 임금 위패를 봉안하는 사찰로 변모하여 조선말까지 내내 왕실보호를 받았다.

지금도 파계사는 조선 영조의 어의가 보관되고 있으며, 1979년 관음보살상을 개금할 때 복장 유물에서 나온 영조의 어의는 설화의 신빙성을 더해준다(사진 19). 현존하는 건물로는 2층 누각인 진동루, 법당인 원통전, 적묵당 등이 있다.

#### 20) 동화사

동화사는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88년 7월 21일 전통사찰로 지정되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로 사적비명에는 493년(소지마립간 15) 극달화상이 창건하여 유가사라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불교가 공인되기 이전이라 신빙성이 없다.<sup>49)</sup>

동화사라고 사명을 고쳐 부른 것은 832년(흥덕왕 7) 심지왕사가 중건할 때 겨울철인데도 절 주위에 오동나무 꽃이 상서롭게 피어 있었다는 것에서 유래하며 그 후 중창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화사는 팔공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찰로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팔공총림 겸 제9

49) 오세덕, 「八公山 桐華寺의 창건시기와 伽藍의 변화과정 고찰」, 『불교학보』 79, 2017, p. 162.

교구 본사로 되어있으며,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표 21].<sup>50)</sup>

[표 21] 동화사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건물명  | 건축년대  | 규모   | 처마 | 지붕 | 비고     |
|------|-------|------|----|----|--------|
| 대웅전  | 1727년 | 3×3  | 겹  | 팔작 | 보물1563 |
| 극락전  | 1702년 | 5×3  | 겹  | 팔작 |        |
| 수마제단 | 1702년 | 1×2  | 겹  | 맞배 |        |
| 금당선원 | 1976년 | 6×4  | 겹  | 팔작 |        |
| 일주문  | 1969년 | -    | 겹  | 팔작 |        |
| 옹호문  | 1962년 | 3×2  | 겹  | 맞배 |        |
| 봉황루  | 1964년 | 5×3  | 겹  | 팔작 |        |
| 심검당  | 1978년 | 11×7 | 홀  | 팔작 |        |
| 조사당  | 18세기  | 3×2  | 겹  | 팔작 |        |

## 21) 부인사

부인사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35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8년 7월 21일에 전통사찰로 지정되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동화사 말사이다.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되었다고 전하나 6. 25동란 때 소실되어 1959년 중건하였다.<sup>51)</sup> 원래 부인사의 위치는 지금의 자리에서 동남쪽으로 400m 떨어진 산 기슭에 있었다. 부인사는 고려대장경을 보관하던 곳으로 유명하였으나, 몽고침입으로 대부분 소실되었다. 이 당시 부인사는 2천여 스님들이 수도를 했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승시장이 개설된 곳이기도 하다. [표 22].

[표 22] 부인사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건물명 | 건축년대  | 규모  | 처마 | 지붕 | 비고 |
|-----|-------|-----|----|----|----|
| 대웅전 | 1959년 | 3×3 | 겹  | 팔작 |    |
| 응진전 | 1959년 | 1×1 | 겹  | 맞배 |    |
| 칠성각 | 1959년 | 1×1 | 겹  | 맞배 |    |

50) 문경현, 앞의 책, 1987, p. 323.

51) 문경현, 앞의 책, 1987, p. 405.

|     |       |     |   |     |  |
|-----|-------|-----|---|-----|--|
| 주지실 | 1960년 | 4×2 | 홀 | 팔작  |  |
| 요사  | 1960년 | 5×4 | 홀 | 팔작  |  |
| 요사  | 1960년 | 4×2 | 홀 | 우진각 |  |
| 선덕묘 | 1960년 | 1×1 | 겹 | 맞배  |  |

## 22) 북지장사

북지장사는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620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불교사전에는 고려 1192년(명종 22) 보조국사가 창건하였다고 되어있으나, 대웅전 처마 밑에 있는 ‘지장사유공인영세불망비(地藏寺有公人永世不忘碑)’에 지장사가 신라시대 고찰이라 하였고, 또한 경내의 석조물 등으로 미루어보아 지장사 창건은 신라시대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후 중건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1975년과 1982년에 중수한 사실만 알 수 있다..<sup>52)</sup>

높다란 석축 위에 세워진 옹호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보물 제805호 <대구 북지장사 지장전>이 있고, 대웅전의 좌측후면에는 산신각이, 우측후면에는 삼성각이 각각 배치되어있다[표 23]. 또한 옹호문의 우측에는 요사가 3동이 있고, 요사의 우측에는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재 제6호 <북지장사 삼층석탑> 두 기와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5호 <북지장사석조지장보살좌상>이 있다.

[표 23] 북지장사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건물명 | 건축년대  | 규모  | 처마 | 지붕  | 비고       |
|-----|-------|-----|----|-----|----------|
| 옹호문 | 1982년 | 3×1 | 홀  | 맞배  |          |
| 대웅전 | 17세기  | 3×2 | 겹  | 팔작  | 보물 제805호 |
| 삼성각 | 1982년 | 3×2 | 겹  | 맞배  |          |
| 요사  | 1960년 | 5×2 | 홀  | 팔작  |          |
| 요사  | 1960년 | 3×1 | 홀  | 우진각 |          |
| 요사  | 1960년 | 6×1 | 홀  | 우진각 |          |

52) 문경현, 앞의 책, 1987, p. 380.

|      |      |    |  |  |    |
|------|------|----|--|--|----|
| 삼층석탑 | 신라시대 | 3층 |  |  | 2기 |
|------|------|----|--|--|----|

### 23) 관암사

관암사는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산 1번지에 속해있는 태고종이다. 1988년 7월 21일에 지정되었고 신라시대의 옛 절터에 1967년 창건하였으며,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아래에 자리잡고 있어서 관암사라고 불린다[표 24].<sup>53)</sup> 갯바위 주차장에서 갯바위로 가는 길의 중간지점에 있다.

[표 24] 관암사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건물명 | 건축년대  | 규모  | 처마 | 지붕 | 비고 |
|-----|-------|-----|----|----|----|
| 대웅전 | 1967년 | 3×2 | 겹  | 팔작 |    |
| 주지실 | 1967년 | 5×1 | 홀  | 팔작 |    |
| 요사  | 1967년 | 4×2 | 겹  | 팔작 |    |
| 식당채 | 1968년 | 7×2 | 겹  | 팔작 |    |
| 종무소 | 1971년 | 3×1 | 홀  | 팔작 |    |
| 종각  | 1969년 | 2×1 | 겹  | 팔작 |    |
| 산신각 | 1981년 | 2×1 | 겹  | 팔작 |    |

### 24) 관음사

관음사는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67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동화사 말사이다. 신라 문무왕 670년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 이곳은 관음전이 유명한데 이곳에 봉안된 관음보살상이 영험하다고 한다. 관음전의 내부는 사람 서너명이 앉으면 꽉 차는 크기다. 그리고 한 가운데에는 황금빛 나는 관음보살 입상이 있다.

절 입구에 일주문 대신 해탈문이 있고, 경내에는 무설전이 있다. 관음사 옆에는 천연기념물 제1호인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이 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내에서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을 살펴보았다. 지정

53) 문경현, 앞의 책, 1987, p. 415.



된 사찰은 오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주변 환경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 IV. 팔공산 산내암자 전통사찰 적합도 비교

앞 장에서는 팔공산 주변 전통사찰을 살펴보았다. 전통사찰로 지정될 가치가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으나, 은혜사와 동화사 소속 암자는 전통사찰에서 빠져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25].

[표 25] 동화사 및 은혜사 관할 암자 목록

| 구분     | 사 찰 명 |     |     | 계 |
|--------|-------|-----|-----|---|
| 동화사 관할 | 내원암   | 부도암 | 비로암 | 6 |
|        | 약수암   | 양진암 | 염불암 |   |
| 은혜사 관할 | 거조암   | 기기암 | 묘봉암 | 8 |
|        | 백련암   | 백홍암 | 서운암 |   |
|        | 운부암   | 중암암 | -   |   |

이번 장에서는 은혜사와 동화사의 산내암자를 살펴보고 앞서 지정된 사찰과 같은 기준으로 전통사찰 자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동화사 산내암자 및 전통사찰 지정여건 검토

먼저 동화사 산내암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동화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다. 동화사가 관리하는 사찰은 내원암, 부도암, 비로암, 약수암, 양진암, 염불암이 있다.

##### 1) 비로암

비로암은 동화사 옹호문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동화사사적기(桐華寺事蹟記)」에는 ‘비로전’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1591년(선조 25) 서일(瑞一) 화주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현존하는 문화재의 연대를 보았을 때 창건시기는 훨씬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54)</sup>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문화재는 보물 제247호 <대구 동화사 비로

54)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대구·경북의 전통사찰 I』, 사찰문화연구원, 2000, p. 73.

암 삼층석탑>과 보물 제244호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있다. 대적광전에는 심지왕사가 조성한 보물 제244호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봉안되어 있고, 대적광전 앞에는 경문왕 때 조성한 보물 제247호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이 있다[표 26].

[표 26] 비로암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건물명  | 문화재지정   | 건축년대   | 규모(칸) | 지붕 |
|------|---------|--------|-------|----|
| 대적광전 | -       | 18세기 말 | 3×3   | 맞배 |
| 산신각  | -       | 19세기 말 | 2×1   | 맞배 |
| 요사채  | -       | 19세기 말 | 5×2   | 맞배 |
| 삼층석탑 | 보물 제36호 | 9세기 말  | 3층    | 맞배 |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의 사리장엄구는 1966년 도난당했다가 수습된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사리장엄구 가운데 석호에서 명문이 발견되었다. 이 명문을 통해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이 민애왕의 원당에 건립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명문은 없지만, 삼단대좌 위에 불상이 있다는 점, 불상의 도상이 비로자나불이라는 점 등을 통해 신라하대에 제작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아마도 863년(경문왕 3) 무렵에 민애왕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추정한다.<sup>55)</sup>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은 1967년 해체 복원 수리된 바가 있는데, 이 때 비로암 석탑에서 민애왕의 석탑기가 발견되었고 석탑기 전문은 다음과 같다[표 27].<sup>56)</sup>

55) 사찰문화연구원, 앞의 책, 2000, pp. 75-76.

56) 조영주, 「동화사 비로암의 미술사적 고찰」,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3, p. 48.

[표 27] 비로암 석탑기 전문

|    |   |   |   |   |   |   |   |    |   |   |   |   |   |   |   |
|----|---|---|---|---|---|---|---|----|---|---|---|---|---|---|---|
| 1  |   | 國 | 王 | 奉 | 爲 |   |   | 20 |   | 桐 | 藪 | 願 | 堂 | 之 | 前 |
| 2  |   | 敏 | 哀 | 大 | 王 | 追 | 崇 | 21 | 創 | 立 | 石 | 塔 | 冀 | 效 | 童 |
| 3  |   | 福 | 業 | 造 | 石 | 塔 | 記 | 22 | 子 | 聚 | 沙 | 之 | 義 | 伏 | 願 |
| 4  | 若 | 夫 | 聖 | 教 | 所 | 設 | 利 | 23 |   |   | 路 |   | 此 | 功 | 德 |
| 5  | 益 | 多 | 端 | 雖 | 有 | 八 | 萬 | 24 |   |   | 五 | 濁 | 之 | 緣 | 常 |
| 6  | 四 | 千 | 門 | 其 | 中 | 聿 |   | 25 |   |   |   | 之 |   | 爰 | 及 |
| 7  | 業 | 障 | 廣 | 博 | 利 | 物 | 者 | 26 |   |   |   | 中 | 跋 | 行 |   |
| 8  | 無 | 越 | 於 | 崇 | 建 | 佛 | 昌 | 27 |   |   | 識 | 之 | 類 | 咸 | 賴 |
| 9  | 禮 | 懺 | 行 | 道 | 伏 | 以 |   | 28 |   |   | 劫 | 劫 | 生 | 生 | 此 |
| 10 | 敏 | 哀 | 大 | 王 | 諱 | 明 |   | 29 |   | 無 |   |   |   |   |   |
| 11 | 宣 | 康 | 大 | 王 | 之 | 長 | 子 | 30 |   | 時 | 咸 | 通 | 四 | 年 | 歲 |
| 12 | 今 | 上 | 之 | 老 | 舅 | 以 | 開 | 31 | 在 | 癸 | 未 | 無 | 射 | 之 | 月 |
| 13 | 成 | 己 | 未 | 之 | 年 | 太 | 族 | 32 | 十 | 日 | 記 | 翰 | 林 | 沙 | 干 |
| 14 | 之 | 月 | 下 | 旬 | 有 | 三 | 日 | 33 | 伊 | 觀 |   | 專 | 知 | 大 | 德 |
| 15 | 奄 | 奔 | 蒼 | 生 | 春 | 秋 | 二 | 34 | 心 | 智 |   | 同 | 知 | 大 | 德 |
| 16 | 十 | 三 | 葬 |   |   | 霜 | 二 | 35 | 融 | 行 |   | 唯 | 乃 | 僧 | 純 |
| 17 | 紀 |   |   |   |   |   |   | 36 | 梵 |   | 唯 | 乃 | 師 | 心 | 德 |
| 18 | 惠 |   |   |   |   |   | 至 | 37 | 專 | 知 | 大 | 舍 | 昌 | 具 |   |
| 19 | 欲 | 崇 | 蓮 | 抬 | 之 | 業 | 於 | 38 | 典 | 永 | 忠 |   | 匠 | 梵 | 覺 |

「비로암석탑기」는 총 38행으로 되어있다. 1행에서 3행은 기명명제(記銘名題), 4행에서 9행은 건탑공덕(建塔功德), 10행에서 16행은 민애대왕(敏哀大王)의 행적, 16행에서 22행은 석탑건립 경위, 23행에서 29행은 발원문, 30행에서 38행은 기년과 함께 관계된 인물을 서술하고 있다[표 28].

「비로암석탑기」 해석으로 다섯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대

[표 28] 비로암 석탑기 내용

1. 記銘名題 (1행 - 3행)

|   |  |   |   |   |   |   |   |
|---|--|---|---|---|---|---|---|
| 1 |  | 國 | 王 | 奉 | 爲 |   |   |
| 2 |  | 敏 | 哀 | 大 | 王 | 追 | 崇 |
| 3 |  | 福 | 業 | 造 | 石 | 塔 | 記 |

2. 建塔功德 (4행 - 9행)

|   |   |   |   |   |   |   |   |
|---|---|---|---|---|---|---|---|
| 4 | 若 | 夫 | 聖 | 敎 | 所 | 設 | 利 |
| 5 | 益 | 多 | 端 | 雖 | 有 | 八 | 萬 |
| 6 | 四 | 千 | 門 | 其 | 中 | 聿 | 銷 |
| 7 | 業 | 障 | 廣 | 博 | 利 | 物 | 者 |
| 8 | 無 | 越 | 於 | 崇 | 建 | 佛 | 畺 |
| 9 | 禮 | 懺 | 行 | 道 | 伏 | 以 |   |

3. 敏哀大王 行蹟(10행 - 16행)

|    |   |   |   |     |     |   |   |
|----|---|---|---|-----|-----|---|---|
| 10 | 敏 | 哀 | 大 | 王   | 諱   | 明 |   |
| 11 | 宣 | 康 | 大 | 王   | 之   | 長 | 子 |
| 12 | 今 | 上 | 之 | 老   | 舅   | 以 | 開 |
| 13 | 成 | 己 | 未 | 之   | 年   | 太 | 族 |
| 14 | 之 | 月 | 下 | 旬   | 有   | 三 | 日 |
| 15 | 奄 | 奔 | 蒼 | 生   | 春   | 秋 | 二 |
| 16 | 十 | 三 | 葬 | (後) | (星) | 霜 | 二 |

4. 石塔建立 經緯 (16행 - 22행)

|    |   |   |   |     |     |   |   |
|----|---|---|---|-----|-----|---|---|
| 16 | 十 | 三 | 葬 | (後) | (星) | 霜 | 二 |
| 17 | 紀 |   |   |     |     |   |   |
| 18 | 惠 |   |   |     |     |   | 至 |
| 19 | 欲 | 崇 | 蓮 | 抬   | 之   | 業 | 於 |
| 20 |   | 桐 | 藪 | 願   | 堂   | 之 | 前 |
| 21 | 創 | 立 | 石 | 塔   | 冀   | 效 | 童 |
| 22 | 子 | 聚 | 沙 | 之   | 義   | 伏 | 願 |

5. 發願文 (23행 - 29행)

|    |  |   |   |   |   |   |   |
|----|--|---|---|---|---|---|---|
|    |  |   |   |   |   | 伏 | 願 |
| 23 |  |   | 路 | 承 | 此 | 功 | 德 |
| 24 |  |   | 五 |   | 之 | 緣 | 常 |
| 25 |  |   |   | 之 |   | 爰 | 及 |
| 26 |  |   |   | 中 | 跋 | 行 |   |
| 27 |  |   | 識 | 之 | 類 | 咸 | 賴 |
| 28 |  |   | 劫 | 劫 | 生 | 生 | 此 |
| 29 |  | 無 | 朽 |   |   |   |   |

6. 紀年과 關係人名 (30행 - 38행)

|    |   |   |   |   |   |   |   |
|----|---|---|---|---|---|---|---|
| 30 |   | 時 | 咸 | 通 | 四 | 年 | 歲 |
| 31 | 在 | 癸 | 未 | 無 | 射 | 之 | 月 |
| 32 | 十 | 日 | 記 | 翰 | 林 | 沙 | 干 |
| 33 | 伊 | 觀 |   | 專 | 知 | 大 | 德 |
| 34 | 心 | 智 |   | 同 | 知 | 大 | 德 |
| 35 | 融 | 行 |   | 唯 | 乃 | 僧 | 純 |
| 36 | 梵 |   | 唯 | 乃 | 師 | 心 | 德 |
| 37 | 專 | 知 | 大 | 舍 | 昌 | 具 |   |
| 38 | 典 | 永 | 忠 |   | 匠 | 梵 | 覺 |

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이 863년에 건립되었다. 두 번째는 민애왕은 선강대왕(추봉) 충공의 장남이다. 세 번째, 민애왕은 달구벌 전투에서 패하여 23세에 사망했다. 네 번째, 동화사의 옛 이름은 동수(桐藪)이다. 다섯 번째, 경문왕은 왕실화합차 재종조부이다. 또한 비로암에 3층 석탑을 건립한 이유는 진외조부 및 처외조부인 민애왕의 극락왕생과 추승복업을 위한 불사였다.

비로암 석탑기 명문 가운데 ‘금상지노구(今上之老舅)’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황수영은 ‘上位者에 대한 尊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이상국은 경문왕의 ‘재종조부(再從祖父)’, ‘진외조부(陳外祖父)’ 및 ‘처외조부(妻外祖父)’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본다.<sup>57)</sup>

57) 황수영, 「민애대왕 석탑기」, 『사학지』 3, 1969, pp. 59-57.

## 2) 염불암

염불암은 동화사에서 서북쪽으로 약 2.8km 떨어진 곳으로 팔공산 남쪽 기슭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다. 『동화사사적기』에 따르면 928년(경순왕 2) 영조선사(靈照禪師)가 창건하고 1612년(광해군 4)에 중건했다고 전하나, 『조선사찰사료』에는 1612년이 창건시기로 기록되어 있다. 928년 창건설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으나, 1220년(고종 8) 원진국사(圓眞國師)가 이곳에서 주석하면서 고덕 대승을 향응하고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록으로 보아 적어도 고려 때는 존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1699년(숙종 25), 1803년(순조 3), 1841년(헌종 7)에 각각 중수하였다. 근대에 와서는 1936년에 운경(雲耕)스님이 중건하였고, 1962년 혜운(慧雲)스님이 중수하여 오늘에 이른다.<sup>58)</sup>

현존 당우로는 극락전과 동당, 서당, 산령각이 있으며, 극락전에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봉안하고 있고, 후불탱화는 1841년 중수 때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중요문화재로는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4호 <동화사 염불암 마애여래좌상 및 보살좌상>이 있으며,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9호 <동화사 염불암 청석탑>도 있다. 염불암이라는 이름은 이 불상이 새겨진 바위에서 염불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청석탑은 극락전 앞마당에 있는데, 보조국사가 쌓았다고 전해지며, 아랫부분 3단이 화강암으로 되어있고, 높이 1.4m의 탑이다.

## 3) 부도암

부도암은 『조선사찰사료』와 『동화사사적비』에 1658년(효종 9)에 도오(道悟) 화주가 창건하고, 1790년(정조 14)에 춘성(春城) 화주가 중수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1841년(헌종 7)에 작성된 『양간록(樑間錄)』에는 당시 72명의 스님이 거주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규모가 꽤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대처승이 거주했으나, 1955년 불교정화운동 이후 비구니 참선도량으로 바뀌었다.<sup>59)</sup> 1960년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표 29].<sup>60)</sup>

58) 사찰문화연구원, 앞의 책, 2000, pp. 82-83.

59) 문경현, 앞의 책, 1987, p. 350.

60) 문경현, 앞의 책, 1987, p. 350.

[표 29] 부도암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건물명 | 문화재지정 | 건축년대 | 규모(칸) | 지붕 |
|-----|-------|------|-------|----|
| 인법당 | -     | 1960 | 8×3.5 | 팔작 |
| 관음전 | -     | 1960 | 3×2   | 팔작 |
| 요사채 | -     | 1960 | 6×3.5 | 팔작 |
| 요사채 | -     | 1960 | 6×2   | 팔작 |

#### 4) 내원암

내원암은 동화사에서 북쪽으로 약 2km 지점에 있으며, 동쪽과 서쪽이 산기슭으로 에워싸인 지형에 자리한다. 『조선사찰사료』와 동화사 사적비에 의하면, 1626년(인조 4)에 유찬(惟贊)스님이 내원암을 창건하고, 100년 뒤 1727년 무월(霧月)이 중건했고, 1937년 보월대사(寶月大師)가 중창한 것으로 전한다.<sup>61)</sup> 1963년에 비구니 장일(長一)스님이 이곳에 와서 도명(圖明)스님과 더불어 가람을 중창하고 비구니 선원을 열었으며, 1966년 중창 후, 관음전, 인법당, 무주헌(無住軒)을 세웠다[표 30].<sup>62)</sup>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95호로 지정된 <대구 동화사 내원암 칠성도>는 19세기 성행했던 칠성 및 염불신앙 연구에 중요한 작품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

[표 30] 내원암 건축년대 및 규모

| 건물명 | 문화재지정 | 건축년대 | 규모(칸) | 지붕 |
|-----|-------|------|-------|----|
| 관음전 | -     | 1966 | 3×3   | 팔작 |
| 인법당 | -     | 1827 | 7×4   | 팔작 |
| 무주헌 | -     | 1966 | 5×4   | 팔작 |
| 요사  | -     | 1966 | 3×2   | 홀  |

61) 이희정, 「동화사 내원암 목조보살좌상 연구」, 『선문화연구』 28, 2020, p. 339.

62) 사단법인 정보문화재연구원, 『동화사 본·말사 불화조사 보고서』, 2001, p. 12.



##### 5) 양진암

양진암 또한 내원암처럼 「동화사사적비」에 사찰 연혁이 전해진다. 기록에 의하면 1743년(영조 19) 무주대사(無住大師)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1898년(광무 2)에 춘파화상(春坡和尚)이 중수했으며, 1952년 전쟁이후에 비구니 성연(性蓮)스님이 속리산 수창암(水唱庵)에서 양진암으로 와서 선원을 열었다. 1998년 관음전을 짓고 42관음보살상을 봉안하였고, 2000년 2월 사미니 기초선원을 개원하여 오늘에 이른다. 당우는 인법당 등 당우 3동이 있고, 동화사에서 서북쪽 800m지점 있다[표 31].<sup>63)</sup>

[표 31] 양진암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건물명 | 문화재지정 | 건축년대 | 규모(칸) | 지붕  |
|-----|-------|------|-------|-----|
| 인법당 | -     | 1980 | 6×4   | 팔작  |
| 미소실 | -     | 1980 | 4×2   | 팔작  |
| 정묵당 | -     | 1980 | 3×2   | 팔작  |
| 법실전 | -     | 1980 | 3×2   | 맞배  |
| 객실  | -     | 1980 | 4×1   | 우진각 |

##### 6) 약수암

약수암은 동화사 입구의 해탈교에서 오른쪽으로 약 7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928년(경순왕 2)에 영조선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약수암은 원래 약사전이 있던 곳으로, 재정비하여 1970년에 건립했다.<sup>64)</sup> 지금은 약수암이란 편액을 달았다. 동화사 템플스테이관 옆 수숫골과 폭포골 사이에는 구세약수(救世藥水)가 있는데, 약사암의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했다.

이상 동화사 관할 6개소 산내암자를 살펴보았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2항에 명시된 조건을 대입해 보았다. 그 결과 동화사 관할 6개소 산내암자 가운데 비로암, 염불암 등 2개소 암자가 전통사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2].

63) 사단법인 정보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2001, p. 12.

64) 사찰문화연구원, 앞의 책, 2000, p. 77.

[표 32] 동화사 산내암자 지정여건 검토 결과

| 번호 | 사찰명 |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의한 지정여건 |         |           |           | 지정여부 |
|----|-----|---------------------------------------|---------|-----------|-----------|------|
|    |     | 시대적 특징                                | 불교미술 흐름 | 문화의 생성·변화 | 기타 문화적 가치 |      |
| 1  | 내원암 | ○                                     | ○       | △         | △         | △    |
| 2  | 부도암 | ○                                     | △       | ○         | △         | △    |
| 3  | 비로암 | ○                                     | ○       | ○         | ○         | ○    |
| 4  | 약수암 | ○                                     | △       | ○         | △         | △    |
| 5  | 양진암 | ○                                     | ○       | △         | ○         | △    |
| 6  | 염불암 | ○                                     | ○       | ○         | ○         | ○    |

## 2. 은혜사 산내암자 및 전통사찰 지정여건 검토

동화사에 이어 은혜사 산내암자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은혜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이다. 은혜사가 관리하는 사찰은 영지사, 묘각사, 죽림사, 진불사, 수도사, 부귀사, 불굴사, 봉림사, 인각사, 신흥사, 대전사, 수정사, 유금사, 장륙사, 정수암, 천성암, 수태암, 금정암, 주사암, 도덕암 등 스무 곳에 달한다. 그 중 40%에 해당하는 여덟 곳이 은혜사가 관리하는 산내암자로 거조암, 기기암, 묘봉암, 백련암, 백흥암, 서운암, 운부암, 중암암이 그것이다.

은혜사 본사와 말사는 1988년 전통사찰 지정 당시 모두 지정되었다. 하지만 동화사와 마찬가지로 은혜사 산내암자 또한 전통사찰에서 누락되었다. 동화사 산내암자와 마찬가지로 은혜사 산내암자를 살펴보고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통사찰 지정 가능 유무를 판단해보고자 한다.

### 1) 거조암

거조암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말사로,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에 위치하고 있다. 거조사의 창건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한 가지는 738년(효성왕 2) 창건설이고, 다른 하나는 경덕왕(재위 742~764)대 창건설이 있다. 전해지는 기록이 없어서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지만, 보조국사 지눌이 1190년에 거조암에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을 지었다는 사실을 통해 고려시대에는 사찰의 형태를 띄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조암 보수공사 때 발견한 1375년 묵서명을 통해서 고려시대 말기에는 사찰이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65)</sup>

거조암은 원래 거조사(居祖寺)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시대기록에는 거조암을 거조사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1530년에 발간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영천군 불우조에 ‘거조사’로 기록되어 있고, 1757년에 발간된 『여지도서(輿地圖書)』 경상도 영천군에서도 ‘거조사’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1799년에 제작한 『범우고(梵宇攷)』에는 거조암에 대해 ‘절터만 남

65) 1970년에 진행된 영산전(靈山殿)의 해체 보수 당시 나온 묵서명과 권상로(1879~1965) 박사가 쓴 『한국사찰전서』 등에 의하면 통일신라 8세기 중반에 원참조사(元昂祖師)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신광희, 「거조암 『오백성중청문』을 통해 본 한국의 오백나한 의례」, 『선학』 51, 2018, p. 227.

아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진왜란 이후에는 거조사가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801년대에 불전을 중수하고 이후 1804년에는 양공 지연 등을 불러 훼손된 상들을 보수하고 채화하는 불사를 진행했다.<sup>66)</sup> 이후 1898년(광무 2) 중수 상량이 있었고, 1912년 은혜사 사내 말사로 합쳐지면서 거조암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sup>67)</sup>

이러한 중수 사실은 고려시대 건축양식과 조선시대 건축양식이 혼재한 전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68)</sup> 국내 최대 나한도량인 거조사는 3일간 기도하면 소원성취한다는 전설(傳說)이 있어서 많은 불자가 찾고 있으며, 당우로는 국보 제14호 <영천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과 2동의 요사채가 있다[표 33], (사진 19).

[표 33] 거조암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건물명   | 문화재지정  | 건축년대     | 규모(칸) | 지붕 |
|-------|--------|----------|-------|----|
| 영 산 전 | 국보제14호 | 고려말기     | 7×3   | 박공 |
| 요 사 채 | -      | 1910년 이전 | 6×3   | 박공 |
| 요 사 채 | -      | 1910년 이전 | 2×1   | 박공 |
| 삼층석탑  | -      | 통일신라     | 3층    | -  |

영산전 안에는 청화화상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빌려 앞산의 암석을 채취하여 조성했다는 석가여래삼존불과 오백나한상, 상언화상(尙彦和尙)이 그린 탕화가 봉안되어 있다. 그 중 법계도(法界圖)를 따라 봉안된 오백나한상은 그 하나하나의 모양이 특이하고 영험이 있다고 전한다. 이 밖에도 영산전 앞에는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높이 3.6m의 <은혜사 거조

66) 영파성규(影波聖奎, 1728~1812) 선사가 작성한 『오백성중청문』은 불사가 끝나고 의례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마땅한 의식문이 없어 고려말 안변 석왕사에서 무학대사가 오백나한을 대상으로 행했던 의식문을 구했고 이를 규범으로 하여 의식을 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광희, 위의 책, 2018, p. 230.

67) 문화재관리국, 『영천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 수리실측보고서』, 2004, p. 59.

68) 영산전은 창건 이후 여러번 수리하면서 많은 부분이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굴도리받침목, 향아리 보, 제공의 연화형조각 등은 고려말의 건축양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두 소로의 직사절, 촛가지의 연약형, 배흘림의 약화, y자형 솟을합장의 곡면화 등은 조선 초기 건축양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대가 내려온 형식으로 변화하였다. 이와같은 사유에 따라 영산전은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주심포에서 약간 벗어난 조선초기의 건축양식을 보는 견해도 있다. 문화재관리국, 위의 책, 2004, p. 60.

암 삼층석탑> 1기가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04호로 지정되어 있다(사진 20).

## 2) 운부암

운부암은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에 소재한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은해사 산내암자이다. 711년(성덕왕 10)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창건한 절이다. 창건할 당시 하늘에 서기 어린 구름이 떠 있어 운부암이라 칭하는데, 금강산 마하연과 더불어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시대 화재로 소실되어 중건되었으나, 1860년 다시 화재(火災)로 소실되었다. 이때 응허(應虛)와 침운(枕雲)이 중건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법당인 원통전(圓通殿)을 중심으로 왼쪽에 선방인 운부난야가 있고, 오른쪽에 요사채인 우의당(禹義堂)이 있으며, 앞에 보화루(寶華樓)가 있다. 원통전 뒤에는 산령각이 자리잡고 있다[표 34].

[표 34] 운부암 건축년대 및 규모

| 건물명 | 문화재지정 | 건축년대  | 규모(칸) | 처마 |
|-----|-------|-------|-------|----|
| 원통전 | -     | 1860년 | 3×1   | 박공 |
| 우의당 | -     | 1900년 | 4×2   | 박공 |
| 심검당 | -     | 1978년 | 5×6   | 우정 |
| 보화루 | -     | 1920년 | 5×2   | 팔작 |
| 산령각 | -     | 1900년 | 1×1   | 박공 |

원통전은 1862년(철종 13)에 지은 「운부암중건기(雲浮庵重建記)」의 기록을 통하여 1862년 중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보물 제514호 <영천 은해사 운부암 금동보살좌상>이 원통전(圓通殿)에 봉안되어 있다.(사진 21). 불단 뒤에는 1862년 조성된 아미타후불탱과 1989년에 조성된 지장탱, 신중탱이 걸려있다.

누각인 보화루 역시 1862년 원통전과 함께 중건되었다는 기록이 「운부암중건기」와 「조선사찰사료」에 나와 있어 현존하는 건물은 1900년에 중건된 것을 알 수 있다. 운부암은 예로부터 수행처로 널리 알려졌다. 경허(鏡虛)선사 및 성철(性徹)스님 같은 한국 현대 불교사의 중요 인물들이 이곳에서 수행했다.

### 3) 백홍암

백홍암은 869년 혜철국사(惠徹國師, 785~861)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sup>69)</sup> 창건 당시에는 백지사(栢旨寺)로 불렸는데, 은혜사 소속이 아닌 독자적인 사찰로 법등을 이어갔다. 창건 이후 조선시대까지 사찰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인재선생문집(寅齋先生文集)』에서 백홍암에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조선초 문장가였던 유방선(柳方善, 1388-1443)이 지은 오언율시 『백지사에 머물며』는 당시 백지사의 사세를 알 수 있다.<sup>70)</sup> 1520년(중종 15)에는 훗날, 인종으로 등극할 세자의 태(胎)를 봉안하는데, 이를 계기로 ‘막중수호지소(莫重守護之所)’가 되어 비보사찰(裨補寺刹)로 변하게 된다. 이후 백지사는 크게 번성하고, 1546년(명종 1) 천교(天敎)대사가 백홍암으로 중창하였다.<sup>71)</sup>

사세가 번창하던 백홍암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으나, 1643년(인조 21) 극락전의 중수를 시작으로 활발한 재건 사업이 이어졌다. 1651년(효종 2)과 1673년(현종 14), 1677년(숙종 3)에 걸쳐 중건이 이루어졌고, 1673년에 진행한 중수과정에서 극락전 아미타삼존불상을 조성하였다. 1685년(숙종 11)에 극락전을 중건하고, 1730년(영조 6)에는 보화루를 중수하였다. 1762년(영조 38)에는 감로탱화가 조성되는 등 백홍암에는 불사가 끊이지 않았다. 1858년(철종 9)에는 영산전, 1878년(고종 15)에는 보화루를 중수하고 이 시기에 보물 제486호 <영천 은혜사 백홍암 수미단>을 조성했다. 백홍암에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 글씨가 전해지는데, 진영각에 남아있는 주련과 편액은 추사 김정희가 쓴 것으로 귀양살이 이후 1848년(현종 14)에 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sup>72)</sup>

현존하는 당우로는 극락전을 중심으로 영산전, 명부전, 문루, 산신각, 선실, 원주실, 요사채 등이 있다. 이 중 극락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로서 보물 제790호로 지정되어있다(사진 22). 극락전 내부에서 아미타삼존불을 받치고 있는 수미단은 보물 제486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수미단은 높이 1.25m, 너비 4.13m에 5단으로 27등분하여 제작한 목조 탁자이다

69) 문화재청, 『영천 은혜사 백홍암 극락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3, p. 46.

70) 문화재청, 앞의 책, 2013, p. 47.

71) 팔공산에 이르는 산세가 마치 용이 승천하는 기세와 같으므로 운부암(雲浮庵)에서 일어나는 상서로운 구름이 더욱 많이 일어나 이를 돕는 뜻에서 ‘백홍’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전한다. 문화재청, 앞의 책, 2013, p. 47.

72) 문화재청, 앞의 책, 2013, pp. 47-48.

(사진 23). 각 면마다 봉황, 공작, 학, 용, 동자, 물고기, 개구리, 코끼리, 사자, 사슴 등이 조각되어 있어, 우리나라 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극락전 또한 아름다운 건물로 조선 중기의 우수한 건축이다. 이 밖에도 1531년(중종 26)에 간행된 법화경판과 이 절을 거쳐간 24인의 고승들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다. 「백흥암사적간판기(百興庵書蹟刊板記)」에 의하면 법당, 극락전, 시왕전, 명부전, 나한전, 영산전, 산령각, 종각 등의 건물명이 나오고 있으나 현재 나한전, 시왕전, 종각, 법당은 없고 진영각, 요사채 등은 간판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사찰 규모가 조금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표 35].<sup>73)</sup>

[표 35] 백흥암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번호 | 건물명 | 문화재 지정    | 건축년대  | 규모(칸) | 처마 |
|----|-----|-----------|-------|-------|----|
| 1  | 극락전 | 보물 제 790호 | 1643년 | 3×2   | 박공 |
| 2  | 보화루 | -         | 1878년 | 5×2   | 박공 |
| 3  | 심검당 | -         | 조선후기  | 5×3   | 박공 |
| 4  | 진영각 | -         | 조선후기  | 5×2   | 박공 |
| 5  | 명부전 | -         | 1970년 | 3×2   | 박공 |
| 6  | 영산전 | -         | 조선후기  | 3×1   | 박공 |
| 7  | 산신각 | -         | 1970년 | 1×1   | 박공 |

#### 4) 중암암

중암암은 834년(흥덕왕 9)에 심지왕사가 창건하였다. 정확한 창건과정은 전하지 않지만, 심지왕사가 동화사를 창건한 이후, 팔공산 산내에 여러 수행처를 마련하면서 묘봉암과 함께 중암암을 창건한 것으로 보인다. 1823년(순조 23) 태여대사(太如大師)가 중수하였고, 1834년(순조 34)에 우일(宇一)과 유엽대사(有曄大師)가 힘을 합쳐 중수하였다. 1958년에 법당과 산신각을 신축하고 요사채는 1958년에 새로 지었다(사진 24). 암자 뒤편으로 삼층석탑과 석등, 그리고 부도 등이 파손된 채 남아있고, 사찰 주변에는 건물지로 보이는 석축이 남아있다.<sup>74)</sup> 현존하는 당우로는 법당과 요사채가

73) 문화재청, 앞의 책, 2013, p. 50.

74) 사찰문화연구원, 앞의 책, 2000, pp. 385-386.

있다[표 36].

[표 36] 중암암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번호 | 건물명 | 문화재 지정 | 건축년대  | 규모(칸) | 처마  |
|----|-----|--------|-------|-------|-----|
| 1  | 법당  | -      | 1958년 | 3×1.5 | 합각  |
| 2  | 요사채 | -      | 1980년 | 3×1   | 우진각 |
| 3  | 백운헌 | -      | 1950년 | 3×1   | 박공  |
| 4  | 산신각 | -      | 1958년 | 2×2   | 박공  |

중암암 소재 문화재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32호인 <은해사 중암암 삼층석탑>이 있다(사진 25). <은해사 중암암 삼층석탑>은 창건 당시에 건립된 것이라고 하는데 높이 3.7m이다. 석등은 높이 1.2m의 장방형으로 장식이나 기교를 가하지 않은 특이한 석등이다. 이 밖에도 도괴된 부도 1기가 있다. 절 주변에는 삼인암(三印巖), 건들바위, 장군수(將軍水)가 있는데, 이 중 건들바위에는 전설이 깃들여 있다.

옛날 한 승려가 참선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큰 바위가 암자로 굴러오고 있으므로 급히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자 바위가 떠올라 훨씬 뒤의 안전한 자리로 옮겨 앉았다고 한다. 극락굴은 김유신(金庾信, 595-673) 장군이 15세 때 화랑이 되어 전국 명산 대찰로 심신 수련을 다니다가 17세 때, 이곳 중암암에 들어와서 수행 중 천지신명께 삼국통일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과 용기를 달라고 100일 기도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장군수는 김유신 장군이 100일 기도를 하며 이곳에서 수련하면서 마셨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5) 묘봉암

묘봉암은 834년(흥덕왕 9)에 심지왕사(心地王師)가 창건한 것으로 전하지만, 자세한 기록은 없다. 심지왕사는 동화사에 오랫동안 주석하면서 팔공산 내에 수행과 교학을 위해 여러 곳에 암자를 마련했는데, 묘봉암도 그 중 하나로 추정한다.<sup>75)</sup> 창건 이후, 묘봉암은 관음 기도처로서 전승됐다.

고려시대 때 사찰에 관련된 기록은 전해지지 않으나 조선시대는 몇 가

75) 사찰문화연구원, 앞의 책, 2000, p. 369.



지의 중창 사실이 전한다. 1485년(성종 16)에 죽청(竹淸) 스님과 의찬(義贊) 스님이 사찰을 중창하고, 1543년(중종 38)에는 보주(寶珠)·삼인(三印)·지등(志燈) 등 스님 세 분이 다시 중창을 시작하여 이듬해 완성했다. 조선 시대 후기인 1780년(정조 4)에는 혜옥(惠玉)·서징(徐澄) 두 스님이 다시 중건하였다. 여러 중창 기록이 있지만, 자세한 중창과정이나 중창을 주도했던 스님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는다.<sup>76)</sup> 묘봉암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폐허로 변했고, 오늘날의 모습을 지니게 된 것은 1975년 이후 여러 스님이 노력하여 새롭게 중창한 결과다.<sup>77)</sup>

당우로는 법당인 원통전을 중심으로 왼쪽에 요사채가 있고 오른쪽 뒤편에 산령각이 있으며, 원통전 아래 염불당과 성적당(시민선방)이 있다[표 37], (사진 26). 원통전은 무척 높아 정사각형의 모양에 가까운데, 그 까닭은 내부에 큰 돌이 뻗어있어 그 아래 관세음보살상을 안치하고 왼쪽 위에 2층을 만들어서 석가모니불을 봉안하였기 때문이다.

[표 37] 묘봉암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번호 | 건물명 | 문화재 지정 | 건축년대  | 규모(칸) | 처마 |
|----|-----|--------|-------|-------|----|
| 1  | 원통전 | -      | 1982년 | 3×1   | 박공 |
| 2  | 요사채 | -      | 1975년 | 6×2   | 박공 |
| 3  | 산령각 | -      | 1977년 | 1×1   | 박공 |

## 6) 기기암

기기암은 조그마한 암자로 사세는 크지 않으나 816년(헌덕왕 8)에 창건한 것으로 전한다. 당시 정수(正秀)대사가 국왕의 평안을 목적으로 창건했는데, 당시 사찰 이름은 안덕사(安德寺) 또는 안흥사(安興寺)로 불렸다. 이후 기록은 전하지 않다가 1186년(명종 16) 기성대사(箕城大師)가 사찰명을 기기암으로 바꾼 것으로 전한다. 이는 ‘몸은 사바세계에 머물고, 마음은 극락세계에 머문다.(身寄娑婆 心寄極樂)’는 뜻을 지녔다.<sup>78)</sup>

『조선사찰사료』에는 쾌선사가 1741년(영조 17) 초창한 것으로 전한다. 1773년(영조 49)에 명암당 재장사가 이건하고, 1828년(순조 28)에 중수했

76) 사찰문화연구원, 앞의 책, 2000, pp. 369-370.

77) 사찰문화연구원, 앞의 책, 2000, pp. 369-370.

78) 사찰문화연구원, 앞의 책, 2000, p. 368.

다. 한국전쟁 때 폐사된 것을 1970년대 신축했다고 한다[표 38], (사진 27).

[표 38] 기기암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번호 | 건물명 | 문화재 지정 | 건축년대  | 규모(칸) | 처마 |
|----|-----|--------|-------|-------|----|
| 1  | 법당  | -      | 1970년 | 6×3   | 정자 |
| 2  | 요사채 | -      | 1980년 | 4×1   | 팔작 |
| 3  | 산령각 | -      | 1900년 | 1×1   | 박공 |

#### 7) 서운암

서운암은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에 소재한 은혜사 산내암자이다(사진 28). 은혜사 본사에서 기기암 방향으로 200m 지점에 자리잡고 있으며, 1817년경 창건된 것으로 추정한다. 서운암에는 <은혜사 서운암 산신>이 있다. 화면 중앙에는 도포를 입고 수염을 휘날리는 산신이 그려져 있고 우측에는 복숭아를 들고 시립(侍立)한 동자를 배치하였다. 화기(畵記)가 있어서 1817년 제작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79)</sup> 19세기 초기 작품으로 현존하는 산신탕화 중 매우 이른 시기에 속한다.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현재 액자로 제작되어 법당에 보관하고 있다. 크기는 가로 85cm, 세로 94cm로 구성되어 있다.

#### 8) 백련암

백련암은 다른 암자와 다르게 은혜사 왼쪽 담장 옆에 있어 은혜사 일부가 되어있으나, 조선전기부터 유지해 온 유서 깊은 암자이다(사진 29). 1546년(명종 1) 은혜사의 중창과 함께 새로 건립되었는데, 자세한 사정은 전하지 않으나 은혜사에 주석하는 고승들이 머무는 요사 또는 수행처로서 창건되었다. 따라서 백련암은 암자로서 독자적 성격보다 은혜사 역사와 함께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는 백련암을 기점으로 불교청년회의 항일학생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sup>80)</sup> 자연석을 쌓아 만든 이후에 초석을 두어 기둥을 세운 정

79) 嘉慶二十二年丁丑十一年日

80) 사찰문화연구원, 앞의 책, 2000, p. 371.

면 7칸에 팔작지붕을 올린 건물이며 근래에 조성되었다. 이곳에는 현재 삼국유사와 일연스님의 사상을 연구하고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일연학연구원이 있다.

이상 은혜사 관할 8개소 산내암자를 살펴보았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2항에 명시된 조건을 대입해 보았다. 그 결과 은혜사 관할 8개소 산내암자 가운데 거조암, 기기암, 묘봉암, 백흥암, 운부암, 중암암 등 6개 암자가 전통사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9].

[표 39] 은혜사 산내암자 지정여건 검토 결과

| 번호 | 사찰명 |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br>2항에 의한 지정여건 |            |              |                 | 지정<br>여부 |
|----|-----|------------------------------------------|------------|--------------|-----------------|----------|
|    |     | 시대적<br>특징                                | 불교미술<br>흐름 | 문화의<br>생성·변화 | 기타<br>문화적<br>가치 |          |
| 1  | 거조암 | ○                                        | ○          | ○            | ○               | ○        |
| 2  | 기기암 | ○                                        | ○          | ○            | ○               | ○        |
| 3  | 묘봉암 | ○                                        | ○          | ○            | ○               | ○        |
| 4  | 백흥암 | ○                                        | ○          | ○            | ○               | ○        |
| 5  | 운부암 | ○                                        | ○          | ○            | ○               | ○        |
| 6  | 중암암 | ○                                        | ○          | ○            | ○               | ○        |
| 7  | 서운암 | ○                                        | △          | △            | △               | △        |
| 8  | 백련암 | ○                                        | △          | △            | △               | △        |

동화사 관할 6개소 산내암자와 은혜사 관할 8개소 산내암자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40]과 같다.

위와 같이 은하사와 동화사 암자를 더하면 팔공산 주변 암자 가운데 전통사찰 지정 가능성이 있는 암자는 총 14개가 있다. 기존에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과 비교했을 때, 선정된 암자는 모두 지정된 사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수암과 부도암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사찰은 불교의 문화와 예술 및 건축사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0] 팔공산 산내암자 지정여건 검토 결과

| 번호 | 사찰명 |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            |              |                 | 지정<br>여부 |
|----|-----|------------------------------|------------|--------------|-----------------|----------|
|    |     | 시대적<br>특징                    | 불교미술<br>흐름 | 문화의<br>생성·변화 | 기타<br>문화적<br>가치 |          |
| 1  | 내원암 | ○                            | ○          | △            | △               | △        |
| 2  | 부도암 | ○                            | △          | ○            | △               | △        |
| 3  | 비로암 | ○                            | ○          | ○            | ○               | ○        |
| 4  | 약수암 | ○                            | △          | ○            | △               | △        |
| 5  | 양진암 | ○                            | ○          | △            | ○               | △        |
| 6  | 염불암 | ○                            | ○          | ○            | ○               | ○        |
| 7  | 거조암 | ○                            | ○          | ○            | ○               | ○        |
| 8  | 기기암 | ○                            | ○          | ○            | ○               | ○        |
| 9  | 묘봉암 | ○                            | ○          | ○            | ○               | ○        |
| 10 | 백흥암 | ○                            | ○          | ○            | ○               | ○        |
| 11 | 운부암 | ○                            | ○          | ○            | ○               | ○        |
| 12 | 중암암 | ○                            | ○          | ○            | ○               | ○        |
| 13 | 서운암 | ○                            | △          | △            | △               | △        |
| 14 | 백련암 | ○                            | △          | △            | △               | △        |

내원암과 양진암을 제외한 10개 사찰에서는 문화의 생선과 변화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기타 문화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사찰 또한 백련암, 부도암, 약수암을 제외한 10개 사찰이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전통사찰의 실태를 조사하고 재정비할 때 팔공산 소속 암자도 충분히 고려해 볼 대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전통사찰의 실태를 일제조사하여 전통사찰을 재지정하고 정비할시에는 동화사 산내암자인 비로암, 염불암과 은혜사 산내암자인 거조암, 기기암, 묘봉암, 백흥암, 운부암, 중암암은 전통사찰 지정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V. 전통사찰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통사찰 지정 목적은 우리 민족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의 전통을 간직한 사찰(寺刹)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정한다. 1988년 전통사찰 지정 당시에는 적법하게 지정된 전통사찰이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검토해보니 아쉬운 점이 다섯 가지 발견되었다.

첫째,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해제되는 곳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주민등록 일제조사 하듯이 전통사찰도 일제 조사하여 조건 미달사찰은 지정 해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사찰에 지원되는 금액은 세금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둘째, 사찰 운영 주체를 명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인 사찰에서는 사찰의 주지가 입적한 이후, 후임 스님 없이 자녀들이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사찰이 있다. 사찰은 승려가 수행하면서 대중교화를 위해 축조한 건조물을 말하는데, 운영 주체가 승려가 아니라면 전통사찰 여부 이전에 사찰로서 성립 가치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셋째, 사찰 구성에 대한 기준. 사찰은 다른 건물은 제외하더라도 부처의 공간인 법당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당 없이 인법당으로 지속되는 사찰이 존재한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당 없이 운영하더라도 전통사찰에 걸 맞는지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넷째, 『교남지』가 출간된 1875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경상북도에서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이 6개소 내외이다. 이 수치는 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문경시 같은 경우 10개소 가운데 7개소를 지정하여 70%의 비율을 보인다. 반면 구미시 같은 경우 25개소 가운데 6개소가 지정되어 24%의 지정비율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찰이 더 많이 남아있는 구미시가 김천시보다 많은 수의 전통사찰을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구미시와 김천시가 지정받은 전통사찰 수는 비슷하다. 전통사찰을 지정하는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고 단순히 비율적인 접근은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는 바이나, 전통사찰 지정과정 가운데 지역 여건을 고려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다섯째, 지정기준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전통사찰 지정기준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나름 구체

적으로 명시를 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어느 것도 수치적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이상 다섯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전통사찰 등급제>를 제안하는 바이며, [표 4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분류기준안을 제시해 보았다.

[표 41] 전통사찰 등급제

| 번호 | 대분류             | 소분류                                                                        |
|----|-----------------|----------------------------------------------------------------------------|
| 1  | 역사적<br>가치       | 1) 50년 이상 존속 되었는가?                                                         |
|    |                 | 2) 사적기와 「동비여고」 같은 각종 역사서에 기록이 있는가?                                         |
|    |                 | 3) 중수될 당시 시대상황을 보여줄 수 있거나 근거자료가 있는가? (중수기문, 현판 등 실증자료)                     |
|    |                 | 4) 고고학적 유물이 있는가? (지표상에 확인되는 석조물 및 기와)                                      |
| 2  | 불교미술<br>흐름      | 5) 지정문화재가 있는가?                                                             |
|    |                 | 6) 전통양식의 전각, 불상, 불화가 있는가?(100년 이상)                                         |
|    |                 | 7) 사찰 소장 불교 유물 중 정확한 명문 자료가 있는가?                                           |
|    |                 | 8) 불교문화 생성과 변화의 전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가?                                          |
| 3  | 기타<br>문화적<br>가치 | 9) 50명 이상 사찰 신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찰관리, 재정 등 문제가 된 적이 없는가?              |
|    |                 | 10) 불교 목적과 범위 안에서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기타 공익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통해 지역에 기여(문화, 관광)하고 있는가? |
| 계  | 10문항/100점       |                                                                            |

먼저 전통사찰에 등급을 매기기 위한 법률 기준을 작성했다.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네 가지 기준은 심사자의 주관적 기준이 전통사찰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는 비슷한 상황의 사찰이라도 심사자의 판단에 따라 당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 번째 문화의 생성·변화 고찰 시 모형이 되는가?’는 심사자끼리 이견이 생기기 쉽고, 불교미술 흐름과

의미가 중복되므로 더욱 수정이 필요한 항목이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사찰 지정기준을 네 가지에서 세 가지로 바꾸었으며, 각 기준에 세부 항목을 작성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항목을 수정했다.

먼저 역사적 가치를 살펴보면, 기존에는 창건시기가 오래된 사찰에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하지만 사찰이 유지한 지속성은 사찰의 역사성의 포함 조건은 될 수 있지만, 필요조건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에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제 34조 1항에 의거하여 50년 이상된 사찰을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정했다.

또한 고서적에서 찾을 수 있는 사찰은 충분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창건 혹은 중수 당시 상황이나 배경, 발원자 등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항 또한 객관적인 자료로서 가치가 충분한 사찰은 전통사찰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비록 이러한 기록이 없더라도 절대연대가 있다면 그것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 항목인 불교미술 흐름은 사찰이 지닌 미술사적 가치에 집중했다. 역사적 가치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찰 연혁을 평가한다면, 불교미술 흐름은 사찰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에 집중하여 미술사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평가했다. 명문에서 알 수 있는 절대연대와 기존 학설을 통해 연구된 특징이 사찰미술품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상에 있는 복장발원문이나 수미단에 적힌 묵서명 등 신앙심과 관련된 물품 제작배경과 제작연대를 평가항목에 넣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명문은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 따라서 명문이 없더라도 사찰에서 보유한 문화재가 기존 학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나 새로운 학설을 제시할 수 있다면, 미술사 흐름을 알 수 있다고 생각되어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사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종합적으로 고찰했을 때, 한국 불교미술사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평가하여 전통사찰로서 가치를 보고자 한다.

기타 문화적 가치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기 위한 항목이다. 전통사찰로 지정할 경우, 국비가 들어가게 되므로 해당 사찰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통사찰은 주지 스님이 관리자로 임명되고 그 사찰을 관리하는데, 관리자의 일신상 이유나 기타 이유로 관리를 포기하게 되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부담이 들어가는 만큼 사찰의 재정 또한 중요하며, 재무상태 확인과 더불어 재정적

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통사찰은 종교시설이지만, 역사성이나 불교미술적 가치는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에 종교 그 자체 목적인 포교사업과 별개로, 사회복지사업이나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타 문화적 가치는 전통사찰 지정 여부 및 등급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전통사찰 등급제의 핵심 평가 항목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90점대는 A등급, 80점대는 B등급, 70점대는 C등급, 60점대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A등급은 전통사찰 지정, B등급은 검토 후 전통사찰 지정, C등급은 재심사, D등급은 탈락으로 정한다. 대상 암자는 거조암, 기기암, 묘봉암, 백련암, 백흥암, 서운암, 운부암, 중암암이며, 각각 암자를 제안한 항목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A등급은 거조암, 백흥암, 운부암, 중암암으로 해당 사찰은 일부 항목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결로 나왔으나 대다수의 항목에 모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거조암, 백흥암, 운부암, 중암암은 전통사찰로서 자격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B등급은 기기암과 묘봉암, 두 개의 사찰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암은 5번 항목이 부합하지 않았다. 두 사찰은 창건 기간과 지정문화재의 부재가 문제라서, 심사자의 충분한 검토가 있다면 전통사찰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C등급을 받은 사찰은 백련암과 서운암, 두 곳이 있다. 두 사찰은 여러 항목에서 부족한 점수를 받았고, 전통사찰 지정을 신청한다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42].



[표 42] 은혜사 산내암자 <전통사찰 등급제> 분류표

| 기준                          |                                                                                 | 사찰 | 거조암 | 기기암 | 묘봉암 | 백련암 | 백홍암 | 서운암 | 운부암 | 중암암 |
|-----------------------------|---------------------------------------------------------------------------------|----|-----|-----|-----|-----|-----|-----|-----|-----|
| 역사<br>적<br>가<br>치           | 1) 50년이상 존속되었는가? (15점)                                                          |    | ○   | ○   | △   | △   | ○   | △   | ○   | ○   |
|                             | 2) 사적기와 「동비여고」 같은 각종 역사서에 기록이 있는가? (10점)                                        |    | ○   | ○   | ○   | ○   | ○   | ○   | ○   | ○   |
|                             | 3) 중수될 당시 시대상황을 보여줄 수 있거나 근거자료가 있는가? (중수기문, 현판 등 실증자료) (10점)                    |    | ○   | ○   | △   | ○   | ○   | ○   | ○   | ○   |
|                             | 4) 고고학적 유물이 있는가? (지표상에 확인되는 석조물 및 기와) (10점)                                     |    | ○   | ○   | ○   | ○   | ○   | ○   | ○   | ○   |
| 불교<br>미<br>술<br>흐름          | 5) 지정문화재가 있는가? (15점)                                                            |    | ○   | △   | ○   | △   | ○   | △   | ○   | ○   |
|                             | 6) 전통양식의 전각, 불상, 불화가 있는가?(100년 이상) (10점)                                        |    | ○   | ○   | ○   | ○   | ○   | ○   | ○   | △   |
|                             | 7) 사찰 소장 불교 유물 중 정확한 명문 자료가 있는가? (10점)                                          |    | ○   | ○   | ○   | △   | ○   | △   | ○   | ○   |
|                             | 8) 불교문화 생성과 변화의 전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가?(5점)                                           |    | ○   | ○   | ○   | ○   | △   | △   | △   | ○   |
| 기타<br>문<br>화<br>적<br>가<br>치 | 9) 50명 이상 사찰 신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찰관리, 재정 등 문제가 된 적이 없는가? (10점)             |    | ○   | ○   | ○   | ○   | ○   | ○   | ○   | ○   |
|                             | 10) 불교 목적과 범위 안에서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기타 공익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통해 지역에 기여(문화, 관광)하고 있는가? (5점) |    | ○   | ○   | ○   | ○   | ○   | ○   | ○   | ○   |
| 지정 가능 여부                    |                                                                                 |    | 여   | 여   | 여   | 부   | 여   | 부   | 여   | 여   |

기존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전통사찰 지정과 ‘전통사찰 등급제’를 비교를 해보았다.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거조암, 백홍암, 묘봉암, 운부암, 중암암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사찰 등급제>에서도 거조암, 백홍암, 운부암, 중암암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기암과 묘봉암은 심사자와 충분한 협의가 된다면 전통사찰 지정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통사찰 등급제>를 통해서 두 지표 모두 같은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흥미로운 점은 <전통사찰 등급제>가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다 더욱 합당한 이유도 함께 알 수 있었다. 첫째, <전통사찰 등급제>가 사찰의 지정사유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전통사찰로 지정이 가능하다면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고, 탈락 사유 또한 분명하므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둘째, 사찰에서 전통사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다.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전통사찰 등급제>는 전통사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고 있다. 이는 사찰이 전통사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사찰은 준비사항을 미리 알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다. 관련기관 또한 사찰의 무분별한 신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목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사찰에서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보존처리에 대해 어느정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 보존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사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무감각한 경우가 더러 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VI. 맺음말

우리나라는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987년 <전통사찰보존법>을 제정했다. 이후 2009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으로 변경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사찰 지정제도는 사찰 관리 혹은 관람객의 인식 전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전통사찰에 지정되지 못한 사찰은 사찰의 가치가 낮게 인식하거나 전통사찰로 지정받기 위해 과도한 경쟁을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도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800건 이상의 사찰이 함께 지정되고, 1998년 이후 오늘날까지 1년에 5건 미만의 사찰이 지정되고 있어 형평성에 의구심을 품게 한다.

이에 본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전통사찰 지정에서 지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통사찰 등급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했다.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기에 앞서 전통사찰 지정여건과 지정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전통사찰로 등록된 경상북도의 사찰을 분석하였다.

경상북도 전통사찰은 178개소이고 자치단체, 불교종단 및 문화재, 창건시기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지정된 사찰이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지정적합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치단체 별로 6개소 내외의 전통사찰을 지정한 사실과 종단으로는 조계종이 많은 전통사찰을 보유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경상북도의 중요한 불교문화 자원인 팔공산이 지닌 역사성과 더불어 팔공산에 산재한 암자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앞서 분석한 전통사찰의 지정적합도를 팔공산 산내암자에 대입하여 전통사찰 지정적합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거조암, 기기암, 묘봉암, 백흥암, 운부암, 중암암 등 6개소가 전통사찰 지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전통사찰 등급제>에서도 비슷한 결과로 이어졌다.

<전통사찰 등급제>는 기존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이는 시대적 특징, 불교미술 흐름, 문화의 생성·변화, 기타 문화적 가치 등 주관적인 항목을 객관적인 항목으로 수정했다. 또한 A부터 D까지 네 가지 등급을 배정하고, A는 100-90점 합격, B는 89-70 검토 후 지정, C는 69-50 재검토, D는 49-0 탈락으로 구간을 설정했다. 그 결과 은혜사의

산내암자인 거조암, 백흥암, 운부암, 중암암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기암과 묘봉암은 검토 후 지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류와 유사한 결과 값을 보여주면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다 객관적이고 자세하게 평가할 수 있었다.

<전통사찰 등급제>는 첫째,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다 사찰의 지정사유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었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둘째, 사찰에서 전통사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다. 사찰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한 사찰의 무분별한 신청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사찰에서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불사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통사찰 등급제>와 같은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과 동시에 은혜사 소속 산내암자인 거조암, 기기암, 묘봉암, 백흥암, 운부암, 중암암을 조속히 전통사찰로 지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 사료

『伽藍考』

『高麗史』

『嶠南誌』

「桐華寺事蹟記」

「百興庵書蹟刊板記」

『三國史記』

『三國遺事』

「雲浮庵重建記」

『寅齋先生文集』

### 2. 사전·도록·보고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한국의 전통사찰』, 2010.

대한불교진홍원·(사)팔공산문화포럼,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여는 대구경북의 미래』, 2014.

문화재관리국, 『영천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 수리실측보고서』, 2004.

문화재청, 『영천 은혜사 백홍암 극락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3.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전통사찰 현황』 1월말 기준, 2021.

사단법인 정보문화재연구원, 『동화사 본·말사 불화조사 보고서』, 2001.

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 『朝鮮寺刹史料』, 1911.

### 3. 단행본

권영한, 「한국사찰의 주련」, 전원문화사, 2000.

문경현, 「팔공산:팔공산사적 지표조사보고서」, 대구직할시, 1987.

문경현, 『신라사 연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1983.

박종봉, 매일신문 특별취재팀, 「신 팔공산하」, 매일신문사, 2017.

범해, 『동사열전』, 광제원, 1991.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대구·경북의 전통사찰 I』, 사찰문화연구원, 2000.

이기백, 「新羅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朝閣, 1999.

이상국, 『경상북도 전통사찰』, 동아출판사, 2020.

崔根泳, 『통일신라시대의 지방세력연구』, 신서원, 1990.

한국국학진흥원, 『경북학의 정립과 정신문화사 연구』 상권, 한국국학진흥원, 2007.

#### 4. 논문

김상겸·김성준, 「국가의 전통·민족문화 계승의무와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헌법적 연구」, 『토지공법연구』 44(2), 2009.

김상현, 「통일신라시대 팔공산의 불교신앙」, 『정토학연구』 20, 2013.

류명환, 「조선시대 사찰 기록 비교를 통한 가람고 편찬의 의의」, 『韓國思想과 文化』79, 2015.

文暉鉉, 「元曉의 修道處에 대하여」, 『신라문화제 학술발표논문집』 11(1), 1990.

박기묵, 「도립공원의 특정 여행코스와 그 코스 내 사찰의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 팔공산 동화사 여행코스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3(1), 2009.

오세덕, 「八公山 桐華寺의 창건시기와 伽藍의 변화과정 고찰」, 『불교학보』 79, 2017.

이동민, 「대구 八公山 마애약사여래좌상 조성시기 검토」, 『중악지』 19, 2009.

이동식, 「전통사찰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5(3), 2019.

이상훈, 「칠곡 松林寺의 입지조건과 창건배경」, 『韓國古代史探究』 18, 2014.

이영경, 「전통사찰 보존지의 가치 및 평가지표 도출-심층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 쌍체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5(4), 2017.

이희정, 「동화사 내원암 목조보살좌상 연구」, 『선문화연구』 28, 2020.

신광희, 「거조암 『오백성중청문』을 통해 본 한국의 오백나한 의례」, 『선학』 51, 2018.

전영권, 「팔공산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 검토」, 『2019년 한국지

역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9.

조영주, 「동화사 비로암의 미술사적 고찰」,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3.

조영주, 「統一新羅時代 八公山地域 石佛像에 대한 研究」, 『계명사학』 12, 2001.

황수영, 「민애대왕 석탑기」, 『사학지』 3, 1969.

홍광표·심경구·하재호, 「傳統寺刹의 保存에 대한 問題와 對策」, 『한국조경학회지』 18(4), 2000.

## [표 목 록]

|                                                  |       |
|--------------------------------------------------|-------|
| [표 1] 조선후기 『가람고(伽藍考)』 사찰과 우리나라 전통사찰 지정비율 .....   | p. 2  |
| [표 2] 연구대상 사찰 .....                              | p. 8  |
| [표 3] 『교남지』에서 보이는 사찰의 존재여부와 경상북도 전통사찰 지정현황 ..... | p. 11 |
| [표 4] 불교종단 별 전통사찰 지정현황 .....                     | p. 14 |
| [표 5] 문화재 보유별 전통사찰 지정현황 .....                    | p. 16 |
| [표 6] 창건시기별 전통사찰 지정현황 .....                      | p. 21 |
| [표 7] 경상북도 관할 전통사찰 지정적합도 .....                   | p. 23 |
| [표 8] 팔공산 주변 학교 수 .....                          | p. 28 |
| [표 9] 교가 속에 등장하는 팔공산 지명 현황 .....                 | p. 29 |
| [표 10] 왕건길 코스 및 내용 .....                         | p. 34 |
| [표 11] 태조 왕건 부인(夫人) 현황 .....                     | p. 36 |
| [표 12] 팔공산 주변 사찰 개수 및 전통사찰 지정 개수 .....           | p. 44 |
| [표 13] 부귀사 현존건물 현황 및 규모 .....                    | p. 45 |
| [표 14] 봉림사 현존건물 현황 및 규모 .....                    | p. 47 |
| [표 15] 환성사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 p. 48 |
| [표 16] 불굴사 현존건물 현황 및 규모 .....                    | p. 49 |
| [표 17] 천성암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 p. 51 |
| [표 18] 군위 삼존 석굴암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 p. 52 |
| [표 19] 송림사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 p. 53 |
| [표 20] 도덕암의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 p. 54 |
| [표 21] 동화사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 p. 56 |
| [표 22] 부인사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 p. 56 |
| [표 23] 북지장사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 p. 57 |
| [표 24] 관암사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 p. 58 |
| [표 25] 동화사 및 은혜사 관할 암자 목록 .....                  | p. 60 |
| [표 26] 비로암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 p. 61 |
| [표 27] 비로암 석탑기 전문 .....                          | p. 62 |
| [표 28] 비로암 석탑기 내용 .....                          | p. 63 |



|                                     |       |
|-------------------------------------|-------|
| [표 29] 부도암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 p. 66 |
| [표 30] 내원암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 p. 66 |
| [표 31] 양진암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 p. 67 |
| [표 32] 동화사 산내암자 지정여건 검토 결과 .....    | p. 68 |
| [표 33] 거조암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 p. 70 |
| [표 34] 운부암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 p. 71 |
| [표 35] 백흥암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 p. 73 |
| [표 36] 중암암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 p. 75 |
| [표 37] 묘봉암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 p. 76 |
| [표 38] 기기암 현존건물 연대 및 규모 .....       | p. 77 |
| [표 39] 은혜사 산내암자 지정여건 검토 결과 .....    | p. 78 |
| [표 40] 팔공산 산내암자 지정여건 검토 결과 .....    | p. 79 |
| [표 41] 전통사찰 등급제 .....               | p. 81 |
| [표 42] 은혜사 산내암자 <전통사찰 등급제> 분류 ..... | p. 84 |

## [그림 목록]

|                                                      |       |
|------------------------------------------------------|-------|
| [그림 1]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             | p. 7  |
| [그림 2] 『교남지』에서 보이는 사찰의 경상북도 전통사찰 지정현황 .....          | p. 12 |
| [그림 3] 『교남지』에서 보이는 사찰의 존재여부와 경상북도 전통사찰 지정현황<br>..... | p. 13 |
| [그림 4] 불교종단 별 전통사찰 지정현황 .....                        | p. 15 |
| [그림 5] 문화재 보유 별 전통사찰 지정현황 .....                      | p. 17 |
| [그림 6] 문화재 보유 별 전통사찰 지정현황 .....                      | p. 18 |
| [그림 7] 창건시기 별 전통사찰 지정분포 .....                        | p. 20 |
| [그림 8] 창건시기 별 전통사찰 지정개수 .....                        | p. 21 |

## [사진 목록]

- 사진 1. <수도사 원통전>, 이상국
- 사진 2. <수도사 노사나불 패불탱>
- 사진 3. <영천 은혜사 백홍암 극락전>, 이상국
- 사진 4.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이상국
- 사진 5. <영천 화남리 석조여래좌상>, 이상국
- 사진 6.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
- 사진 7. <환성사 대웅전>, 이상국
- 사진 8.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 사진 9. <경산 선본암 삼층석탑>, 이상국
- 사진 10.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 이상국
- 사진 11. <경산 원효암 마애여래좌상>, 이상국
- 사진 12.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
- 사진 13. <군위삼존석굴석조비로자나불좌상>, 이상국
- 사진 14. <군위삼존석굴모전석탑>
- 사진 15.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 사진 16-1. <칠곡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본존)>, 이상국
- 사진 16-2. <칠곡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좌협시)>, 이상국
- 사진 16-3. <칠곡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우협시)>, 이상국
- 사진 17-1.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본존)>, 이상국
- 사진 17-2.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좌협시)>, 이상국
- 사진 17-3.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우협시)>, 이상국
- 사진 18. <영조대왕의 도포(道袍)>
- 사진 19. <영천 거조사 영산전>, 이상국
- 사진 20. <은혜사 거조암 삼층석탑>, 이상국
- 사진 21. <영천 은혜사 운부암 금동보살좌상>
- 사진 22. <영천 은혜사 백홍암 극락전>, 이상국
- 사진 23. <영천 은혜사 백홍암 수미단>

- 사진 24. <중암암 대웅전>, 이상국  
사진 25. <은해사 중암암 삼층석탑>, 이상국  
사진 26. <묘봉암 전경>, 이상국  
사진 27. <기기암 전경>, 이상국  
사진 28. <서운암 전경>, 이상국  
사진 29. <백련암 전경>, 이상국

[사 진]



사진 1. <수도사 원통전>



사진 2. <수도사 노사나불 괘불탱>





사진 3. <영천 은해사 백홍암 극락전>



사진 4.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사진 5. <영천 화남리 석조여래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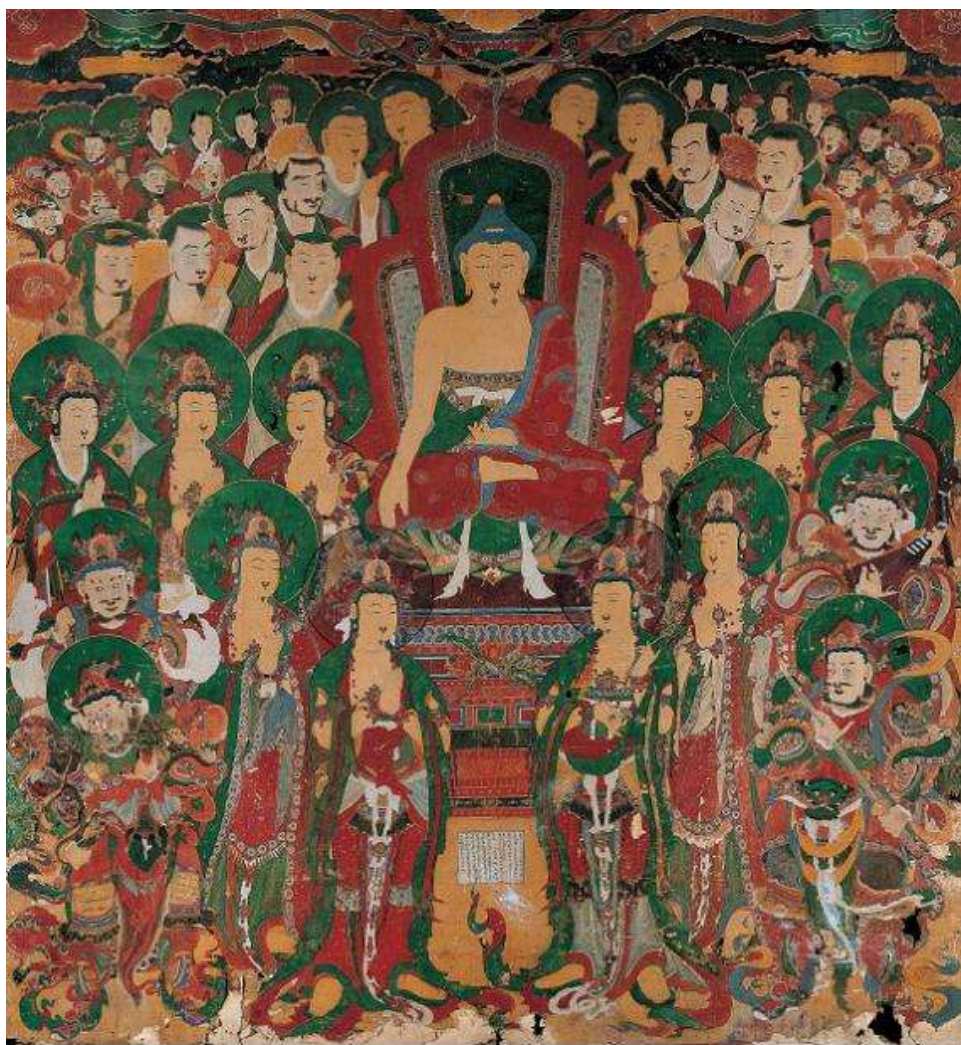


사진 6.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



사진 7. <환성사 대웅전>



사진 8.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사진 9. <경산 선본암 삼층석탑>



사진 10.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





사진 11. <경산 원효암 마에여래좌상>



사진 12.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





사진 13. <군위삼존석굴석조비로자나불좌상>



사진 14. <군위삼존석굴모전석탑>



사진 15.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사진 16-1. <칠곡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본존)>



사진 16-2. <칠곡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좌협시)>





사진 16-3. <칠곡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우협시)>



사진 17-1.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본존)>





사진 17-2.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좌협시)>



사진 17-3.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우협시)>



사진 18. <영조대왕의 도포(道袍)>



사진 19. <영천 거조사 영산전>





사진 20. <은해사 거조암 삼층석탑>



사진 21. <영천 은혜사 운부암 금동보살좌상>





사진 22. <영천 은해사 백홍암 극락전>



사진 23. <영천 은해사 백홍암 수미단>





사진 24. <중암암 대웅전>



사진 25. <은해사 중암암 삼층석탑>





사진 26. <묘봉암 전경>



사진 27. <기기암 전경>





사진 28. <서운암 전경>



사진 29. <백련암 전경>



< 부록 1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0. 5. 27. 제 16696호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5., 2012. 2.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1.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주지”란 전통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의 운영 및 재산을 관리하고 전통사찰의 보존·발전·계승을 관장하는 승려를 말한다.

3. “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가.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나.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다.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라. 사찰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마.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바.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사.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4. “문화유산”이란 전통사찰에 속한 불교건축, 불교조각, 불교회화, 불교공예, 경전, 그 밖의 문서 등의 유형문화유산과 불교의례, 불교예능, 세시풍속, 전통문화행사 등 무형문화유산을 말한다.

5. “동산”이란 사찰에 있는 불상·화상(畵像)·석물(石物)·고문서·고서화·종류(鐘類)·경전, 그 밖에 사찰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유서(由緒)가 있거나 학예, 기예(技藝) 또는 고고(考古) 자료로 인정되는 것으로 제작되거나 작성된 지 50년 이상 지난 것을 말한다.

6. “부동산”이란 사찰에 속하는 대지·전답·임야 및 건조물을 말한다.  
제3조(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누구든지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을 존중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통사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17.]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①사찰의 주지는 운영·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면 이를 고시하고 그 사찰의 주지와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시·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 2. 17.>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정해제와 등록말소) ①시·도지사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4조에 따라 지정·등록된 전통사찰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권이나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통사찰이 전통사찰로서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해당 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해제 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 전통사찰의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해제 및 등록말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①제4조에 따라 지정·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②시·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이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7.>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유지 및 발전과 수행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7.>

1. 불교의 포교·수행, 전통사찰의 유지·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건조물의 설치 및 변경행위

2. 영업 행위

④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변경·해제 및 행위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7.>

제7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2. 17.>

1.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의 권고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문화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 삭제 <2012. 2. 17.>

제8조(주지의 관리의무) 전통사찰의 주지(住持)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사찰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동산·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9조의2(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②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허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5. 「건축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17.]

제9조의3(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전통사찰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행위일 것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에 이바지할 것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일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2. 17.]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전통사찰 주지가 요청한 경우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지 주변 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 도로나 철도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전통사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에 대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④「건축법」 제11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형태가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을 위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2. 2. 17.>

⑤ 시·도지사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7.>

⑥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 지정 절차, 그 밖에 지정·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7.>  
[제목개정 2012. 2. 17.]

제10조의2(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의 범위에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그 밖에 보호·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 <개정 2012. 2. 17., 2018. 12. 24., 2019. 11. 26.>

③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3. 5.]

제11조 삭제 <2012. 2. 17.>

제12조 삭제 <2012. 2. 17.>

제13조(전통사찰보존지의 보호) ①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면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전통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제목개정 2012. 2. 17.]

제14조(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전통사찰의 소유로서 전법(傳法)에 제공되는 전통사찰보존지의 건조물과 토지는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 외에는 제4조에 따른 등록 후에 발생

한 사법(私法)상의 금전 채권으로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2. 2. 17.>

제15조(주지의 재산 취득 금지)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제15조의2(통지 사항)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전통사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가 변경된 경우
2. 전통사찰에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2. 2. 17.]

제16조 삭제 <2012. 2. 17.>

제17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제2항(주지의 신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제18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19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17.]

제20조(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7., 2018. 12. 24.>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1.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한 자

부칙 <제16596호, 2019. 11. 26.> (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률 제16057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제2조제3항”을 “제2조제4항”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록 2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044-203-2312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조 삭제 <2012. 8. 13.>

제3조(전통사찰의 지정 절차) ① 삭제 <2012. 8. 13.>

②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는 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3.>

1. 지정신청 사유서

2. 재산 목록 및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2의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통사찰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려면 승려, 학계 및 문화예술계 등에 종사하는 사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목개정 2012. 8. 13.]

제4조(전통사찰의 등록 절차)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통사찰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2., 2012. 8. 13., 2015. 12. 30., 2019. 7.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지에 관한 자료

가. 사찰이 속한 단체가 있는 경우 : 그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와 대표자의 직인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

나. 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 : 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찰의 재산 목록

3. 삭제 <2012. 8. 13.>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전통사찰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전통사찰의 주지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 사항과 변경등록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찰의 주지나 사찰이 속한 단체의 대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 8. 13.>

제5조(전통사찰의 지정해제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제3조제4항에 따른 사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해제) ①법 제4조에 따라 지정·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해당 지형도를 검토하여 그 전통사찰을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3.>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면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그 지형도가 잘못된 경우
2. 필요한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이 포함된 경우

③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검토한 후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13.> [제목개정 2012. 8. 13.]

제7조(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허용되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8. 13.>

1. 불교 의식구(儀式具), 불교서적, 불교서화 및 사진, 불교공예품 등 불교문화와 관련된 상품과 사찰에서 생산하는 토산품의 판매

2. 전통한지, 전통문양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 및 전통다원의 운영

3. 신도의 수행, 교육, 포교, 복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운영

제8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허가신청 절차)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허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해제)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하 “역사문화보존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범위는 전통사찰보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로 한다. <개정 2012. 8. 13., 2014. 12. 9.>

② 시·도지사는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주민과 전통사찰의 주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4. 12. 9.>

③시·도지사가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려면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형도 도면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④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6. 9., 2014. 12. 9.>

1. 도로·철도의 건설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土石)의 채취
5.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변경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

⑤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9.>

1. 사업목적
2. 사업시행 예정지역
3.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4.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용도

⑥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그 사실(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형도 도면을 포함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13., 2014. 12. 9.>

[제목개정 2012. 8. 13.]

제11조(조사·연구 및 문화행사의 지원범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사찰과 보유 문화재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
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화행사

[전문개정 2012. 8. 13.]

제11조의2(통지 사항)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통지서에 적어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13.]

제12조(보조금 관리 등) 법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8. 13.>

제13조(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경우에는 현상변경(現狀變更)에 관한 허가서 1부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3.>

제14조(서식)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등의 서식과 구비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4. 12. 9.]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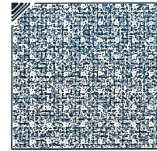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록 3 > 전국 전통사찰 현황 (2021. 1월말, 문화체육관광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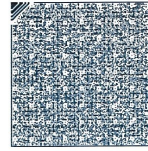


수신 영진관광문화협동조합 이사장

(경유)

제목 민원(1BA-2103-0581449) 처리결과 안내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서신 민원(신청번호 1BA-2103-0581449, 영진관광문화협동조합 2021-13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2020년말 기준 전국의 전통사찰 현황과 불교 종단별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말 기준 전국 전통사찰 현황
      - 2020년말 기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은 전국 972개이며, 상세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 2020년말 기준 전국 불교 종단별 현황
      - 「대한민국헌법」 제20조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우리 부에 종교단체를 신고 또는 등록하는 제도가 없어, 요청하신 자료는 존재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불교 종단을 포함한 종교계 일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우리 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인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을 붙임으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중무1담당관실 노현철 주무관(044-203-23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붙임 1. 전통사찰 현황 자료 1부.  
2.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 1부(별첨). 끝.



문화체육관광부



주무관 노현철 서기관 정윤찬 종무1담당관 전결 2021. 3. 15.  
합조자 강성태

시행 종무1담당관-979 (2021. 3. 15.)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어진동 650 / <http://mcst.go.kr>

전화번호 044-203-2315 팩스번호 044-203-3462 / [hcroh@korea.kr](mailto:hcroh@korea.kr) / 비공개(6)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2 - 2



| 연번 | 행정구<br>역 | 사찰명  | 주 소                   | 종 단  |
|----|----------|------|-----------------------|------|
| 1  | 서울       | 봉은사  | 강남구 봉은사로 531          | 조계종  |
| 2  | 서울       | 불국사  | 강남구 광평로 10길 30-71     | 태고종  |
| 3  | 서울       | 화계사  | 강북구 화계사길 117          | 조계종  |
| 4  | 서울       | 삼성암  | 강북구 인수봉로 23길 235      | 조계종  |
| 5  | 서울       | 도선사  | 강북구 삼양로 173길 504      | 조계종  |
| 6  | 서울       | 보광사  | 강북구 삼양로 145길 177      | 선학원  |
| 7  | 서울       | 용덕사  | 강북구 삼양로 179길 209-81   | 조계종  |
| 8  | 서울       | 신검사  | 강북구 삼양로 179길 - 209-44 | 법화선종 |
| 9  | 서울       | 본원정사 | 강북구 삼각산로 1            | 대각회  |
| 10 | 서울       | 약사사  | 강서구 금남화로 17길 261      | 조계종  |
| 11 | 서울       | 미타사  | 강서구 개화동로 13길 -56-33   | 조계종  |
| 12 | 서울       | 법성사  | 강서구 등촌로 39가길 103      | 조계종  |
| 13 | 서울       | 관음사  | 관악구 승방1길 109-80(남현동)  | 조계종  |
| 14 | 서울       | 약수사  | 서울시 약수암 1길 28(삼성동)    | 조계종  |
| 15 | 서울       | 자운암  | 서울시 신림동 194-1 (대학동)   | 태고종  |
| 16 | 서울       | 성주암  | 서울시 신림로 15-250 (신림동)  | 태고종  |
| 17 | 서울       | 영화사  | 서울시 광진구 아찬산로 107(구의동) | 조계종  |
| 18 | 서울       | 호암사  | 서울시 금천구 호암로 278(시흥동)  | 조계종  |
| 19 | 서울       | 학림사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 152     | 조계종  |
| 20 | 서울       | 용굴암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 154-1   | 조계종  |
| 21 | 서울       | 학도암  |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산 102    | 조계종  |
| 22 | 서울       | 도안사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145길 99   | 조계종  |
| 23 | 서울       | 원통사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69길 520  | 조계종  |
| 24 | 서울       | 천축사  | 서울시 도봉구 도봉산길 92-2     | 조계종  |
| 25 | 서울       | 만월암  | 서울시 도봉구 도봉산길 92-4     | 조계종  |
| 26 | 서울       | 청량사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61     | 조계종  |
| 27 | 서울       | 연화사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09-1    | 조계종  |
| 28 | 서울       | 지장사  |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210 현충원내  | 조계종  |
| 29 | 서울       | 사자암  | 서울시 동작구 국사봉1길 235-14  | 조계종  |
| 30 | 서울       | 달마사  |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 50-26     | 조계종  |
| 31 | 서울       | 옥천암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8        | 조계종  |
| 32 | 서울       | 대성사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28길 49 | 대각회  |
| 33 | 서울       | 미타사  |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395       | 조계종  |

|    |    |      |                        |     |
|----|----|------|------------------------|-----|
| 34 | 서울 | 홍천사  |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595        | 조계종 |
| 35 | 서울 | 적조사  |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593        | 조계종 |
| 36 | 서울 | 미타사  |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3가 51       | 조계종 |
| 37 | 서울 | 보문사  |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3가 168      | 보문종 |
| 38 | 서울 | 정법사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        | 선학원 |
| 39 | 서울 | 개운사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산 4-11  | 조계종 |
| 40 | 서울 | 봉국사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637        | 조계종 |
| 41 | 서울 | 경국사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763        | 조계종 |
| 42 | 서울 | 내원사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산 1-1      | 조계종 |
| 43 | 서울 | 수국사  |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23길 8-5   | 조계종 |
| 44 | 서울 | 진관사  | 서울시 은평구 진관길 73         | 조계종 |
| 45 | 서울 | 삼천사  |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54길 127    | 조계종 |
| 46 | 서울 | 용암사  | 서울시 은평구 대서문길 126       | 선학원 |
| 47 | 서울 | 심택사  |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0 나길 5-23 | 조계종 |
| 48 | 서울 | 조계사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견지동)   | 조계종 |
| 49 | 서울 | 금선사  | 서울시 종로구 비봉 137(구기동)    | 조계종 |
| 50 | 서울 | 승가사  | 서울시 종로구 비봉4길 213(구기동)  | 조계종 |
| 51 | 서울 | 문수사  | 서울시 종로구 비봉2길 304(구기동)  | 조계종 |
| 52 | 서울 | 인왕사  | 종로구 통일로 18가길 17(무악동)   | 인왕종 |
| 53 | 서울 | 대각사  | 종로구 율곡로 10길 87(봉익동)    | 조계종 |
| 54 | 서울 | 청룡사  | 종로구 동망산길 65 (송인동)      | 조계종 |
| 55 | 서울 | 묘각사  | 종로구 종로 63가길 31(송인동)    | 관음종 |
| 56 | 서울 | 감로암  | 종로구 율곡로 23길 16 (충신동)   | 조계종 |
| 57 | 서울 | 일선사  | 종로구 평창6길 79-141 (평창동)  | 선학원 |
| 58 | 서울 | 소림사  | 종로구 세검정로 241-3 (홍지동)   | 조계종 |
| 59 | 서울 | 안양암  | 종로구 창신5길 61 (창신1동)     | 정안종 |
| 60 | 서울 | 봉원사  |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산 1번지     | 태고종 |
| 61 | 부산 | 청량사  |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445        | 조계종 |
| 62 | 부산 | 국정사  | 부산시 금정구 금성동 397        | 조계종 |
| 63 | 부산 | 정수암  | 부산시 금정구 북문로 160        | 조계종 |
| 64 | 부산 | 미륵사  | 부산시 금정구 북문로 126        | 조계종 |
| 65 | 부산 | 범어사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546        | 조계종 |
| 66 | 부산 | 안적사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692     | 조계종 |
| 67 | 부산 | 월영사  | 기장군 일광면 황계리 산 28-1     | 승가종 |
| 68 | 부산 | 묘관음사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산 1    | 선학원 |

|     |    |      |                       |      |
|-----|----|------|-----------------------|------|
| 69  | 부산 | 척관암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606-1 | 조계종  |
| 70  | 부산 | 장안사  |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598       | 조계종  |
| 71  | 부산 | 고불사  |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319       | 조계종  |
| 72  | 부산 | 해광사  |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473-1     | 조계종  |
| 73  | 부산 | 불곡암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49-14    | 조계종  |
| 74  | 부산 | 성암사  | 부산시 남구 문현1동 산74-1     | 조계종  |
| 75  | 부산 | 묘심사  | 부산시 동구 수정동 1174-8     | 조계종  |
| 76  | 부산 | 연등사  | 부산시 동구 좌천동 839-3      | 조계종  |
| 77  | 부산 | 금수사  | 부산시 동구 초량동 843        | 원효종  |
| 78  | 부산 | 금정선원 | 부산 동래구 온천1동 282       | 선학원  |
| 79  | 부산 | 법륜사  | 부산 동래구 칠산동 239-2      | 조계종  |
| 80  | 부산 | 선광사  | 부산 사상구 덕포2동 21-2      | 법화종  |
| 81  | 부산 | 약수암  | 부산 사상구 덕포2동 산 21-1    | 법화종  |
| 82  | 부산 | 운수사  | 부산 사상구 모라3동 산 5       | 조계종  |
| 83  | 부산 | 내원정사 | 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 산 3-5   | 조계종  |
| 84  | 부산 | 영주암  | 부산 수영구 망미1동 950       | 조계종  |
| 85  | 부산 | 옥련서원 | 부산 수영구 민락동 372-2      | 옥련선원 |
| 86  | 부산 | 금용암  | 부산 연제구 거재2동 1396-2    | 조계종  |
| 87  | 부산 | 감천사  | 부산 연제구 연산4동 1112      | 조계종  |
| 88  | 부산 | 해원정사 | 부산 연제구 연산4동 113-1     | 조계종  |
| 89  | 부산 | 마하사  | 부산 연제구 연산7동 2039      | 조계종  |
| 90  | 부산 | 복천사  | 부산 영도구 신선동 3가 산6-1    | 조계종  |
| 91  | 부산 | 광명사  | 부산시 진구 범천2동 1534-1    | 조계종  |
| 92  | 부산 | 선암사  | 부산시 진구 부암3동 628       | 조계종  |
| 93  | 부산 | 해운정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2로 40-6    | 선학원  |
| 94  | 부산 | 관음정사 |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3동 산 131-5 | 조계종  |
| 95  | 대구 | 안일사  | 대구시 남구 앞산순환로 440(대명동) | 조계종  |
| 96  | 대구 | 법장사  | 대구시 남구 고산3길 96-4(봉덕동) | 조계종  |
| 97  | 대구 | 은적사  | 대구시 남구 앞산순환로 574-120  | 조계종  |
| 98  | 대구 | 임휴사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321      | 조계종  |
| 99  | 대구 | 운홍사  | 달성군 가창면 헐티로 1068      | 조계종  |
| 100 | 대구 | 남지장사 | 달성군 가창면 남지장사길 95      | 조계종  |
| 101 | 대구 | 용연사  | 달성군 옥포면 용연사길 260      | 조계종  |
| 102 | 대구 | 유가사  | 달성군 유가면 유가사길 161      | 조계종  |
| 103 | 대구 | 소재사  | 달성군 유가면 휴양림길 228      | 조계종  |

|     |    |       |                        |     |
|-----|----|-------|------------------------|-----|
| 104 | 대구 | 현풍포교당 |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27길 54-6  | 조계종 |
| 105 | 대구 | 용문사   | 달성군 화원읍 화원휴양림길 132     | 조계종 |
| 106 | 대구 | 화장사   |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522길 41    | 조계종 |
| 107 | 대구 | 관암사   | 대구시 동구 능성동 613-35      | 태고종 |
| 108 | 대구 | 관음사   | 대구시 동구 도동 672          | 조계종 |
| 109 | 대구 | 동화사   | 대구시 동구 도학동 35          | 조계종 |
| 110 | 대구 | 북지장사  | 대구시 동구 도학동 620         | 조계종 |
| 111 | 대구 | 부인사   | 대구시 동구 신무동 356-1       | 조계종 |
| 112 | 대구 | 파계사   | 대구시 동구 중대동 7           | 조계종 |
| 113 | 인천 | 청련사   | 강화읍 고비고개로 188번길 112    | 조계종 |
| 114 | 인천 | 청수암   | 강화군 강화읍 청하동길 36번길 62   | 조계종 |
| 115 | 인천 | 전등사   |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 조계종 |
| 116 | 인천 | 적석사   | 강화군 내가면 연촌길 181        | 조계종 |
| 117 | 인천 | 보문사   | 강화군 삼산남로 823번길 44      | 조계종 |
| 118 | 인천 | 백련사   | 강화군 하점면 고려산로 61번길 270  | 조계종 |
| 119 | 인천 | 정수사   | 강화 화도면 해안남로 1258번길 142 | 조계종 |
| 120 | 인천 | 용궁사   | 인천시 중구 운남로 199-1       | 태고종 |
| 121 | 인천 | 홍륜사   | 인천 연수구 청량로 70번길 40-17  | 관음종 |
| 122 | 광주 | 원각사   | 광주시 동구 중앙로 197(금남로4가)  | 조계종 |
| 123 | 광주 | 약사사   | 광주시 동구 증심사길 160번길 89   | 조계종 |
| 124 | 광주 | 증심사   | 광주시 동구 증심사길 117(운림동)   | 조계종 |
| 125 | 광주 | 원효사   | 광주시 북구 무등로 1514-35     | 조계종 |
| 126 | 광주 | 신광사   | 광주시 북구 삼정로 66번길 42-10  | 조계종 |
| 127 | 광주 | 문빈정사  | 광주시 동구 증심사길 81(운림동)    | 조계종 |
| 128 | 대전 | 고산사   | 대전시 동구 대전로 316번길 205   | 조계종 |
| 129 | 대전 | 심광사   | 대전시 동구 대전로 592-20      | 선학원 |
| 130 | 대전 | 내원사   | 대전시 서구 배재로 197번길 200   | 태고종 |
| 131 | 대전 | 북전암   | 대전시 중구 부사로 70          | 선학원 |
| 132 | 대전 | 중암사   | 대전시 중구 정생로 403         | 조계종 |
| 133 | 대전 | 비래사   | 대전시 대덕구 비래골길 47-74     | 조계종 |
| 134 | 울산 | 동축사   | 울산시 동구 옥류로 93(동부동)     | 조계종 |
| 135 | 울산 | 월봉사   | 울산시 동구 봉수로 55(화정동)     | 조계종 |
| 136 | 울산 | 신흥사   | 울산시 북구 대안4길 280(대안동)   | 조계종 |
| 137 | 울산 | 옥천암   | 울산시 북구 무룡로 225(연암동)    | 조계종 |
| 138 | 울산 | 도솔암   | 울산시 북구 화봉15길 77(화봉동)   | 조계종 |

|     |    |      |                        |     |
|-----|----|------|------------------------|-----|
| 139 | 울산 | 석남사  | 울주군 상북면 석남로 557        | 조계종 |
| 140 | 울산 | 내원암  | 울주군 온양읍 대운상대길 382      | 조계종 |
| 141 | 울산 | 문수사  | 울주군 청량면 문수산길 514       | 조계종 |
| 142 | 울산 | 해남사  | 울산시 중구 기상대길 13(북정동)    | 조계종 |
| 143 | 울산 | 백양사  | 울산시 중구 백양로 67(성안동)     | 조계종 |
| 144 | 울산 | 관음사  | 울산시 중구 신기16길 62(태화동)   | 조계종 |
| 145 | 세종 | 비암사  | 세종시 전의면 다방리 4          | 조계종 |
| 146 | 세종 | 연화사  | 세종시 서면 월하리 1047        | 태고종 |
| 147 | 세종 | 관음암  |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 산2-4      | 태고종 |
| 148 | 세종 | 청안사  | 세종시 전의면 양곡리 산33-1      | 조계종 |
| 149 | 세종 | 신광사  |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139       | 선학원 |
| 150 | 세종 | 황룡사  | 세종시 동면 명학리 산31-1       | 조계종 |
| 151 | 세종 | 영평사  | 세종시 장기면 산학리 441        | 조계종 |
| 152 | 세종 | 학림사  | 세종시 서면 신대리 268-1       | 선학원 |
| 153 | 경기 | 대원사  |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로 21-123  | 조계종 |
| 154 | 경기 | 현등사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등사길 34    | 조계종 |
| 155 | 경기 | 국녕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268   | 조계종 |
| 156 | 경기 | 노적사  |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311-35    | 조계종 |
| 157 | 경기 | 무량사  |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184       | 법화종 |
| 158 | 경기 | 봉성암  |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433       | 조계종 |
| 159 | 경기 | 상운사  |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197-22    | 조계종 |
| 160 | 경기 | 아미타사 |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145-63    | 선학원 |
| 161 | 경기 | 중흥사  |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393       | 조계종 |
| 162 | 경기 | 태고사  |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406       | 태고종 |
| 163 | 경기 | 흥국사  | 고양시 덕양구 흥국사길 82        | 조계종 |
| 164 | 경기 | 보광사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41        | 조계종 |
| 165 | 경기 | 연주암  | 경기도 과천시 자하동길 63        | 조계종 |
| 166 | 경기 | 개원사  |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31-73 | 조계종 |
| 167 | 경기 | 극락사  | 광주시 오포읍 양촌길 268-1      | 조계종 |
| 168 | 경기 | 망월사  |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680    | 조계종 |
| 169 | 경기 | 명성암  |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1876-34    | 조계종 |
| 170 | 경기 | 백련암  |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982-118    | 태고종 |
| 171 | 경기 | 장경사  |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676    | 조계종 |
| 172 | 경기 | 수도사  | 광주 도척면 방도길 66번길 148-77 | 조계종 |
| 173 | 경기 | 광은사  | 김포시 대곶면 약암로 872-80     | 조계종 |

|     |    |      |                         |     |
|-----|----|------|-------------------------|-----|
| 174 | 경기 | 금정사  | 김포시 승가로 73(풍무로)         | 조계종 |
| 175 | 경기 | 문수사  |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로 102-33     | 태고종 |
| 176 | 경기 | 수리사  | 군포시 속달로 347-181         | 조계종 |
| 177 | 경기 | 용화사  | 김포시 금포로 1487-5          | 조계종 |
| 178 | 경기 | 견성암  | 남양주 진건읍 진건오남로 390번길 284 | 조계종 |
| 179 | 경기 | 내원암  | 남양주 별내면 순화궁로 909번길 104  | 조계종 |
| 180 | 경기 | 묘적사  | 남양주 와부읍 수례로 661번길 174   | 조계종 |
| 181 | 경기 | 보광사  | 남양주 화도읍 가곡로 198         | 조계종 |
| 182 | 경기 | 봉선사  | 남양주 진접읍 봉선사길 32         | 조계종 |
| 183 | 경기 | 봉영사  | 남양주 진접읍 내각2로 84-77      | 조계종 |
| 184 | 경기 | 불암사  | 남양주 불암산로 190(별내동)       | 조계종 |
| 185 | 경기 | 석천암  | 남양주 불암산로 175(별내동)       | 조계종 |
| 186 | 경기 | 수종사  | 남양주 조안면 북한강로 433번길 186  | 조계종 |
| 187 | 경기 | 천보사  | 남양주 불암산로 97번길 32-200    | 조계종 |
| 188 | 경기 | 홍국사  | 남양주 별내면 덕통로 1071번길 58   | 조계종 |
| 189 | 경기 | 자재암  | 동두천시 평화로 2910번길 406-65  | 조계종 |
| 190 | 경기 | 망경암  |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55번길 72     | 조계종 |
| 191 | 경기 | 봉국사  |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79          | 조계종 |
| 192 | 경기 | 약사사  |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625번길 22   | 여래종 |
| 193 | 경기 | 봉녕사  |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6-54     | 조계종 |
| 194 | 경기 | 수원사  |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00        | 조계종 |
| 195 | 경기 | 청련암  |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335         | 조계종 |
| 196 | 경기 | 팔달사  |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68          | 선학원 |
| 197 | 경기 | 쌍계사  |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171      | 조계종 |
| 198 | 경기 | 화림선원 |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 140       | 선학원 |
| 199 | 경기 | 석남사  | 안성시 금광면 상촌새말길 3-120     | 조계종 |
| 200 | 경기 | 용화사  | 안성시 미양면 법전길 260-31      | 조계종 |
| 201 | 경기 | 운수암  | 안성시 양성면 성하길 80-63       | 조계종 |
| 202 | 경기 | 청룡사  | 안성시 서운면 청룡길 140         | 조계종 |
| 203 | 경기 | 청원사  | 안성시 원곡면 통심길 16-102      | 조계종 |
| 204 | 경기 | 칠장사  |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      | 조계종 |
| 205 | 경기 | 망해암  |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 245         | 조계종 |
| 206 | 경기 | 삼막사  |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478         | 조계종 |
| 207 | 경기 | 안양사  | 안양 만안구 예술공원로 131번길 103  | 태고종 |
| 208 | 경기 | 염불사  | 안양 만안구 예술공원로 245번길 150  | 조계종 |

|     |    |      |                           |     |
|-----|----|------|---------------------------|-----|
| 209 | 경기 | 백화암  | 양주시 부흥로 1325-194          | 조계종 |
| 210 | 경기 | 석굴암  | 양주시 장흥면 석굴암길 519          | 조계종 |
| 211 | 경기 | 회암사  | 양주시 회암사길 281              | 조계종 |
| 212 | 경기 | 대성사  | 양평군 지평면 역말4길 58           | 조계종 |
| 213 | 경기 | 사나사  | 양평군 옥천면 사나사길 329          | 조계종 |
| 214 | 경기 | 상원사  | 양평군 용문면 상원사길 292          | 조계종 |
| 215 | 경기 | 용문사  |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782(신정리)     | 조계종 |
| 216 | 경기 | 대법사  | 여주시 가남읍 안금3길 3-43(안금리)    | 태고종 |
| 217 | 경기 | 대성사  | 여주시 금사면 발림길 89-47         | 법상종 |
| 218 | 경기 | 신록사  | 여주시 신록사길 73(천송동)          | 조계종 |
| 219 | 경기 | 홍왕사  | 여주시 북내면 당전로 345-4         | 조계종 |
| 220 | 경기 | 원심원사 | 연천 신서면 동대로 970번길 32-268   | 조계종 |
| 221 | 경기 | 보적사  | 오산시 독산성로 269번길 144        | 조계종 |
| 222 | 경기 | 동도사  |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어진로 842       | 불이종 |
| 223 | 경기 | 백련사  |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456번길 290   | 조계종 |
| 224 | 경기 | 법륜사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농촌파크로 126     | 조계종 |
| 225 | 경기 | 용덕사  |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71-41    | 조계종 |
| 226 | 경기 | 백운사  | 의왕시 왕곡로 323(왕곡동)          | 조계종 |
| 227 | 경기 | 청계사  | 의왕시 청계로 475(청계동)          | 조계종 |
| 228 | 경기 | 망월사  | 의정부시 망월로 28번길 211-500     | 조계종 |
| 229 | 경기 | 미륵암  | 의정부시 고산로 65번길 94(고산동)     | 조계종 |
| 230 | 경기 | 석림사  | 의정부시 동일로 122번길 177        | 조계종 |
| 231 | 경기 | 성불사  | 의정부시 호국로 1114번길 142       | 조계종 |
| 232 | 경기 | 원효사  | 의정부시 망월로 28번길 356         | 조계종 |
| 233 | 경기 | 회룡사  | 의정부시 전좌로 155번길 262        | 조계종 |
| 234 | 경기 | 신흥사  | 이천 장호원 경충대로 519번길 246-314 | 조계종 |
| 235 | 경기 | 연화정사 | 이천 설성면 설성로 570번길 50-319   | 해동종 |
| 236 | 경기 | 영원사  | 이천 백사면 원적로 869번길 309-52   | 조계종 |
| 237 | 경기 | 영월암  | 이천시 경충대로 2709번길 388       | 조계종 |
| 238 | 경기 | 검단사  |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292-33        | 조계종 |
| 239 | 경기 | 보광사  |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474번길 87      | 조계종 |
| 240 | 경기 | 용상사  | 파주시 월통면 용상골길 403          | 일승종 |
| 241 | 경기 | 용암사  |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742-28        | 조계종 |
| 242 | 경기 | 만기사  | 평택시 진위면 진위로 181-82        | 조계종 |
| 243 | 경기 | 보국사  | 평택시 서탄면 장등안길 38           | 태고종 |

|     |    |     |                      |      |
|-----|----|-----|----------------------|------|
| 244 | 경기 | 서천사 | 평택시 고덕면 방축4길 22-49   | 해동종  |
| 245 | 경기 | 수도사 | 평택시 포승읍 호암길 58       | 조계종  |
| 246 | 경기 | 심복사 | 평택시 현덕면 심복사길 22      | 조계종  |
| 247 | 경기 | 약사사 | 평택시 안중읍 용성3길 120-10  | 조계종  |
| 248 | 경기 | 자비사 | 평택시 팽성읍 동서촌로 137     | 조계종  |
| 249 | 경기 | 왕산사 | 포천시 호병골길 193         | 조계종  |
| 250 | 경기 | 홍룡사 | 포천시 이동면 포화로 236-73   | 조계종  |
| 251 | 경기 | 자인사 |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808    | 조계종  |
| 252 | 경기 | 만의사 | 화성시 동탄면 풀무골로 219     | 조계종  |
| 253 | 경기 | 봉림사 | 화성시 남양읍 주석로 80번길 139 | 조계종  |
| 254 | 경기 | 신흥사 |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7-34   | 조계종  |
| 255 | 경기 | 용주사 | 화성시 용주로 136(송산동)     | 조계종  |
| 256 | 경기 | 석왕사 |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67(원미동) | 조계종  |
| 257 | 경기 | 선법사 | 하남시 서하남로 588번길 125   | 태고종  |
| 258 | 강원 | 낙가사 |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17     | 조계종  |
| 259 | 강원 | 법왕사 |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산366     | 조계종  |
| 260 | 강원 | 관음사 | 강릉시 금학동 29           | 조계종  |
| 261 | 강원 | 용연사 |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821     | 조계종  |
| 262 | 강원 | 보현사 |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산544     | 조계종  |
| 263 | 강원 | 청학사 |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29       | 지암불교 |
| 264 | 강원 | 극락암 |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280      | 조계종  |
| 265 | 강원 | 건봉사 | 고성군 거진읍 낸천리 36       | 조계종  |
| 266 | 강원 | 화암사 |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476      | 조계종  |
| 267 | 강원 | 삼화사 | 동해시 삼화동 산172         | 조계종  |
| 268 | 강원 | 감추사 | 동해시 용정동 502-2        | 태고종  |
| 269 | 강원 | 영은사 |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924      | 조계종  |
| 270 | 강원 | 신흥사 |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332     | 조계종  |
| 271 | 강원 | 천은사 |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785     | 조계종  |
| 272 | 강원 | 삼장사 | 삼척시 성내동 8-1          | 조계종  |
| 273 | 강원 | 신흥사 | 속초시 설악동 170          | 조계종  |
| 274 | 강원 | 계조암 | 속초시 설악동 216          | 조계종  |
| 275 | 강원 | 보광사 | 속초시 동명동 579-2        | 조계종  |
| 276 | 강원 | 진전사 |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124-5    | 조계종  |
| 277 | 강원 | 낙산사 |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       | 조계종  |
| 278 | 강원 | 홍련암 |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산5-2     | 조계종  |



|     |    |      |                      |     |
|-----|----|------|----------------------|-----|
| 279 | 강원 | 영혈사  | 양양군 양양읍 파일이리 산323    | 조계종 |
| 280 | 강원 | 명주사  |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488     | 조계종 |
| 281 | 강원 | 법흥사  | 영월군 무릉도원면 법흥리 산5-3   | 조계종 |
| 282 | 강원 | 보덕사  |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110     | 조계종 |
| 283 | 강원 | 금봉암  |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117     | 조계종 |
| 284 | 강원 | 구룡사  | 원주시 소초면 학곡2리 1029    | 조계종 |
| 285 | 강원 | 입석사  | 원주시 소초면 홍양3리 산1      | 조계종 |
| 286 | 강원 | 상원사  | 원주시 신림면 성남2리 1060    | 조계종 |
| 287 | 강원 | 영천사  | 원주시 태장1동 122-1       | 조계종 |
| 288 | 강원 | 영원사  | 원주시 관부면 금대리 1388     | 조계종 |
| 289 | 강원 | 국형사  | 원주시 행구동 98           | 조계종 |
| 290 | 강원 | 보문사  | 원주시 행구동 90-2         | 조계종 |
| 291 | 강원 | 백담사  | 인제군 북면 용대2리 690      | 조계종 |
| 292 | 강원 | 오세암  |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75       | 조계종 |
| 293 | 강원 | 봉정암  |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76       | 조계종 |
| 294 | 강원 | 백련정사 |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383     | 조계종 |
| 295 | 강원 | 정암사  | 정선군 고한읍 산213         | 조계종 |
| 296 | 강원 | 도피안사 |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450      | 조계종 |
| 297 | 강원 | 심원사  | 철원군 동송읍 상로리 72-1     | 조계종 |
| 298 | 강원 | 청평사  |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674      | 조계종 |
| 299 | 강원 | 상원사  |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54-3     | 조계종 |
| 300 | 강원 | 극락사  | 평창군 평창읍 중리 219-1     | 조계종 |
| 301 | 강원 | 월정사  |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1     | 조계종 |
| 302 | 강원 | 수타사  | 홍천군 동면 덕치리 산9        | 조계종 |
| 303 | 강원 | 쌍계사  | 홍천군 내촌면 서곡리 19       | 조계종 |
| 304 | 강원 | 봉복사  |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138      | 태고종 |
| 305 | 강원 | 보광사  | 횡성군 횡성읍 남산리 72-5     | 조계종 |
| 306 | 충북 | 용화사  |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16-1    | 조계종 |
| 307 | 충북 | 보살사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7        | 조계종 |
| 308 | 충북 | 북천암  | 청주시 상당구 수동 5-2       | 태고종 |
| 309 | 충북 | 보현사  |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산25      | 태고종 |
| 310 | 충북 | 연화사  |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395-29   | 태고종 |
| 311 | 충북 | 청룡사  |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 507      | 태고종 |
| 312 | 충북 | 화림사  | 청주 상당구 가덕면 병암리 산20-1 | 태고종 |
| 313 | 충북 | 백족사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한계리 1    | 태고종 |

|     |    |       |                        |       |
|-----|----|-------|------------------------|-------|
| 314 | 충북 | 안심사   |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사동리 271    | 조계종   |
| 315 | 충북 | 동화사   |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문동리 150    | 태고종   |
| 316 | 충북 | 월리사   | 청주 상당 문의면 염티소전로 55-100 | 조계종   |
| 317 | 충북 | 현암사   |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하석리 39-1   | 조계종   |
| 318 | 충북 | 운용사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용리 274    | 태고종   |
| 319 | 충북 | 단호사   | 충주시 단월동 455            | 태고종   |
| 320 | 충북 | 정심사   | 충주시 단월동 2-14           | 태고종   |
| 321 | 충북 | 대원사   | 충주시 지현동 269            | 조계종   |
| 322 | 충북 | 창룡사   | 충주시 고든곶길 63-89         | 조계종   |
| 323 | 충북 | 봉학사   |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산73       | 태고종   |
| 324 | 충북 | 청룡사   |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561-1      | 법화종   |
| 325 | 충북 | 백운암   |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223-2      | 조계종   |
| 326 | 충북 | 신흥사   | 충주시 엄정면 신안리 산3-6       | 법화종   |
| 327 | 충북 | 석종사   | 충주시 직동 148-1           | 조계종   |
| 328 | 충북 | 미륵세계사 |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사지길 150    | 조계종   |
| 329 | 충북 | 북천사   | 제천시 교동 140-25          | 불교육주회 |
| 330 | 충북 | 원각사   | 제천시 남천동 967            | 태고종   |
| 331 | 충북 | 장락사   | 제천시 장락동 64             | 선학원   |
| 332 | 충북 | 무암사   |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39길 285   | 조계종   |
| 333 | 충북 | 고산사   | 제천시 덕산면 월악로9길 113      | 조계종   |
| 334 | 충북 | 신록사   |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803-5      | 조계종   |
| 335 | 충북 | 백련사   |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325        | 조계종   |
| 336 | 충북 | 월명사   |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719-2      | 태고종   |
| 337 | 충북 | 강천사   |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산79-6      | 선학원   |
| 338 | 충북 | 정방사   |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161-1      | 조계종   |
| 339 | 충북 | 덕주사   |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3          | 조계종   |
| 340 | 충북 | 한산사   | 제천시 남천동 1020           | 조계종   |
| 341 | 충북 | 경은사   | 제천시 백운면 금봉로 276        | 조계종   |
| 342 | 충북 | 옥천사   | 제천시 수산면 월악로 3739-30    | 조계종   |
| 343 | 충북 | 법주사   |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09       | 조계종   |
| 344 | 충북 | 수정암   |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09       | 조계종   |
| 345 | 충북 | 상환암   |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21     | 조계종   |
| 346 | 충북 | 북천암   |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9     | 조계종   |
| 347 | 충북 | 동 암   |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      | 조계종   |
| 348 | 충북 | 중사자암  |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6     | 조계종   |

|     |    |      |                       |       |
|-----|----|------|-----------------------|-------|
| 349 | 충북 | 상고암  |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     | 조계종   |
| 350 | 충북 | 탈골암  |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2    | 조계종   |
| 351 | 충북 | 여적암  |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 1-1    | 조계종   |
| 352 | 충북 | 관음암  |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658-191 | 조계종   |
| 353 | 충북 | 구절사  | 옥천군 군서면 상중리 산31-4     | 조계종   |
| 354 | 충북 | 가산사  | 옥천군 안내면 답양리 543       | 조계종   |
| 355 | 충북 | 대성사  |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297-6     | 태고종   |
| 356 | 충북 | 송림사  |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08-4     | 조계종   |
| 357 | 충북 | 용암사  |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산51-4     | 조계종   |
| 358 | 충북 | 대성사  |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98-4      | 태고종   |
| 359 | 충북 | 문수암  |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127-1     | 조계종   |
| 360 | 충북 | 영암사  |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238       | 선교종   |
| 361 | 충북 | 영국사  | 영동군 양산면 영국동길 225-35   | 조계종   |
| 362 | 충북 | 금성사  |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36-2     | 조계종   |
| 363 | 충북 | 중화사  | 영동군 영동읍 화신로 529       | 조계종   |
| 364 | 충북 | 지장사  |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 524-4     | 선교종   |
| 365 | 충북 | 영천사  | 영동군 황간면 신흥리 132-1     | 조계종   |
| 366 | 충북 | 반야사  |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151-1     | 조계종   |
| 367 | 충북 | 영축선원 | 영동군 매곡면 강전리 704-5     | 선학원   |
| 368 | 충북 | 미륵사  |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산1-5      | 조계혜능종 |
| 369 | 충북 | 보타사  |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산63-64    | 태고종   |
| 370 | 충북 | 광덕사  |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산21-2     | 법화종   |
| 371 | 충북 | 성림사  |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39        | 태고종   |
| 372 | 충북 | 용화사  |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584-1     | 조계종   |
| 373 | 충북 | 대흥사  |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산33-8     | 조계종   |
| 374 | 충북 | 문수암  |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 267-1     | 조계종   |
| 375 | 충북 | 영수사  | 진천군 초평면 영구리 542       | 조계종   |
| 376 | 충북 | 개심사  |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428-1     | 조계종   |
| 377 | 충북 | 보광사  |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산2-30     | 태고종   |
| 378 | 충북 | 백운사  | 괴산군 사리면 소매리 산20       | 선학원   |
| 379 | 충북 | 채운암  |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412       | 조계종   |
| 380 | 충북 | 공림사  |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공림길 104    | 조계종   |
| 381 | 충북 | 석천암  |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산24       | 조계종   |
| 382 | 충북 | 각연사  |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38        | 조계종   |
| 383 | 충북 | 대경사  |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566       | 태고종   |

|     |    |       |                       |     |
|-----|----|-------|-----------------------|-----|
| 384 | 충북 | 미타사   |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874-2     | 조계종 |
| 385 | 충북 | 수도사   | 음성군 소이면 충도리 78        | 태고종 |
| 386 | 충북 | 화암사   | 음성군 원남면 덕정리 442-2     | 조계종 |
| 387 | 충북 | 가섭사   |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산1-2      | 조계종 |
| 388 | 충북 | 원통암   |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 산28       | 조계종 |
| 389 | 충북 | 구인사   |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 천태종 |
| 390 | 충북 | 미륵대홍사 | 단양군 대강면 황정산로 423      | 조계종 |
| 391 | 충남 | 신원사   |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8         | 조계종 |
| 392 | 충남 | 갑 사   |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        | 조계종 |
| 393 | 충남 | 영은사   | 공주시 금성동 11-3          | 조계종 |
| 394 | 충남 | 동학사   |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9       | 조계종 |
| 395 | 충남 | 마곡사   |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       | 조계종 |
| 396 | 충남 | 동혈사   |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 271       | 조계종 |
| 397 | 충남 | 신안사   | 금산군 제원면 신안사로 970      | 조계종 |
| 398 | 충남 | 태고사   | 금산군 진산면 청림동로 440      | 태고종 |
| 399 | 충남 | 보석사   | 금산군 남이면 보석사1길 30      | 조계종 |
| 400 | 충남 | 서대사   |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20     | 조계종 |
| 401 | 충남 | 영천암   | 금산군 남이면 보석사1길 148     | 조계종 |
| 402 | 충남 | 미륵사   | 금산군 복수면 동구들길 163      | 선학원 |
| 403 | 충남 | 용암사   | 논산시 강경읍 강경로 66번길 28   | 조계종 |
| 404 | 충남 | 관촉사   | 논산시 관촉로 1번길 25        | 조계종 |
| 405 | 충남 | 쌍계사   | 논산시 양촌면 중산길 192       | 조계종 |
| 406 | 충남 | 송불암   | 논산시 연산면 연산1길 5-5      | 조계종 |
| 407 | 충남 | 개태사   |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 2614-11   | 조계종 |
| 408 | 충남 | 영랑사   |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529번지 일원  | 조계종 |
| 409 | 충남 | 영답사   | 당진시 면천면 성하리 560번지 일원  | 조계종 |
| 410 | 충남 | 보덕사   | 당진시 석문면 삼화리 207-36번지  | 조계종 |
| 411 | 충남 | 윤창암   | 보령시 남포면 창동1길 233-25   | 법륜종 |
| 412 | 충남 | 증대암   | 보령시 미산면 판이로 1178-39   | 조계종 |
| 413 | 충남 | 금강암   | 보령시 미산면 보령호로 1139-102 | 조계종 |
| 414 | 충남 | 백운사   | 보령시 성주면 심원계곡로 259-200 | 조계종 |
| 415 | 충남 | 선림사   | 보령시 오천면 충청수영로 521-64  | 조계종 |
| 416 | 충남 | 금지암   | 부여군 내산면 금지리 404-1     | 조계종 |
| 417 | 충남 | 조왕사   |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0-3      | 조계종 |
| 418 | 충남 | 고란사   |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1        | 조계종 |

|     |    |     |                        |     |
|-----|----|-----|------------------------|-----|
| 419 | 충남 | 정각사 | 부여군 석성면 정각리 354        | 조계종 |
| 420 | 충남 | 무량사 |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116        | 조계종 |
| 421 | 충남 | 무진암 |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124        | 조계종 |
| 422 | 충남 | 대조사 |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 761        | 조계종 |
| 423 | 충남 | 오덕사 | 부여군 충화면 오덕리 284        | 조계종 |
| 424 | 충남 | 화암사 | 부여군 외산면 화성리 478-1      | 태고종 |
| 425 | 충남 | 개심사 |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 조계종 |
| 426 | 충남 | 부석사 | 서산시 부석면 부석사길 243       | 조계종 |
| 427 | 충남 | 서광사 | 서산시 부춘산1로 44(읍내동)      | 조계종 |
| 428 | 충남 | 천장사 | 서산시 고북면 고요동1길 93-98    | 조계종 |
| 429 | 충남 | 망일사 | 서산시 대산읍 망일산로 831-134   | 조계종 |
| 430 | 충남 | 문수사 | 서산시 운산면 운수골길 201       | 조계종 |
| 431 | 충남 | 일락사 | 서산시 해미면 일락골길 501       | 조계종 |
| 432 | 충남 | 송덕암 |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602-1      | 태고종 |
| 433 | 충남 | 죽 사 | 서산시 인지면 갓고개길 242-24    | 조계종 |
| 434 | 충남 | 간월암 |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 1길 119-29  | 조계종 |
| 435 | 충남 | 영수암 | 서천군 중천면 충서로 143번길      | 조계종 |
| 436 | 충남 | 봉서사 | 서천군 한산면 건지산길 122       | 조계종 |
| 437 | 충남 | 봉곡사 | 아산시 도송로 632번길 138(유곡리) | 조계종 |
| 438 | 충남 | 용담사 |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산2-11      | 태고종 |
| 439 | 충남 | 인취사 | 아산시 서부남로 790번길 20-52   | 조계종 |
| 440 | 충남 | 세심사 |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221        | 조계종 |
| 441 | 충남 | 오봉사 | 아산시 설화산길 156(장춘동)      | 조계종 |
| 442 | 충남 | 대련사 | 예산군 광시면 동산2길 119       | 조계종 |
| 443 | 충남 | 수덕사 |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 조계종 |
| 444 | 충남 | 보덕사 | 예산군 덕산면 가야산로 400-74    | 조계종 |
| 445 | 충남 | 법륜사 |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835-45    | 법륜종 |
| 446 | 충남 | 화암사 | 예산군 심양면 용궁1길 21-29     | 조계종 |
| 447 | 충남 | 향천사 | 예산군 예산읍 향천사로 117-20    | 조계종 |
| 448 | 충남 | 광덕사 |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사길 30    | 조계종 |
| 449 | 충남 | 은석사 | 천안시 동남구 북면 은지리 산 1-1   | 조계종 |
| 450 | 충남 | 만일사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홍사길 503   | 조계종 |
| 451 | 충남 | 성불사 | 천안시 동남구 성불사길 144       | 조계종 |
| 452 | 충남 | 장곡사 |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241        | 조계종 |
| 453 | 충남 | 정혜사 | 청양군 장평면 상지길 165-10     | 선학원 |

|     |    |     |                         |       |
|-----|----|-----|-------------------------|-------|
| 454 | 충남 | 봉정사 |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산113        | 조계종   |
| 455 | 충남 | 태국사 |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1078        | 조계종   |
| 456 | 충남 | 태을암 |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817-1       | 조계종   |
| 457 | 충남 | 홍주사 | 태안군 태안읍 상옥리 1154        | 조계종   |
| 458 | 충남 | 고산사 | 홍성군 결성면 만해로 127번길 35-99 | 조계종   |
| 459 | 충남 | 정암사 | 홍성군 광천읍 오서길 625         | 조계종   |
| 460 | 충남 | 석련사 | 홍성군 구항면 구성북로 160번길 76   | 조계종   |
| 461 | 충남 | 내원사 | 홍성군 장곡면 장곡길 438번길 435   | 조계종   |
| 462 | 충남 | 산혜암 |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185-22     | 조계종   |
| 463 | 충남 | 용봉사 | 홍성군 홍북읍 용봉산1길 109       | 조계종   |
| 464 | 충남 | 구절암 | 홍성군 구항면 거북로218번길 163    | 태고종   |
| 465 | 전북 | 문수사 | 고창군 고수면 칠성길 135         | 조계종   |
| 466 | 전북 | 상원사 | 고창군 고창읍 상원사길 214        | 조계종   |
| 467 | 전북 | 용화사 | 고창군 대산면 연화길 88-56       | 태고종   |
| 468 | 전북 | 소요사 | 고창군 부안면 질마재로 226-236    | 태고종   |
| 469 | 전북 | 도솔암 | 고창군 아산면 도솔길 294         | 조계종   |
| 470 | 전북 | 석상암 |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42-73     | 조계종   |
| 471 | 전북 | 선운사 |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조계종   |
| 472 | 전북 | 참당암 | 고창군 아산면 도솔길 194-77      | 조계종   |
| 473 | 전북 | 지장암 | 군산시 개정면 원아산2길 135       | 태고종   |
| 474 | 전북 | 불주사 | 군산시 나포면 군둔길 226         | 조계종   |
| 475 | 전북 | 운심사 | 군산시 대야면 남흥길 90-28       | 태고종   |
| 476 | 전북 | 상주사 | 군산시 서수면 함안로 544         | 조계종   |
| 477 | 전북 | 성흥사 |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산26-5       | 태고종   |
| 478 | 전북 | 은적사 | 군산시 설립3길 49(소룡동)        | 조계종   |
| 479 | 전북 | 보천사 | 군산시 서수면 내무장길 249        | 조계종   |
| 480 | 전북 | 혜봉사 | 김제시 금구면 양시로 142-13      | 태고종   |
| 481 | 전북 | 학선암 | 김제시 금산면 구정3길 522        | 조계종   |
| 482 | 전북 | 금산사 | 김제시 금산면 모악15길 1         | 조계종   |
| 483 | 전북 | 청룡사 | 김제시 금산면 모악15길 80-122    | 조계종   |
| 484 | 전북 | 쌍룡사 |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1길 70-11     | 태고종   |
| 485 | 전북 | 귀신사 | 김제시 금산면 청도6길 40         | 조계종   |
| 486 | 전북 | 조양사 | 김제시 만경읍 화포3길 63-12      | 태고종   |
| 487 | 전북 | 성모암 | 김제시 만경읍 화포3길 54-9       | 전북대진흥 |
| 488 | 전북 | 원각사 | 김제시 사정거리1길 20(요촌동)      | 태고종   |

|     |    |     |                      |     |
|-----|----|-----|----------------------|-----|
| 489 | 전북 | 용봉사 | 김제시 용지면 봉의로 205      | 태고종 |
| 490 | 전북 | 망해사 | 김제시 진봉면 심포10길 94     | 조계종 |
| 491 | 전북 | 청운사 | 김제시 청하면 청공로 185-80   | 태고종 |
| 492 | 전북 | 문수사 | 김제시 활산5길 158(황산동)    | 조계종 |
| 493 | 전북 | 홍복사 | 김제시 성반길 103(홍사동)     | 조계종 |
| 494 | 전북 | 미륵암 | 남원시 노성로 1188-5(노암동)  | 태고종 |
| 495 | 전북 | 선원사 | 남원시 용성로 151(도통동)     | 조계종 |
| 496 | 전북 | 선국사 | 남원시 산성길 239(산곡동)     | 조계종 |
| 497 | 전북 | 실상사 | 남원시 산내면 입석길 94-129   | 조계종 |
| 498 | 전북 | 귀정사 | 남원시 산동면 대상2길 246     | 조계종 |
| 499 | 전북 | 창덕암 | 남원시 산동면 중절길 108      | 태고종 |
| 500 | 전북 | 승련사 |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675-90  | 선학원 |
| 501 | 전북 | 심경암 | 남원시 탑골길 71(신촌동)      | 관음종 |
| 502 | 전북 | 덕음암 | 남원시 소리길 122-24(어현동)  | 조계종 |
| 503 | 전북 | 대복사 | 남원시 대복사길 61(왕정동)     | 조계종 |
| 504 | 전북 | 연화사 | 남원시 이백면 응령길 168      | 태고종 |
| 505 | 전북 | 용담사 | 남원시 주천면 원천로 165-26   | 태고종 |
| 506 | 전북 | 관음사 | 남원시 보절면 관음사길 82      | 태고종 |
| 507 | 전북 | 극락암 | 남원시 양림길 58-42(어현동)   | 조계종 |
| 508 | 전북 | 백련사 | 남원시 인월면 인월중군길 550    | 조계종 |
| 509 | 전북 | 향산사 | 무주군 무주읍 향한로 27-2     | 선학원 |
| 510 | 전북 | 북고사 | 무주군 무주읍 북고사길 67      | 조계종 |
| 511 | 전북 | 백련사 |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580     | 조계종 |
| 512 | 전북 | 원통사 | 무주군 안성면 원통사로 676     | 조계종 |
| 513 | 전북 | 안국사 | 무주군 적상면 산성로 1050     | 조계종 |
| 514 | 전북 | 월영암 | 부안군 변산면 내변산로 236-180 | 조계종 |
| 515 | 전북 | 성황사 | 부안군 부안읍 서림공원길 92     | 조계종 |
| 516 | 전북 | 개암사 | 부안군 상서면 개암로 248      | 조계종 |
| 517 | 전북 | 내원암 | 부안군 위도면 내원암길 42      | 조계종 |
| 518 | 전북 | 내소사 |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 조계종 |
| 519 | 전북 | 용화사 | 부안군 행안면 미륵골길 43      | 태고종 |
| 520 | 전북 | 실상사 | 부안군 변산면 실상길 122      | 조계종 |
| 521 | 전북 | 만일사 | 순창군 구림면 안심길 103-134  | 조계종 |
| 522 | 전북 | 구암사 | 순창군 북흥면 봉덕길 131-144  | 조계종 |
| 523 | 전북 | 대모암 |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197-22   | 조계종 |

|     |    |     |                      |     |
|-----|----|-----|----------------------|-----|
| 524 | 전북 | 실상암 | 순창군 순창읍 금산로 56       | 조계종 |
| 525 | 전북 | 강천사 | 순창군 팔덕면 강천산길 270     | 조계종 |
| 526 | 전북 | 일광사 | 순창군 적성면 남순로 2168-33  | 태고종 |
| 527 | 전북 | 화암사 | 완주군 경천면 화암사길 271     | 조계종 |
| 528 | 전북 | 대원사 |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243     | 조계종 |
| 529 | 전북 | 학림사 | 완주군 봉동읍 추동로 231      | 조계종 |
| 530 | 전북 | 정수사 | 완주군 상관면 정수사길 18      | 조계종 |
| 531 | 전북 | 위봉사 | 완주군 소양면 위봉길 53       | 조계종 |
| 532 | 전북 | 송광사 |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255-16 | 조계종 |
| 533 | 전북 | 원등사 | 완주군 소양면 원등산길 386     | 조계종 |
| 534 | 전북 | 봉서사 | 완주군 용진읍 봉서안길 313     | 태고종 |
| 535 | 전북 | 안심사 | 완주군 운주면 안심길 372      | 조계종 |
| 536 | 전북 | 사자암 | 익산시 금마면 구룡길 57-125   | 조계종 |
| 537 | 전북 | 심곡사 | 익산시 낭산면 장암길 113      | 조계종 |
| 538 | 전북 | 석불사 | 익산시 삼기면 진북로 273      | 화엄종 |
| 539 | 전북 | 태봉사 | 익산시 삼기면 진북로 347-23   | 태고종 |
| 540 | 전북 | 남원사 | 익산시 여산면 서촌1길 34-3    | 조계종 |
| 541 | 전북 | 백운사 | 익산시 여산면 천호산길 155-23  | 조계종 |
| 542 | 전북 | 문수사 | 익산시 여산면 천호산길 140     | 조계종 |
| 543 | 전북 | 자명사 | 익산시 용안면 을동길 76-12    | 조계종 |
| 544 | 전북 | 송림사 | 익산시 웅포면 백제로 495-57   | 조계종 |
| 545 | 전북 | 상이암 | 임실군 성수면 성수산길 658     | 조계종 |
| 546 | 전북 | 신흥사 | 임실군 관촌면 상월로 889-19   | 조계종 |
| 547 | 전북 | 해월암 | 임실군 오수면 오수8길 49-30   | 조계종 |
| 548 | 전북 | 죽림암 | 임실군 임실읍 호반로 79-53    | 조계종 |
| 549 | 전북 | 원홍사 | 장수군 산서면 원홍길 15-8     | 태고종 |
| 550 | 전북 | 영월암 | 장수군 산서면 봉서로 182-1    | 조계종 |
| 551 | 전북 | 미륵암 | 장수군 산서면 초장길 51-54    | 태고종 |
| 552 | 전북 | 성관사 | 장수군 장계면 장무로 492-8    | 조계종 |
| 553 | 전북 | 팔성사 | 장수군 장수읍 비행기로 1455-94 | 조계종 |
| 554 | 전북 | 신광사 | 장수군 천천면 신광길 31       | 조계종 |
| 555 | 전북 | 서고사 |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10-90 | 조계종 |
| 556 | 전북 | 일출암 | 전주시 덕진구 왜망실1길 120    | 태고종 |
| 557 | 전북 | 약수암 | 전주시 덕진구 도당산로 46-10   | 태고종 |
| 558 | 전북 | 선린사 | 전주시 덕진구 한배이6길 55     | 태고종 |



|     |    |     |                        |     |
|-----|----|-----|------------------------|-----|
| 559 | 전북 | 실상사 | 전주시 덕진구 어은로 89-11      | 태고종 |
| 560 | 전북 | 승암사 | 전주시 완산구 바람쐬는길 47-13    | 태고종 |
| 561 | 전북 | 동고사 | 전주시 완산구 낙수정2길 103-100  | 태고종 |
| 562 | 전북 | 남고사 | 전주시 완산구 남고산성1길 53-88   | 조계종 |
| 563 | 전북 | 불정사 | 전주시 완산구 남고산성1길 53-140  | 태고종 |
| 564 | 전북 | 학소암 | 전주시 완산구 평화7길 49-67     | 조계종 |
| 565 | 전북 | 정혜사 | 전주시 완산구 외칠봉1길 36       | 보문종 |
| 566 | 전북 | 유선사 | 정읍시 고부면 영원로 644-224    | 조계종 |
| 567 | 전북 | 법인사 | 정읍시 상신경1길 97           | 태고종 |
| 568 | 전북 | 내장사 | 정읍시 내장산로 1253          | 조계종 |
| 569 | 전북 | 남산사 | 정읍시 북면 정신로 183-64      | 태고종 |
| 570 | 전북 | 보림사 | 정읍시 북면 보림1길 497        | 조계종 |
| 571 | 전북 | 일광사 | 정읍시 성황산길 50            | 태고종 |
| 572 | 전북 | 정혜사 | 정읍시 죽림2길 28            | 태고종 |
| 573 | 전북 | 정토사 | 정읍시 정우면 정신로 832-20     | 조계종 |
| 574 | 전북 | 석탄사 | 정읍시 칠보면 허궁실 2길 186-125 | 심우회 |
| 575 | 전북 | 다천사 | 정읍시 태인면 태흥1길 59        | 태고종 |
| 576 | 전북 | 보흥사 | 진안군 마령면 원강정1길 16-133   | 태고종 |
| 577 | 전북 | 금당사 |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217      | 조계종 |
| 578 | 전북 | 은수사 |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406      | 조계종 |
| 579 | 전북 | 탑 사 |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367      | 태고종 |
| 580 | 전북 | 옥천암 | 진안군 용담면 주용로 227-164    | 조계종 |
| 581 | 전북 | 천황사 | 진안군 정천면 수암길 54         | 조계종 |
| 582 | 전북 | 고림사 | 진안군 진안읍 상역로 174-96     | 조계종 |
| 583 | 전남 | 고성사 |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산4         | 조계종 |
| 584 | 전남 | 옥련사 | 강진군 강진읍 덕남리 484-24     | 조계종 |
| 585 | 전남 | 금곡사 | 강진군 군동면 파산리 1012-2     | 태고종 |
| 586 | 전남 | 화방사 | 강진군 군동면 화산리 544        | 조계종 |
| 587 | 전남 | 정수사 |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26         | 조계종 |
| 588 | 전남 | 백련사 |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246        | 조계종 |
| 589 | 전남 | 무위사 |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1174       | 조계종 |
| 590 | 전남 | 송광암 |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산74        | 조계종 |
| 591 | 전남 | 홍덕사 |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699-2      | 조계종 |
| 592 | 전남 | 수도암 | 고흥군 두원면 운곡길 204        | 조계종 |
| 593 | 전남 | 봉래사 |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산66        | 조계종 |

|     |    |     |                      |     |
|-----|----|-----|----------------------|-----|
| 594 | 전남 | 능가사 | 고흥군 점암면 팔봉길 21       | 조계종 |
| 595 | 전남 | 금탑사 | 고흥군 포두면 금탑로 842      | 조계종 |
| 596 | 전남 | 서산사 | 곡성군 곡성읍 교촌리 184-1    | 조계종 |
| 597 | 전남 | 도림사 | 곡성군 곡성읍 월봉리 327      | 조계종 |
| 598 | 전남 | 관음사 | 곡성군 오산면 신세리 2        | 조계종 |
| 599 | 전남 | 수도암 | 곡성군 옥과면 설옥 613       | 조계종 |
| 600 | 전남 | 태안사 |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       | 조계종 |
| 601 | 전남 | 성륜사 | 곡성군 옥과면 미술관로 287     | 조계종 |
| 602 | 전남 | 천태암 | 곡성군 목사동면 대신로 381-336 | 조계종 |
| 603 | 전남 | 보광사 | 광양시 광양읍 서북4길 30      | 조계종 |
| 604 | 전남 | 백운사 | 광양시 옥룡면 백운사길 352     | 조계종 |
| 605 | 전남 | 천은사 |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70       | 조계종 |
| 606 | 전남 | 화엄사 |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 조계종 |
| 607 | 전남 | 사성암 |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산 4      | 조계종 |
| 608 | 전남 | 연곡사 |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산54-1    | 조계종 |
| 609 | 전남 | 다보사 | 나주시 경현동 629          | 조계종 |
| 610 | 전남 | 죽림사 |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산 1      | 조계종 |
| 611 | 전남 | 태평사 |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산 37-1   | 태고종 |
| 612 | 전남 | 불회사 |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999      | 조계종 |
| 613 | 전남 | 문성암 | 나주시 다도면 암정리 899-2    | 조계종 |
| 614 | 전남 | 운흥사 | 나주시 다도면 암정리 972      | 조계종 |
| 615 | 전남 | 복암사 | 나주시 다시면 가운리 419      | 조계종 |
| 616 | 전남 | 심향사 | 나주시 대호동 825          | 조계종 |
| 617 | 전남 | 미륵사 |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산124     | 조계종 |
| 618 | 전남 | 보광사 | 담양군 금성면 외추리 산171-2   | 조계종 |
| 619 | 전남 | 용화사 |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 106      | 태고종 |
| 620 | 전남 | 용추사 | 담양군 용면 용연리 833       | 조계종 |
| 621 | 전남 | 보리암 | 담양군 용면 월계리 산81-1     | 조계종 |
| 622 | 전남 | 용흥사 |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574      | 조계종 |

# 팔공산 은혜사 산내암자의 전통사찰 지정방안에 대한 연구

이 상 국

경주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오세덕

##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987년 <전통사찰보존법>을 제정했다. 이후 2009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을 변경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사찰 지정제도는 사찰 관리 혹은 관람객의 인식 전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지만, 전통사찰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통사찰 등급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했다.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기에 앞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경상북도에 있는 전통사찰을 지정적합도를 분석해 보았다. 지자체 별 전통사찰 지정현황, 불교종단 및 문화재 별 전통사찰 지정현황, 창건시기 별 전통사찰 지정현황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 별로 6개소 내외의 전통사찰을 지정한 사실과 종단으로는 조계종이 많은 전통사찰을 보유한 사실, 그리고 최소 50년 이상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상북도에서 중요한 불교문화 자원인 팔공산 산내암자 가운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족하지만, 전통사찰로 지정받지 못한 암자들이 있었다. 이에 은혜사 소재 산내암자 8곳을 선정하고 앞서 분석한 전통사찰의 지정적합도를 팔공산 산내암자에 대입하여 전통사찰 지

정적합도를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거조암, 기기암, 묘봉암, 백흥암, 운부암, 중암암 등 6개소가 전통사찰 지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전통사찰 등급제>에서도 비슷한 결과로 이어졌다.

<전통사찰 등급제>는 기존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이는 주관적인 항목을 객관적인 항목으로 수정했다. 또한 A부터 D까지 네 가지 등급을 배정하고, 등급마다 점수 범위를 생성하여 A는 합격, B는 검토 후 지정, C는 재검토, D는 탈락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은혜사의 산내암자인 거조암, 백흥암, 운부암, 중암암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기암과 묘봉암은 검토 후 지정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통사찰 등급제>는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다 사찰의 지정사유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었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했다. 또한 사찰에서 전통사찰 지정에 필요사항을 미리 인지하는 것으로 전통사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한 사찰의 무분별한 신청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찰에서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불사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통사찰 등급제>와 같은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과 동시에 은혜사 소속 산내암자인 거조암, 기기암, 묘봉암, 백흥암, 운부암, 중암암을 조속히 전통사찰로 지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

# A Study of standards for designation of traditional Temple of Eunhaesa Mountain temple in Mt. Palgongsan

Lee Sang Guk

Department of Culture Asset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Oh se deok

## (Abstract)

In 1987, <Traditional Temples Preservation Act> was established to manage traditional temples systematically. In 2009, the act was changed to <Traditional Temples Preservation and Support Act> that has been enforced up to now. The designation system of Korean traditional temples produced positive effects in diverse aspects, such as the management of temples and visitors' perception change. However, the criteria for designating traditional temples are not clear. To solve the problem, this researcher proposed a new system called <Traditional Temples Rating System>.

Before the proposed new system was described, <Traditional Temples Preservation and Support Act> was looked into, and the designation conformity of traditional temples in Gyeongsangbuk-do was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traditional temples designation was analyzed in three categories: traditional temples by local government, traditional temples by religious order of Buddhism and cultural assets, and traditional temples by years of history after their foundation . As a result, six traditional temples or so were designated in terms of local

governments;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has the largest number of traditional temples in term of religious order of Buddhism; traditional temples with at least fifty years of history were designated. Mountain temples of Mt. Palgongsan, an important cultural resource of Buddhism in Gyeongsangbuk-do, met the conditions in <Traditional Temples Preservation and Support Act> but failed to be designated as traditional temples. Eight mountain temples in Eunhae-sa were selected, and the designation conformity of traditional temples analyzed earlier was applied to the mountain temples of Mt. Palgongsan. In this way, the designation conformity of traditional temples was analyzed, and its validity was reviewed. As a result, six traditional temples-Geojoam, Ghighiam, Myobongam, Baeheungam, Woomuam, and Jungamam-were found to have the possibility of being designated as traditional temples. A similar result was drawn in <Traditional Temples Rating System>.